

국립국어원 2014-01-03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10-01

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연구

책임연구원
윤석민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 국고 보조금 지원으로 수행한 “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연구책임자: 윤석민(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보조사업자 한국농아인협회

<p>〈주관 연구 기관〉</p> <p>전북대 21세기 수화연구단</p>

연구진	
책임 연구원	윤석민(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이영재(전주선화학교 교사)
	서광진(전북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수)
	고아라(전주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수)
연구 보조원	최화니(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김성준(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졸업)

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연구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후원하고 전북대 21세기 수화연구단이 수행한 <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연구>이다. 농인은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취약하다. 청각언어 대신 시각언어인 한국수화(KSL)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은 한국어를 제2언어의 관점에서 학습하고 사용한다. 그러나 농인들이 청인과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한국어를 통한 정보 습득이 중요하다. 특히 기본적인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한국어 문해능력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외국의 문해력 상황에 대한 문헌 조사와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농인의 문해력 파악을 위한 실질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인의 문해력 향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한 제안의 핵심은 ‘농인 맞춤형 문해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인의 문해력 실태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와 전국 각 지역별, 기관별 문해력 교육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그리고 국어교육 및 농교육 관련 연구 성과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구 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와 문해교육 기관 조사 그리고 문해력 설문 조사였다.

○ 외국 문헌 조사

문헌 조사를 통하여 살펴 본 외국의 문해력 현황은 미국, 유럽(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 등 총 6개국의 현황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에서는 농인의 문해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된 ‘스타스쿨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유럽, 특히 영국에서는 구체적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에서는 DST(Deaf Support Tutor)의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 문헌을 통해 살펴 본 농인의 문해력은 한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농인의 문해력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고 또한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문해교육 현황 조사

1. 한국농아인협회 산하관련 기관의 교육 현황

- 한국농아인협회 지부 및 수화통역센터 185개 가운데 문해력 관련 조사에 응한 곳은 87곳이었다.
- 2013년 현재 농인 대상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46개 기관으로 교육 경험이 있는 전체 기관(61개)의 75%에 해당된다.
- 문해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 수는 총 131개로 기관당 평균 2.14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교육 프로그램은 평균 주당 3.25회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110분이다.
-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총 1602명으로 프로그램당 1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자는 총 144명으로 이 가운데 농인 교수자가 97명, 청인 교수자가 47명이다.
- 교육 프로그램의 교재 사용비율은 56곳(87% = 시판교재 67% + 자체제작교재 20%)이고 교재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8곳(13%)이나 되었다.

2. 관련 전문가 심층 면담

- 면담 대상: 안동시 수화통역센터, 완주군 수화통역센터,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 교육 프로그램으로, 캐논은 수화경연대회나 농인의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고 안동시는 문해교육과 함께 시사, 상식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완주군은 5년간(2009년~현재) 한국어 및 수화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 교육 대상자로, 캐논은 직장 농인으로 연령이나 학력이 비슷하여 한국어 능력 역시 비슷한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안동시는 30~50대의 성인 농인으로 문해력의 편차가 큰 사람이 섞여 있으며 완주군은 50대 위주로 초급과 중급으로 수준을 나누고 교육하고 있다.
- 교수자로, 캐논은 지역 내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청인인 직장 내 간부가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고 있고 안동시와 완주군은 농통역사 등 농인 교수자와 수화통역센터 직원이 교수자로 활동하고 있다.
- 교재로, 안동시에서는 초등학생용 문법서를 사용하다가 2012년 이후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완주군에서는 5,6세용 한글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 국가차원의 행정적 지원으로, 캐논에서는 장애인고용정책의 활성화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안동시와 완주군에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완주군에서는 국가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문해력 설문 조사

- 167명의 농인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9.6점**(20점 만점)이었다. 이는 비교기준으로 삼은 청인 중.고등학생 16명의 평균점수 **16.7점**에 비해 무척 낮음을 알 수 있다. (청인 초등학생을 비교기준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설문지 문항의 소재와 내용이 성인의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관련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 설문지 응답률을 연령, 학력, 성별로 살펴봤을 때, 연령은 **10~20대**, 학력은 **대재**, 성별은 **남성**의 문해력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특히 고졸보다 고재, 대졸보다 대재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문해력이 높게 나타났다.
- 문해력 점수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읽기 교육 경험**과 **독학**이었다. 부모의 농인 여부, 부모의 수화 가능 여부, 응답자의 수화 능숙도는 문해력과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 사실, 추론, 비판 영역의 문항 중 **추론** 영역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사실 영역과 추론 영역의 점수 차가 커졌다.
- 문해력 점수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짧은 텍스트, 텍스트와 같은 형식의 질문, 명사나 구 단위의 정보, 시각적 자료, 명시적인 그래프, 상식적인 정보 등이었다.
- 농인들이 글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은 높지만 그걸 증명하는 데 필요한 어휘력과 문장력이 부족하여 실제 이해 능력보다 더 낮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 농인 맞춤형 문해교육 방안

1. 교수자

- (1) 수화 능통 교수자
- (2) 농인.청인 교수자의 협업 필요(단계마다 농지원교사(DST, Deaf Support Tutor) 배치)
- (3) 상황에 따른 문형구성 및 이해능력 필요
- (4) 수화와 한국어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 필요
- (5) 농인 맞춤형 교육의 원리 이해 필요(이해교육 위주의 농인 맞춤형 문해교육 실시)

2. 교재

- (1) 멀티미디어 교재
- (2) 수준별 교재
- (3) 짧은 텍스트의 교재
- (4) 수화와 한국어의 차이를 고려한 교재
- (5) 농인의 인지적 능력을 고려한 교재
- (6) 익숙한 소재를 활용한 교재

3. 교육 프로그램

- (1)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 (2) 단계별 교육 목표를 반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초급(기본적 문해력) → 중급(맥락적 문해력) → 고급(분석적 문해력)
- (3) 수화교육과 병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 (4) 농인과 청인의 교류를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
- (5)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4. 제도 정비 및 행정 지원

- (1) 수화법의 제정
- (2)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한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농교육 교사 필요)
- (3) 농교육자 처우 개선(예산 지원 및 교사 자격 인증제 필요)
- (4)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 (5) 농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 (6) 중장년층 문해교육 강화 방안(문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40~50대 중심)

주요어: 농인, 문해력, 수화, 문헌조사, 설문 조사, 심층 면담, 교수자, 교육 프로그램, 교재, 법률적·행정적 지원.

차 례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방법	3
2.1. 연구 추진 경위	3
2.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4
2.2.1. 문헌 조사	4
2.2.2. 기관 조사	5
2.2.3. 문해력 설문 조사	6
3. 외국의 농인 문해교육 현황 조사	9
3.1. 미국	9
3.1.1. 미국의 농교육과 의사소통 방법의 발달	9
3.1.2. 미국 농인의 문해력 실태 연구	10
3.1.3. Star School Project	11
3.1.3.1. 이중언어의 이론적 배경	11
3.1.3.2. ASL/영어 이중언어 교육	13
3.1.4. Star School Project의 실시와 결과	13
3.1.4.1. 뉴 멕시코 농학교	13
3.1.4.2. 인디애나 농학교	16
3.2. 유럽	16
3.2.1. 스웨덴	16
3.2.2. 영국	17
3.2.2.1. 영국 농인의 문해력 현황	17
3.2.2.2.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평가	18
3.2.2.3. Michael Young Prize 2006	27

차 례

3.2.3. 네덜란드	28
3.2.3.1. 네덜란드 수화와 독일 글말의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28
3.2.3.2. Hermans(2008)의 도식	28
3.2.3.3. 결과	29
3.3. 뉴질랜드	29
3.4. 일본	31
3.4.1. 일본 농학교의 발달과 현황	31
3.4.2. 일본 농학생의 학력 지체와 읽기 문제 연구	33
3.4.3. 일본 성인 농인의 문해교육 현황	34
4. 국내 농인의 문해교육 조사 현황	39
4.1. 문해교육 기관의 교육 현황	39
4.1.1. 조사 방법	39
4.1.2. 조사 결과	40
4.2. 관련전문가 심층 면담	55
4.2.1. 심층 면담 질문지	56
4.2.2. 농인 문해교육 실태	60
4.2.3. 문해교육 개선 방향	75
4.3. 요약	83
5. 농인의 문해력 설문조사	87
5.1. 설문지 문항 작성	87
5.1.1. 문항 작성 기준	87
5.1.2. 기초 설문지 작성	88
5.1.3. 예비 조사 실시 및 문항 수정	89

차 례

5.2. 조사 지역 및 대상자	92
5.3. 조사 결과 분석	94
5.3.1. 전체 점수 분포	95
5.3.1.1. 소속 집단별	95
5.3.1.2. 연령 및 학력별	97
5.3.1.3. 기초 현황별	100
5.3.1.4. 점수대별	102
5.3.1.5. 변별도 분석	103
5.3.2. 문항별 점수 분포	105
5.3.3. 영역별 점수 분포	122
5.3.3.1. 사실 정보	127
5.3.3.2. 추론 정보	129
5.3.3.3. 비판 정보	130
5.4. 요약	131
6. 사례별 문해력 향상 방안	133
6.1. 외국 사례 중심	133
6.2. 문해교육 기관 사례 중심	134
6.3. 설문 조사 결과 중심	137
7. 제언	139
7.1. 교수자	139
7.2. 교재	140
7.3. 교육 프로그램	142
7.4. 제도 정비 및 행정 지원	143
참고문헌	145

부록목차

[부록 1] 문해력 설문지	155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1) 캐논코리아 농인용	167
[부록 2] 심층면담질문지 (2) 캐논코리아 관리자용	169
[부록 2] 심층면담질문지 (3) 종교기관용	171
[부록 2] 심층면담질문지 (4) 일반 농인용	173
[부록 3] 심층면담 전사본 (1) 캐논코리아	175
[부록 3] 심층면담 전사본 (2) 안동	185
[부록 3] 심층면담 전사본 (3) 완주군	209
[부록 4] 문해력 설문지 코딩 자료	239
[부록 5] 기관별 문해교육 현황 조사표	251

표목차

<표 1> 연구 추진 경위	3
<표 2> 문해교육 프로그램 기관 정보	44
<표 3> 사용 교재 현황	52
<표 4> 심층 면담 조사 현황	56
<표 5> 심층 면담 문해교육 기관의 교수자 현황	61
<표 6> 안동시와 완주군 수화통역센터의 사용 교재 현황	63
<표 7> 심층면담 실시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현황	65
<표 8> 안동시 수화통역센터 문해교육 프로그램 현황	66
<표 9> 완주군 수화통역센터 문해교육 프로그램 현황	68
<표 10> 국가 차원의 행정 지원 현황	70
<표 11> 심층 면담 문해교육 기관의 학습자 현황	72
<표 12> 심층 면담 문해교육 기관에서 지적한 문제점	74
<표 13> 농인 문해교육 교수자의 발전 방향 제안	75
<표 14> 면담 문해교육 기관의 교구 및 부교재 발전 방향 제안	77
<표 15> 문해교육 프로그램 모형에 대한 제안	79
<표 16> 심층면담 기관 요구사항-행정적 문제 개선	80
<표 17> 심층 면담 조사자의 여타의 개선점	82
<표 18> 청인과 농인의 문해력 평가 문항 틀 비교	88
<표 19> 문해력 설문 문항의 영역별 분류	91
<표 20> 개별 문해력 설문 문항의 분류 정보	91
<표 21> 문해력 설문 조사 일정	92
<표 22> 소속 집단별 인원 및 점수	96
<표 23> 종교 기관의 연령별 문해력 점수표	97
<표 24> 연령·학력별 점수분포	99
<표 25> 연령·학력별 인원수	99
<표 26> 기초 현황별 문해력 평균 점수	100
<표 27> 점수대별 분포 현황	102
<표 28> 문항별 변별도 분석	104
<표 29> 문항별 정답률	106
<표 30> 정답률에 따른 문항순	106
<표 31> 사실 영역과 추론 영역의 차이	123
<표 3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영역별 문해력 점수	124

그림목차

<그림 1> 현황 조사표 견본	40
<그림 2> 회신 유무	41
<그림 3> 응답기관 중 문해교육 프로그램 유무	41
<그림 4> 전체 조사 대상 기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유무	42
<그림 5> 응답 기관 중 현재 문해교육 진행 여부	45
<그림 6> 문해교육 횟수 및 시간	46
<그림 7> 프로그램당 참여 인원 수	47
<그림 8> 교실 구성	47
<그림 9> 농인 학습자의 수화 가능 여부	48
<그림 10> 교수자의 농인 여부	49
<그림 11> 교수자의 수화 가능 여부	50
<그림 12> 교수자의 전공	51
<그림 13> 교재 사용 현황	52
<그림 14> 지역별 조사자 비율	93
<그림 15> 성별 조사자 비율	93
<그림 16> 연령대별 조사자 비율	94
<그림 17> 학력별 조사자 비율	94
<그림 18> 소속 집단별 점수 분포	95
<그림 19> 종교 기관의 연령별 문해력 점수 그래프	96
<그림 20> 학력별 성적 추이	98
<그림 21> 연령별 성적 추이	98
<그림 22> 전체 문항 정답률	105
<그림 23> 영역별 정답률	123
<그림 24> 연령에 따른 영역별 점수	125
<그림 25> 학력에 따른 영역별 점수	125
<그림 26> 성적 등급에 따른 영역별 점수	126
<그림 27> 소속 집단에 따른 영역별 점수	127
<그림 28> 사실 영역 정답률	128
<그림 29> 추론 영역 정답률	129
<그림 30> 비판 영역 정답률	130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한국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은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취약하므로 한국어 문해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하다. 이에 전국에서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력 실태 기초 연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하여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 방안을 정책에 반영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 인간적인 삶의 구현 수단으로서의 문해력 보장

「국어기본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해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국민이 교양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인의 문해력 실태 조사 및 결과 통계화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 농인의 언어적 상황에 맞는 문해교육 요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며,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국가가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바는 농인의 제 1 언어인 수화의 사용을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화언어가 농인의 모어라면 수화의 형태·통사적 특성의 파악 없이는 국어의 문해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농인의 모어인 수화언어를 존중하되 동시에 국어 사용능력의 향상을 통한 문해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농인의 수화 사용 환경과 문해력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농인의 평생교육 의무 실현

「평생교육법」 제3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

인들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농인 성인들의 경우,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또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 국민의 동등한 교육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농교육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농인의 문해력 실태 조사 미흡

청인을 대상으로 한 전 국민 문해력 기초조사는 지난 2008년 국립국어원의 조사를 통해 38년 만에 이루어진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 문해능력에 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문해력 실태 조사가 시급한 대상은 농인이다. 문자는 음성언어를 글로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청인들이 문자에 접근하기는 쉽다. 반면에 농인의 자연발생적 언어는 수화이고 수화는 음성언어 체계를 따르지 않아 문자로 된 글은 농인들이 쉽게 습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잠정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농인들이 역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청인들보다 문자에의 접근성이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하여 농인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국립국어원, 2013)와의 연계성

2013년의 선행 연구는 농인의 국어 사용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연구인 반면, 본 연구는 국어 이해 능력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글이나 도표로 된 정보 등에 대한 문해력 측정에 초점을 두었다. 이 두 연구를 통해 농인의 국어 능력에 대해 보다 폭넓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추진 경위

본 연구가 진행된 전체적인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추진 경위

일시	추진 내용
13.08.02.	사업 소개 및 사업 계획 수립
13.08.08.	연구 시안 발표 및 연구 방향 설정 논의
13.08.16.	착수보고서 작성 방안 논의
13.08.21.	사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13.08.29.	착수보고회 예비 모임
13.08.31.	1차 예비조사용 문해력 설문지 작성
13.09.07.	한국농아인협회 자료 검토 및 착수보고회 최종 점검
	1차 예비조사 시행 (서울)
13.09.12.	착수보고회 시행
13.09.14.	연구 계획 조정 및 문해력 설문지 수정 논의
13.09.28.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연구 현황 검토
13.10.05.	1차 예비조사용 문해력 설문지 작성
13.10.06.	2차 예비조사 시행 (남원)
13.10.12.	2차 예비조사 결과 분석 및 문해력 설문지 최종 확정
13.10.15.	1차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시행 (캐논코리아안산공장)
13.10.26.	1차 조사 결과 보고 및 사업추진상황보고서 작성 논의
13.11.02.	청인 대상 조사 결과 보고 및 문해교육 자료 점검
13.11.03.	2차 설문조사 시행 (목포농아인교회)
13.11.10.	3차 설문조사 시행 (대구농아인교회)
13.11.16.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계획 검토
13.11.25.	2차 심층 면담 시행 (안동시수화통역센터)
13.11.26.	4차 설문조사 시행 (충주성심학교)

13.11.29.	3차 심층 면담 시행 (완주군수화통역센터)
13.11.30.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결과 분석
13.12.07.	최종보고서 목차 작성 및 문해교육 자료 점검
13.12.08.	5차 설문조사 시행 (서울명성교회)
13.12.14.	중간보고서 시안 점검 및 해외 자료 번역 작업
13.12.21.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결과 분석 방안 논의
13.12.27.	설문지 1차 통계 분석 결과 검토 및 수정
14.01.03.	설문지 2차 통계 분석 결과 검토 및 수정
14.01.11.	심층 면담 정리 현황 및 해외 자료 검토
14.01.17.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 논의
14.01.25.	최종보고서 시안 검토
14.02.08.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4.02.18.	최종보고회(국립국어원 대회의실)
14.02.28.	최종보고서 발행

2.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2.1. 문헌 조사

○ 국내 문헌 자료 수집

먼저 국내의 농인 문해력 및 문해교육 연구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방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국내의 문헌 자료를 수집하였다. 농인의 문해력과 문해교육에 관한 각종 학술 논문과 서적, 연구 사업을 검색하여 다방면으로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청인의 문해력과 문해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농인 관련 연구와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농인의 문해교육 현황이 충분히 기술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해력 측정 조사 또한 청인에 비하여 매우 지엽적임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틈틈이 활용하여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견고히 하였다.

○ 외국 문헌 자료 수집

국내 농인의 문해교육 현황과 더불어 외국의 교육 현황에 대하여 살피기 위해 외국 문헌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진적인 문해교육 사례를 살핍으로써 국내의 농인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영국 및 유럽, 뉴질랜드, 일본의 농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의 확보는 각국 농아인협회와 농인 관련 기관의 공식 배포 자료, 농교육 서적과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해석 과정을 거쳐 정리하였다. 각국의 농교육 역사에서부터 문해교육 방법론, 농인 문해력 조사와 현재의 교육 현황 등 폭넓은 주제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는 실질적인 농인의 문해력 향상 방안과 행정 정책 제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2.2.2. 기관 조사

○ 농인 대상 문해교육 현황 자료 수집

농인 대상 문해교육 기관에는 학교 및 종교 기관 그리고 전국 각지의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지부 및 수화통역센터가 있다. 먼저 종교 기관의 경우 농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보다는 농인과 청인들의 수화 교육에 더 힘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학교에서는 국어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었으나 일반학교와 농학교의 문해교육 실태에 차이가 있었다. 일반학교의 경우, 청인 대상 국어 교육과 사실상 다를 바 없고, 농학교의 교육은 문해력 설문 조사에서 드러나듯이 다른 계층의 농인에 비하여 그 평균 결과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의거하여 문해교육에 있어서 소외받고 있는 농인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농학교는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국 각지의 농아인협회는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고, 농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단법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에 종교기관에 비하여 농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 다양한 교육시스템 안에는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해교육 소외 농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지부 및 수화통역센터를 통하여 현재 문해교육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방법은 전국 농아인협회에 공문을 보내어 본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여 메일로 그 자료를 받아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프로그램 진행 일시, 교수자, 학생, 프로그램 담당자 정보, 교재나 평가 결과 자료 등도 포함시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심층 면담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 진행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지부 및 수화통역센터를 통해 받은 문해교육 현황 관련 조

사를 토대로 심층 면담의 필요성을 느낀 곳을 골라 진행하였다. 그리고 문해력 설문 조사가 진행된 곳으로서 기업이 있었는데 기업 내부에서는 재사회화 개념으로 농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심층 면담 조사 기관으로 특별히 선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해당기관의 상황에 맞는 심층 면담용 설문조사지를 만들어 직접 방문 조사 전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그 조사지를 바탕으로 직접 방문 조사 시에 심층 면담 질문을 하였다. 미리 배포한 심층 면담용 설문조사지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진행된 내용은 녹음 및 녹화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전사하여 내용을 기록하여 그대로 보존하였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내용, 교수자 관련 내용, 학생 관련 내용, 교재 관련 내용, 국가 차원의 행정지원 관련 내용으로 분류하고, 또한 각 소재별 실태와 전문가 권고 내용을 나누어 정리하였다. 따라서 심층 면담의 주내용은 농인 학생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교육 환경은 어떠한지에 대한 현 실정을 다루었고, 그에 관련한 전문가들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2.2.3. 문해력 설문 조사

○ 자료 수집

전국 각 지역의 농인 167 명을 대상으로 문해력 설문을 실시하였다. 농인의 전반적인 문해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에 따른 조사 범위는 지역공동체, 기업, 학교로 한정하였다. 지역공동체의 경우, 모든 공동체를 개별적으로 모두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지역별로 가장 크게 구성되어 있는 종교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분석

설문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문항별로 인코딩하여 입력하였다. 입력과 별개로 각각의 설문지를 채점하여 점수에 따라 구분하였다. 문해자의 등급별 구분 시 청인의 문해력 평가에서 사용된 비문해자의 판정기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농인의 경우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그들이 접하지 못한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즉, 글의 난이도가 아닌 정보의 생소함 때문에 낮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점수를 기준으로 문해자의 등급을 판정하되 농인의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해력 등급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입력 자료를 토대로 문해력 등급이 낮게 판정된 대상자의 설문지와 평가 결과 등을 문해력이 높게 판정된 대상자의 자

2. 연구 방법

료와 비교하여 문해력이 낮은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또한 청인의 문해력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원인 등에 대해서 밝혀보았다.

3. 외국의 농인 문해교육 현황 조사

3.1. 미국

3.1.1. 미국의 농교육과 의사소통 방법의 발달

- Thomas Hopkins Gallaudet이 이웃인 M. M. Cokswell의 9세 청각장애 딸을 가르친 것을 계기로 1815년 유럽의 농교육계를 시찰하고 돌아온 후, 1817년 코네티컷주 Hartford에서 미국 최초의 농학교를 설립하였다.
- Gallaudet은 구화법에 관심이 있어 영국의 구화교육법을 연수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프랑스로 건너가 Paris 농학교에서 프랑스법(Manual method)을 연수받았다. Hartford 농학교 설립 이후 프랑스의 농교육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것이 이후의 미국 농학교 교육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결합법(Combined Method)의 등장
농교육 현장 경험이 증대되고 동시에 구화법이 도입됨에 따라 방법론에 있어서 구화와 수화를 적절하게 결합하는 체계인 결합법(combined method)이 발달하여 미국 농교육의 독특한 체계로 자리매김하였다. 농인들이 수화 이외에 사용하는 언어적 수단이 없으면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 1880년 밀라노 농교육자 국제회의
이 회의에서 “수화법과 구화법을 병용하게 되면 농학생의 말하기와 독화하기에 정확성을 더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순구화법(the pure oral method)을 채택한다”고 선언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구화법이 학교 교육의 목표와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결합법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구화법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¹⁾
- Total Communication(TC)의 등장
이러한 결합법의 전통이 토탈 커뮤니케이션(Total Communication: TC)으로 이어져 발전되었다. TC는 수화, 지화, 독화, 보청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Lionel Evans, 1982). TC는 음성언어(spoken language)의 습득을 목표로 하

1)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서 1928년에 발행한 「The Deaf-Mut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1920」 참조. 1862년에 설립된 호주 Deaf Children Australia에서 나온 'communication Methods'라는 소책자에 따르면 독화의 성공률은 대략 30%라고 밝히고 있다. 구화법에서는 독화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독화에 실패한 부분은 여러 맥락 요소들을 참고하여 추측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며, 수화, 지화, 독화, 보청기 등을 매개체로 활용하여 음성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요체이다. 따라서 T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성언어(spoken language)의 습득이 전제된다.

○ Bilingualism의 등장

음성언어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TC가 농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문제 제기가 일어나 이중언어적 방법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에서 농교육의 대안적 방법으로서 이중언어 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3.1.2. 미국 농인의 문해력 실태 연구

- 청각장애 학생의 학력은 청인 학생보다 2년 이상의 지체가 나타난다. 청각장애 학생은 학습이 곤란하므로 직업 훈련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Reamer, 1921).
- Stanford Achievement Test 9th Ed.(SAT9) 검사를 실시하여 미국 청각장애 학생의 읽기능력(Reading comprehension)을 조사하였는데 18~19세인 농학생의 평균이 청인 학생 8~9세의 능력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Traxler, 2000).
- 공립학교 청인 학생의 한 학년과 비교하여 농학생의 읽기 능력은 학년당 0.3학년씩 증가한다고도 한다(Paul, 2003, Allen, 1986).
- 청각장애 학생의 학력 지체에 관한 보고가 다수 있다(Moors, 1932; Lang, 2003; Marschark, Lang & Albertini, 2002).
- C.A. Perfetti & Rebecca Sandak(2000)은 1967~2008년까지의 41년 동안에 나온 0세~3세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총 41개의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어휘력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 연구에서 미국은 지난 65년 동안 문해력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어휘 지식과 읽기 이해력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워 오고 있다(Davis, 1944; Becker, 1977; Cunningham & Stanovich, 1998; Snow, 2002).
 - 독자들이 글 속에 있는 단어 전체의 90~95%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독해력이 지체된다고 지적한다(Carver, 1994; Chall, Jacobs & Baldwin, 1990; Nagy & Scott, 2000).
 - 실제 이 연구에 따르면 농-난청 학생들의 어휘 지식은 청인 또래와 비교할 때 양적으로 뒤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농-난청 학생들의 어휘 습득이 지체되고 있다거나, 더 작은 어휘 목록을 가지고 있다거나, 새로운 단어의 학습 속도가 늦는다고거나, 단어 학습을 결과하는 맥락의 범위가 좁다고 보고하고 있다

(Cole & Flexer, 2007; Easterbrooks & Estes, 2007; Lederberg, 2003; Lederberg & Spencer, 2001; Marschark & Wauters, 2008; Paul, 2009; Rose, McAnally & Quigley, 2004; Schirmer, 2000; Trezek, Wang & Paul, 2010).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난청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교육 방법은 없다고 한다(Easterbrooks & Stephenson, 2006; Luckner, Sebal, Cooney, Young & Muir, 2005/2006; Schirmer & McGough, 2005).
- 이 연구에서 지난 41년간의 41편의 0~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 어휘 교수를 명백히 하는 정규 학급 수업의 부분에 헌신할 것.
 - ㉡ 다양한 맥락에서 새로운 단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도록 준비하거나 어휘 교수에서 충분한 연습시간을 허용할 것.
 - ㉢ 논의, 쓰기, 그리고 확대된 읽기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새로운 어휘를 사용하는 충분한 기회를 줄 것.
 - ㉣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어휘 학습자가 되는 방법을 익히도록 준비시킬 것.
 - ㉤ 글을 읽는 어휘력을 획득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과 사회 연구 같은 내용 영역 교육과정에 분명한 어휘 교수를 통합시킬 것.

3.1.3. Star School Project

- 미국의 48개 주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적용하기 위한 ‘Star School Project’에 참여하고 있다.

3.1.3.1. 이중언어의 이론적 배경

- 1960년대: 연구자들은 ASL과 영어 같은 농학생들의 선호/지배언어를 활용한 이중언어/이중문화를 제안하였다.
- 1990년대: 농교육 전문가들은 이중언어를 성취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 2000년대: Jim Cummins이 ‘Linguistic Interdependency Model’ 을 개발하였다. 학생의 제1 언어(음성과 문자 모두)가 잘 발달될 때, 제2 언어는 쉽게 습득되고 학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배경
 - ① 농학생과 청인 학생들

- 농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언어습득과 발달에 중대한 장애를 갖고 있다.
- 5세쯤에 언어습득과 발달과정이 바로 시작한다.
- 농부모의 농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이중언어가 동시적으로 발달한다. ASL은 종종 선호하거나 지배적인 언어가 된다.
- 청인 부모의 농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이중언어가 순차적으로 발달한다.
- 농학생들의 언어의 습득에 활용되는 방법은 한 가지(시각)이다.
- 청인 학생들은 언어의 습득과 학습에는 두 가지 방법(청각/시각)이 있다.
- 청인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이다.
 - 학교와 가정환경 모두에서 한 언어를 사용한다.
 - 시각적 방법에 의해 지원되는 청각적 방법을 통해 제1 언어를 배운다.
 - 5세 때는 읽기와 쓰기 능력이 발달되기 시작한다.

② 청인 학생들은

- 가정, 학교, 놀이터, 체육행사, TV, 라디오 등에서 대화체의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힌다.
- 청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더 복잡하고 학문적인 영어를 배우기 위한 발판으로 대화체의 영어를 사용한다.

③ 농학생들은

- 이메일, TTY 전화, 또는 필기 등을 통하여 대화체의 (필담)영어를 사용한다.
- 사회의 또는 대화체의 영어는 읽기와 쓰기를 포함하는데 사회 언어보다 학문적 영어에 더 유사하다.
- 읽기와 쓰기를 통한 영어의 습득을 위해 과할 정도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문제점

- 농학생들의 언어 습득에 있어서 활용되는 방법은 한 가지(시각)이다.
- 교육적인 시스템은 농학생들이 강력한 제1 언어 기반인 내면화된 언어 자료 없이 영어를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 농학생들은 제2 언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청인 이중언어 학생들보다 더 많은 도전을 안고 있다.

① 청인 부모의 농아동들

- 종종 다른 방법들이 실패한 후에야 ASL 같은 시각적인 언어에 노출된다.
- 현재의 (교육적인) 활동들은 3~5년을 넘는 시행착오를 포함하고 있다.
- 결과는 ASL과 영어 습득의 지체이다.

② 농부모의 농아동들

- 가정에서 제공된 최초의 언어(ASL)에 접근할 수 있다.
- 종종 가정에서 풍부한 언어와 소통을 경험한다.

- 소통은 의미 있고 접근 가능하다.
- 농인인 것은 정상 상태임을 느끼게 한다.

3.1.3.2. ASL/영어 이중언어 교육

○ 이중언어주의에 대하여

이중언어자들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한 언어의 말하기 능력과 다른 언어의 쓰기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 수화를 사용하고 다른 언어를 읽고 쓰는 농인과 비슷한 상황), 숙달의 정도가 다양한 두 개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에서 완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Francois Grosjean, 1992).

○ 이중문화

이중문화는 적어도 3가지 특성으로 규정된다.

- ㉔ 그들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문화에 거주한다.
- ㉕ 그들은 적어도 한 가지는 그들 문화에(태도, 행동, 가치 등)에 적응한다.
- ㉖ 그들은 그들 문화의 양상을 혼합한다.

3.1.4. Star School Project의 실시와 결과

3.1.4.1. 뉴 멕시코 농학교(New Mexico School for the Deaf)

○ 1997년: 뉴 멕시코 농학교의 ASL/영어 이중언어 체제 제안

- ASL/English Bilingual Staff development Model을 개발하였다.
- 교사들에게 이중언어 이론들, 제1 언어 및 제2 언어 습득, 문해력 개발, 행동 조사 프로젝트를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 ASL/영어 이중언어 교육 및 연구 센터를 뉴 멕시코 농학교에 설립하였다.
- 연구기반센터는
 - ㉔ 효과적인 ASL/이중언어교실 교육 정책
 - ㉕ 교사들에게 현행 연구
 - ㉖ 명백한 철학을 가진 연구기반과 일관성
 - ㉗ 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 ㉘ 다른 농학교들과 교수모델 공유 등을 촉구
- 농학생을 위한 11개의 거주지 학교를 포함한다.

○ 이론적인 토대

① 관여되는 학습원칙

- 아이들은 실제적이고 여러 전문 분야의 임무와 관련된다.
- 평가는 실제의 임무에서 학생의 수행에 기초한다.
- 학생들은 쌍방향 방법의 교육에 참여한다.
- 학생들은 협력적으로 활동한다.
- 학생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팀을 이룬다.
- 교사는 학습에 있어서 촉진자이다.
- 학생들은 탐험을 통해 배운다.

② ASL/영어 이중언어 직원 개발 모델

- 농학생들의 교사를 위한 2년(4학기) 프로그램(K-12)이 있다.
- 읽기 과제들, 쓰기 과제들 반영, 이중언어 토론, 제1 언어 및 제2 언어 습득, 문해력 이론과 활동, 이중언어 평가 등이 있다.

③ 이중언어 접근(ASL 우선과 코드 스위치(codeswitching))

- ASL 사용 능력
 - ㉠ 보기 또는 집중하기(수용성)
 - ㉡ 수화하기(표현성)
- 영어 문해력/구화 능력
 - ㉢ 지문자 읽기
 - ㉣ 지문자로 표현하기
 - ㉤ 읽기(영어 텍스트)
 - ㉥ 쓰기(영어 텍스트)
 - ㉦ 타자 치기(영어 텍스트)
 - ㉧ 독화
 - ㉨ 말하기
 - ㉩ 듣기

④ ASL/영어 이중언어 학습 공동체의 개발

- 학교, 교육과정, 언어 사용, 교사 선택 등에 대한 민감한 사회정책적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허용하였다(Wrigley, 1992).
- 농학교들은 역사적으로 수화사용을 금지해왔다(Baynton, 1996; Nover, 2000).
- 교육과정은 종종 농문화에 관심을 주지 않고 농아동들을 청인 세계와 동질화 하는 가치를 강조했다(Keefe, 1982).

⑤ ASL/영어 이중언어 학습 공동체의 개발

- 청인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교수 기술들은 그들의 시각적인 학습 욕구를 위한

고려 없이 농아동을 교수하는 데 사용되었다(Nover, 2002).

- 영어 단독 교수 패러다임은 농학생들의 낮은 성취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진전을 방해했다(Nover, 2002).
- ⑥ 농아동의 언어 습득 및 학습에 대한 문화적 과정 검토
 - 아동을 위한 언어 학습은 그들의 문화적응과정의 일부이다
 - ④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며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 ⑤ 언어는 문화의 다른 측면들이 전달되는 기본적인 매체이다.
 - ⑥ 언어는 아이들이 그들의 사회적 환경을 탐색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다.
 - 농문화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포함되는 언어의 모든 측면과 문해력 교수에 통합된다.

○ 결과

- ASL/영어 이중언어 직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의 도움을 받는 농학생들은 3년간 영어어휘력과 영어에 대한 Stanford-9 하위검사에서 성적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 ASL/영어 이중언어 학생 그룹(8~12세)은 3개의 Stanford-9 영어 성취 하위검사 각각에서 농학생을 위한 전국 표준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예를 들어, 영어 어휘력, 읽기 이해력, 영어).
- 부모의 청력 상태는 ASL/영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저학년생(8~12세)을 위한 Stanford-9 영어 성취 하위검사 수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부모의 청력 상태는 ASL/영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고학년생(13~18세)을 위한 Stanford-9 영어 성취 하위검사 수행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농 부모를 둔 고학년생들은 청인부모를 둔 고학년생들보다 Stanford-9 영어 성취 하위검사 3개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산출하였다.
- ASL/영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저학년생들은 ASL/영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고학년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어린 나이에 거주지 학교에 입학했다. 저학년생들은 평균 6.2세(1세부터 11세 범위)에 거주지 학교에 들어갔다. 반면에 고학년생들은 평균 9.6세에 거주지 학교에 들어갔다(5~17세 범위).
- “높은 성취자”와 “높은 득점자”인 ASL/영어 이중언어 학생에 대한 개요는 높은 IQ, 농부모, 가정에서 수화 사용, 유전된 농, 중도 또는 중중도 청력손상. ASL/English Bilingual Staff development Project에 참여한 교사와 함께 한 기간 등의 특징들과의 관련을 드러냈다.
- 교사가 ASL/English Bilingual Staff development Project에 참여한 전반적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교사 인터뷰와 평정척도 즉, “혁신 사용의 수준”을 포

함한 실재와 유사한 실험 기획에 의해서 드러난 것처럼 ASL/English Bilingual training을 이용하는 수준은 더욱 많이 늘어났다(Hall, Loucks, Rutherford, & Newlove, 1975). 프로젝트 참여 기간이 가장 오래된 조연자들은 혁신을 사용하는 가장 진보된 수준을 보여주었다(ASL/English Bilingual Staff development Project).

3.1.4.2. 인디애나 농학교(Indiana School for the Deaf)

- 1989년에 이중언어-이중문화 철학을 실시했는데 학생들은 3-4학년 수준에서 졸업했다.
- 2003년 즈음에는 인디애나 농학교 졸업학년생 평균 읽기 수준은 8.6학년으로 상승했다.
- 모든 인디애나 농학교의 졸업학년생의 평균 읽기 수준은 8.25였다.
- 2003년 즈음에는 인디애나 농학교 학생의 59%가 학위를 받았고 그들 100%는 대학에 진학하였다.
-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다.
- 보청기 사용이 증가하였다.
- 인공와우를 이식한 학생 수가 증가하였다.
- 청각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 “이 아동들의 뛰어난 능력들과 그들에게 제공된 조직적인 실패 양쪽의 중심에는 소통, 언어에 노출되고 발달하려는 욕구와 권리를 갖는 농-난청 아동들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인권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의사소통 없이는 교육적인 성장, 개성, 정서, 사회적 발달은 있을 수 없다. 의사소통을 위한 욕구와 권리는 농-난청 아동을 위한 어떠한 교육적인 시스템에도 기초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인간 경험에 단단히 엮여져서 그것 없이 삶을 상상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National Agenda, 2004).

3.2. 유럽

3.2.1. 스웨덴

- 스웨덴에는 청각장애학교가 5개교, 청각장애를 수반한 중복장애학교가 2개교 있다.

- 스웨덴의 청각장애 학생 교육과정에서는 수화를 제1 언어로 인정하고 스웨덴어를 제2 언어로 규정하고 있다.
- 수화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있어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이며,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의사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스웨덴의 특수학교의 교수 항목에 수화와 스웨덴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청각장애 학생들은 언어가 지체되어 있고, 문법적으로 틀리기 쉽다.
 - 수화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교환하는 수단이 된다.
 - 수화능력이 숙달되어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 수화능력이 숙달되어야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 수화를 모르는 청인과 접촉하여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나갈 수 있다.
- 스웨덴 특수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의무교육 연한이 10년이다. 저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중학년은 5학년부터 7학년까지, 고학년은 8학년부터 10학년까지이다.
 - 언어 영역이라는 과목을 두고 있다. 스웨덴은 이중언어 교육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수의 대부분은 언어영역에 치중하고 있다.
 - 리듬놀이나 연극 교과가 개설되어 있다. 자신을 표현하는 체험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 저학년 수업시수가 많다. 언어영역과 리듬놀이, 연극과목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업시수가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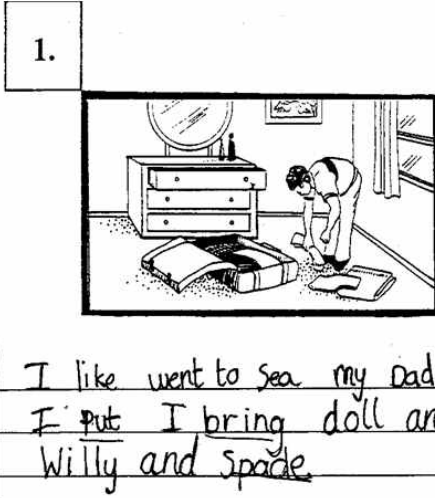
3.2.2. 영국²⁾

3.2.2.1. 영국 농인의 문해력 현황

- 영국 농인 현황과 문해 학습의 어려움
 - 매년 영국에서 태어나는 1,000명의 아이 중 한 명이 농인이다.
 - 농학교 졸업자 중 오직 2%만이 적절한 연령 수준에서 읽을 수 있으며, 98%는 기능상 문맹인 채로 학교를 떠난다.
 - 쓰기는 구어를 기록한 형태인데, 농아동은 선천적으로 구어를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으므로 머릿속에서 단어를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농아동에게 읽기와 쓰기는 매우 어렵다.

2) 영국에 관한 내용은 Diana Burman(2008), "Researching Deaf Children's Literacy", ESRC Research Methods Festival St Catherine's College, Oxford를 참조하였다.

○ 공립 교육과정 쓰기 평가 레벨1 예시



- 농인 BSL 화자의 영어 문해력을 측정하는 초기 시도로서의 쓰기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학생들이 쓴 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간단한 단어와 구로 의미를 전달한다.
 - ㉡ 학생들은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글의 형식이 전개되는지 인식하기 시작한다.
 - ㉢ 글자는 일반적으로 명확한 형태를 띠고 올바르게 지향된다.

○ 문제점 및 목표 설정

① 문제점

- 청인 아동의 쓰기 발달(writing progress)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은 농아동에게 부적당하다.
- 청인 아동의 쓰기 표본(writing sample) 평가는 농아동의 쓰기 표본보다 앞선 수준에서 시작한다.

② 목표

- 초등학교 농아동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문해력 평가를 고안한다.
 - ㉠ 문해력 발달 과정 모니터링
 - ㉡ 교사를 위한 체제(framework) 제공

3.2.2.2.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평가

○ 형태소(Morphemes)

- 형태소는 의미 단위로서 문해 학습에 중요한 요소이다.
- 형태소는 고정된 맞춤법이 있으며, 문법과 관련된다.
- 형태소로 단어를 분석하는 것은 아이들이 긴 단어를 짧은 단위로 쪼개고, 시각적 부호(Visual coding)에 접근하기 쉽도록 한다.
- 시각적 부호는 단어의 철자를 기억할 때 청인 아동보다 농아동에 의해 더 많이 사용된다.

○ 가설

- 농아동은 교육에 의해 아래의 과정에서 형태소를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 ㉠ 영어 단어 철자 쓰기
 - ㉡ 영어 단어를 해독하여 읽기
 - ㉢ 쓰기 계획 돕기
- 이는 형태소와 영어 문법이 중요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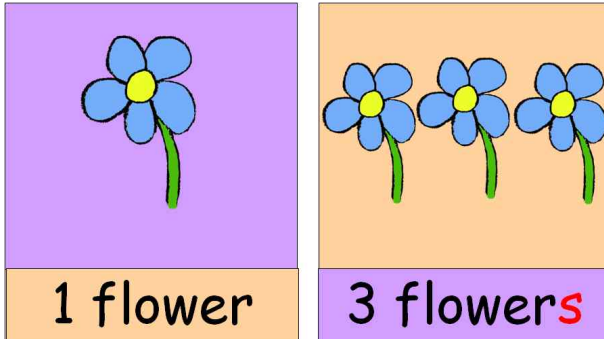
○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11개의 영어 분류 형태소 학습

- ① 복수 's' ('windows')
- ② 규칙동사 과거 시제 '-ed' ('jumped')
- ③ 3인칭 단수 's' ('Now Sophie walks')
- ④ 인칭 단어 '-er' ('teacher')
- ⑤ 인칭 단어 '-ist' ('artist')
- ⑥ 인칭 단어 '-ian' ('magician')
- ⑦ 접미사 '-ful' ('painful')
- ⑧ 접미사 '-less' ('painless')
- ⑨ 접미사 '-ment' ('government')
- ⑨ 접미사 '-ion' ('competition')
- ⑩ 접미사 '-ness' ('tiredness')

○ 단수와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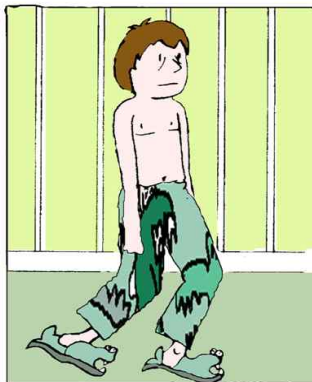
- BSL = 1 dog; 4 dog
- English = 1 dog; 4 dogs

• 그림 활용 예시



○ 시제 및 3인칭 단수

- BSL = I walk now, I walk yesterday
- English = I walk now, I walked yesterday
- 이야기 책 활용 예시



He walked to the bathroom,



....washed his face












....and cleaned his tee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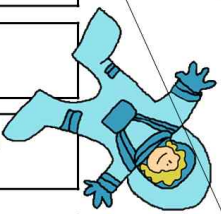
○ 인칭 단어

- ‘-er’, ‘-ist’, ‘-ian’
- 빙고 게임 예시

		
	artist O	florist X
		
teacher X	magician O	
		
	electrician O	

○ 접미사

- ‘-ful’, ‘-less’, ‘-ment’, ‘-ion’, ‘-ness’
- 문장 연결 문제 예시

	<p>We must look after our environment</p> <p>We vote for people to govern</p> <p>We measure rooms</p> <p>The grey paving stones</p> <p>The teacher said, "Punctuate this sentence"</p> <p>The cat ate to his satisfaction</p>	<p>with the correct punctuation.</p> <p>to find out the exact measurement.</p> <p>he went to sleep satisfied.</p> <p>those people form our government.</p> <p>made a grey pavement.</p> <p>by reducing pollution.</p>
---	---	---

○ 평가 항목

- ① 맞춤법
- ② 읽기
- ③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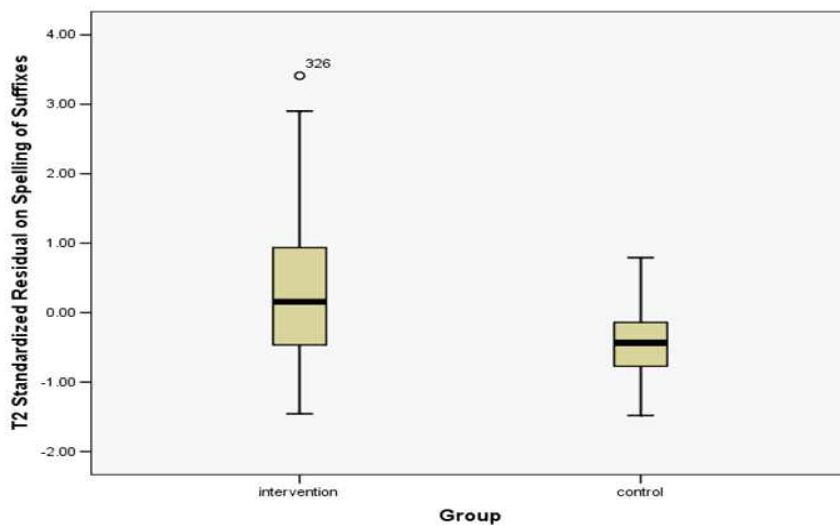
○ 맞춤법 평가

- 평가 문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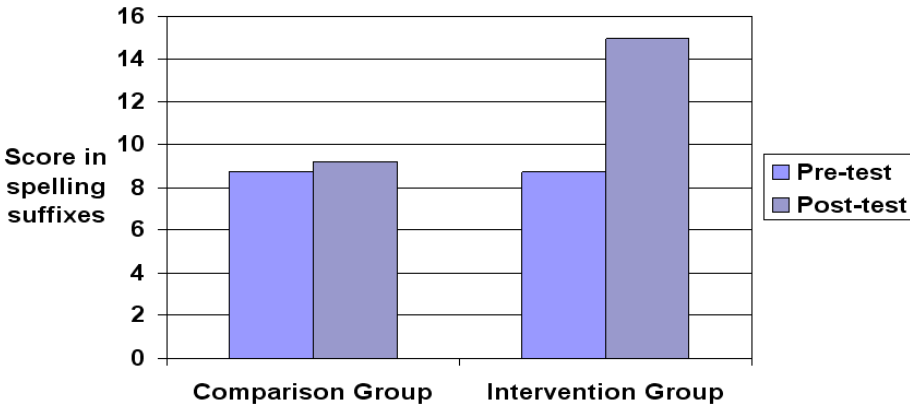


1. These are w.....

- 나이, IQ, 사전 테스트 점수에 따른 접미사 구사력과 맞춤법 사후 테스트 결과 (n=132)



- 맞춤법에서 형태소 사용이 늘어난 증거



Effect size: 0.49

○ 읽기 평가

- 평가 질문지 샘플

Read about the animals and then complete the chart below:-

ID _____ Today's date _____

Name _____

School _____

Class _____

Date of Birth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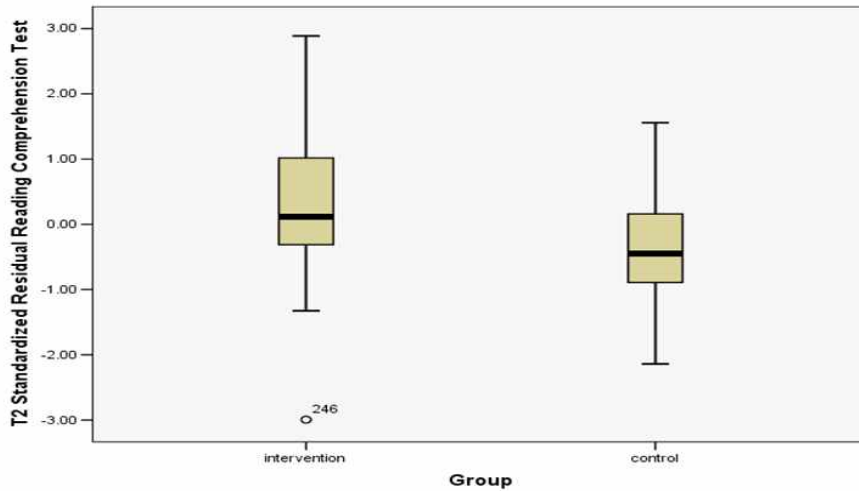
I am a boy/ girl _____

Pre-/ Post- / Delayed _____

Control/Intervention _____

	name	colour	sleeping place	sounds	shape of ears	Tick the characteristics and copy the words that tell you this
 the dog						sleepy _____ greedy _____ friendly _____ naughty _____
 the cat						bright _____ sun-lover _____ friendly _____ naughty _____

- 나이, IQ, 사전 테스트 점수에 따른 독해 제어력(Reading Comprehension controlling) 사후 테스트 결과



○ 쓰기 평가

① 평가 질문지

- 35명의 아이들에게 4개의 사진에 대하여 연속된 이야기를 쓰도록 유도하였다.

 1	 2	 3	 4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② 채점자 및 점수 분류

- 채점자는 농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사 6명으로 하였다.
- 영어 쓰기 지식에 따라 무리 'E'(최하위)에서 무리 'A'(최상위)로 분류하였다.

③ 무리 'E' (남 8, 여 2)

• 답안지 샘플

1.



We Bay look ~~dox~~ in clothes.

wihus Ba
 30
 100
 I want to the a
 * *

day clothes day

The boy bay c.

bay swimming clothes
 in bay felt
 went swimming.


Maza
 man mun father

- 아이들은 쓰기가 구두/청각 의사소통 체계에 기반한 의사소통 형태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 따라쓰기(copy-write) 순서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단어들을 두고 단어와 유사하게 일련의 알파벳 문자를 작성한다.
- 일부 지화 배열과 그에 상응하는 문자를 기억한다.
- 고립된 단어로 일련의 문자를 생산하며, 이는 관련성(relevant)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

④ 무리 'D', 'C'

• 무리 'D'(남 4, 여 3)의 답안지 샘플

1.



father makes go to
 the holiday air New
 house.

I go to Summer bag s

The man on for clues
 on bag with the.

my Father is cother pack
 bags.

I and bag walk and
 car.

I going holiday.
 He's bag into clothes.

The man on in clues part
 on bag with

- 무리 'C'(남 5, 여 1)의 답안지 샘플



We Mum and Dad and Boy and girl. we went to Sea Holiday and big dipper lane. ~~Get you in~~

The lady made pack a case.

One day sard are going si ing
sard's daddy mummy and sister. sard
have my 6 and I-S. s.
his bagger. sard love sand and sea
Fish. sard want look to the biggest Fish

My Dad pick and put the all
cloud in on the bag.

people put on bag very
lots clothes.

The bag pick clothes in the bag.

- 쓰기가 의사소통 체계임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관련 단어를 형성하는 일련의 문자를 생산하며, 일부 모호한 철자가 보인다.
- BSL 순서로 단어를 쓰며, 영어 문법도 드러난다.
- 무리 'C'는 뛰어난 영어 문법 인지에 의해 보다 응집된(coherent) 순서로 단어를 배치한다.

⑤ 무리 'B' (남 3, 여 2)

- 무리 'B'의 답안지 샘플

1.



I like went to sea my dad
I put I bring doll and
Willy and spade

That man name sam
he put pack a ready
go wales. he finish
he carried Bag.

It pick all dot on floor.
but in bag. I clean my
room and smee free behind door.
and front is window.

Men called is John
I want to went to
day holiday.


Boy name are
coldstone he pack
a clothes for
go to holiday.

- BSL을 영어로 옮겼다.
- 특징을 행동으로 이행하였다.

⑥ 무리 'A' (남 1, 여 3)

- 무리 'A'의 답안지 샘플

1.



The boy was pack the suit case because ready go to holidays.

The Boy was called Sam. Sam was pack the clothes Because we goes outing.

A The man is called Tom he put his clothes in pack because it was ~~went was go~~ great a hot day

On morning Daddy got a the big bag for clothes inside. He have a family went to the new house

- 응집된 의사소통(coherent communication)에 충분한 영어 문법을 생산하였다.
- ⑦ 채점의 신뢰성
 - 6명의 교사의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고 유의미하다(between $r = 0.57$ and $r = 0.94$, $p < 0.001$; $n = 32$).
 - 그러므로 이러한 쓰기 개요(writing profiles)의 무리들은 교사가 농교육의 평가와 진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장치를 제공한다.
- ⑧ 너필드 재단(The Nuffield Foundation) 지원에 의한 심화 연구
 - 257명의 농아동 대상,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3.2.2.3. Michael Young Prize 2006

- Michael Young Prize 2006의 전파
 - BBC 여성의 시간(BBC Woman's Hour)
 - 청각장애와 문해력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었다.
 - 보다 자세한 연구를 찾고자 하는 영국의 개인 및 전문가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 국내 회의(National Conferences)
 - 농인 교사, 농아동 부모, 전문가가 참여한다.
 - 스코틀랜드: 애든버러(Edinburgh), 트룬(Troon).
 - 영국: 맨체스터(Manchester), 코번트리(Coventry), 노팅엄(Nottingham), 레딩(Reading), 옥스퍼드(Oxford), 런던(London).
- 국제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s)
 - 미국 피츠버그(Pittsburgh): 미국, 캐나다 농교사의 연례회의이다.
 - 태즈메이니아 호바트(Hobart, Tasmania): 호주, 뉴질랜드의 농교사의 연례회의이다.

○ 기타

- NDCS(National Deaf Children's Society)에 의해 지원된 농아동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가족-학교 파트너십이 있다.

3.2.3. 네덜란드

- Daan Germans, Harry Knoors, ellen Ormel, and Ludo Verhoeven(2008)은 네덜란드 농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농아동의 읽기와 수화능력 사이의 관계(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ding and signing skills of Deaf children in Bilingual education programs)'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 Wauters, van Bon, and Tellings(2006)도 네덜란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뽑은 464명의 농아동을 대상으로 읽기 이해력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농아동의 능력은 평균적으로 8~9세의 청인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2.3.1. 네덜란드 수화(SLN)와 독일 글말(Written Dutch)의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을 받는 87명의 농아동에게 네덜란드 수화와 독일 글말을 사용하여 어휘 과제와 이야기 이해 과제를 수행하였다.
- 나이, 단기기억, 비언어 지능 점수가 통제되었을 때 수화 어휘 활동과 읽기 어휘 활동에서 얻은 점수 사이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3.2.3.2. Hermans(2008)의 도식

- Stage1은 Written Words를 Signs와 연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Signs와 Spoken Words는 같은 concept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 Stage2는 Written Words-Signs를 concept와 연결하는 표제어 중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Signs의 concept로 Written Words를 설명하여 이해시킨다.
- Stage3는 Written Words-Signs(concept)를 Spoken Words와 연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완전한 통합 단계로, 독화(Lip reading)로 Spoken Words와 Written Words를 연결함으로써 연쇄적으로 Signs-concept와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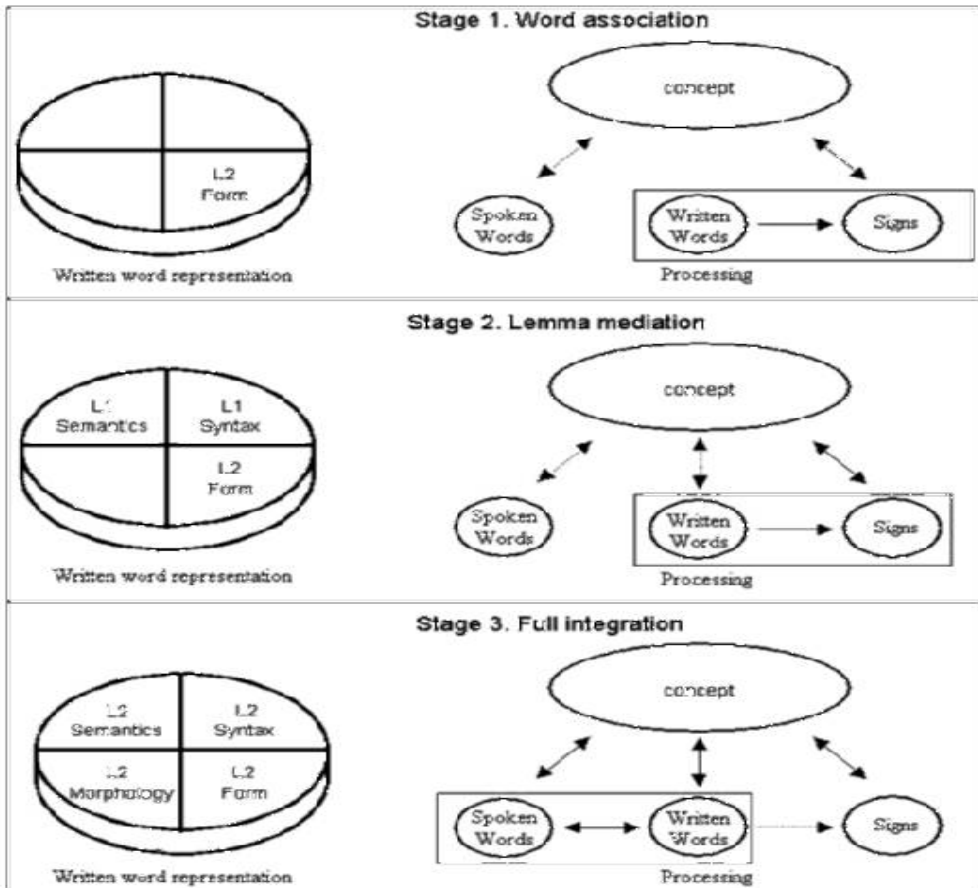


Figure 1 A model of reading vocabulary learning (Hermans et al., 2008).

3.2.3.3. 결과

- 수화와 글말에 대한 나이, 비언어 지능, STN 점수 등이 제외되었을 때 SLN과 독일 글말의 어휘 점수는 긍정적으로 상호관계가 성립한다. 수화의 어휘 지식이 읽기 어휘력의 습득을 촉진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 SLN의 이야기 이해 능력과 독일 글말의 이야기 이해 능력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뉴질랜드

○ 1880년대~1970년대 중반

① 밀란(Milan) 국제회의(1880)

- 정부를 배경으로 한 뉴질랜드 교육자들은 이상적이면서 새로운 구화주의자(oralist)들의 교육방법을 선택하였다.
- 뉴질랜드 교육 커리큘럼도 같은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② Collins-Ahlgren(1989)

- 1880년대의 지배적인 태도는 신생 뉴질랜드 수화를 포함하고 있는 모어에 대하여 영어에 기반한 구화주의(oralism)였다.
- Gerrit Van Asch
 - ④ 구화적 방법론을 가진 대표적 교육자로서, 구화주의 프로그램을 구두의 표현(articulation)의 수단으로 의사소통의 방법과 구화적 교수법의 기준을 매치시킨 인물이다.
 - ⑤ Christchurch에서 농여름학교를 설립하였다(수화 사용 금지).

③ 구화주의 교육의 결과

- 농학생들이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 지난 세기 우세했던 구화주의 시스템 아래의 학교 교육은 기계적인 발음 훈련과 기계적인 방식에 학습의 중점을 둠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받지 못한 채로 학교를 떠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므로 현재 성인 농인들 사회에서 학문적으로 큰 성과가 있는 사람은 예외로 간주되고 있다(McKee, 2001).

○ 1970년대 중후반

① 1975년

- 한 교사가 55개의 사인(sign)을 오클랜드 농사회 속에서 발견하였다. 이러한 농인의 '저층(underground)' 언어는 청인 교수자들에게 알려지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 오스트레일리아 교사와 함께 ASE(Australasian Signed Language)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 ④ 농인들이 언어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다는 믿음에서 출발
 - ⑤ 영어에 근거한 사인 시스템
 - ⑥ 접사 사용

② 1979년

- 1880년 이후 첫 컨세션 개최로 농인 언어의 매뉴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선언하였다.
- ASE에 대한 교수자들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다. ASE 시스템은 농인들의 저층 언어, 즉 진정한 의미의 농인들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영성하고 시간 낭비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 ASE로 얻어낸 결과: ‘구화주의’를 깨뜨리고 뉴질랜드 수화를 공개적 관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1980년대 이후
 - 뉴질랜드 농사회의 언어로서 NZSL를 공식 인정하였다(1985).
 - KDEC(Kelston Deaf Education Centre)에 기반한 오클랜드, Van Asch 대학에서 NZSL와 영어를 포함한 이중언어/이중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1995 이후).
 - 뉴질랜드 농인 교육의 현 실정
 - ㉔ NZSL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인 교수자, 청인 교수자들이 만든 교육 커리큘럼 등이 농교육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 ㉕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농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모어 화자들(native signer)과 분리되었다.
 - ㉖ 농학교 학생들의 교수자의 경우, 수화 실력이 매우 다양한 실정이다.
 - 성인 농인을 위한, 성인 농인에 의한 특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강한 요청이 존재하였다.
 - AUT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숙련된 ESOL 교수자들이 영어를 제2언어로서 교수, 뉴질랜드 수화에 소개되었다.

3.4. 일본

3.4.1. 일본 농학교의 발달과 현황

- 1879년 교토부립학교인 맹아원에서 일본 청각장애 학생³⁾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이 시작되었다.
 - 재정난으로 인하여 교토시립학교로 이관되었다.
 - 1925년 교토시립맹학교와 교토시립농아학교로 분리되었다.
 - 1931년 교토부립학교로 재이관되었다.
- 도쿄 낙선회훈맹아원 설립(1884)
 - 외국 선교사와 개화적 지식인이 낙선회(樂善會)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맹인을 교육하기 위한 훈맹소(訓盲所)를 설립하였다.
 - 1884년 낙선회훈맹아원으로 교명을 개칭한 이후 청각장애 학생 교육을 시작하였다.

3) 일본 자료에서는 ‘농인’과 ‘청각장애인/청각장애자’의 용어를 혼용하여 쓰기로 한다. 되도록 직역에 가깝게 해석하기 위하여 ‘聴覚障害’는 모두 ‘청각장애’로 번역하였다.

- 재정난으로 낙선희훈맹아원이 1885년 문부성(文部省) 직할 도쿄맹아학교가 되었다.
- 1912년 시점에 청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수는 37개교에 이르렀다. 대부분은 사립학교로서 메이지 시대의 청각장애 교육은 주로 사립학교가 담당하였다.
- 당시 일본 맹아학교의 특징
 - 맹교육과 농교육이 한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 맹.농 교육방법의 차이로 맹.농교육이 분리되었다. 1909년 도쿄맹학교가 설립되어 나갔고, 1910년에는 도쿄맹아학교를 폐교하고 대신 도쿄농아학교가 설립되었다.
 - 1919년에 개최된 제1회 전국맹아학교장회의의 결의와 장애인단체에 의한 맹아학교령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 1923년 맹학교 및 농아학교령이 공포되어 법령상의 학교로 인정받게 되었다.
- 일본 청각장애 학교의 전개 상황

일본 청각장애 학교와 학생 수 증가 추이

연 도	1925년	1930년	1948년	1953년	1972년	2001년 이후
학교수	40	60	64	101	109	100
학생 수	3,000 이상	8,400		2만 이상		6,500~6,800

- 청각장애 관련 학교 상황(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

		유치부	소학부	중학부	고등부
2008년도 (문부과학성 자료)	농학교(99개교)	1264명	2175명	1276명	1712명
	난청학급(706개 학급)		901명	328명	
	통급		1616명	299명	

- 난청학급과 통급은 일본 교육편제상 ‘특별지원학급’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학급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학급 중 청각장애 학생만을 위한 학급이 아직 없다.

3.4.2. 일본 농학생의 학력 지체와 읽기 문제 연구

- 일본에서는 청각장애 학생의 학력 지체에 대한 보고가 지속적으로 다수 나오고 있다(村上芳則, 長南浩人, 2009).
- 일본 전역의 농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없고 특정 농학교나 몇몇 교원의 '임상적인 감상을 기술한' 연구(예를 들어 岩品, 松永, 2008)가 있다.
- 읽기 능력은 학업성취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청각장애 학생의 읽기 능력의 지체는 심각하다(井原.草薙.都築, 1982).
- 中野(1990)와 四日市(2007) 등은 현재 청각장애 학생의 학력이 청인 학생에 비해 지체되어 있고, 개인차가 크며, 연령 증가에 따른 발달이 완만하게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정체되어 청인 학생들과의 학력차가 커진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청각장애 학생의 학력 정체현상을 '9세의 벽'(萩原, 1963)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 추론 등 논리적 사고능력을 학력과 관련 있는 중요한 개념의 하나로 보고 있다. 3학년이 넘으면 교재는 점차 텍스트 정보에 관한 지식이나 그것을 사용해서 추론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추상적 내용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사고능력의 부족이 3, 4학년에서 학력이 지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추론능력의 부족은 일본의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독서력 진단 검사를 실시한 연구에서 논의한 바 있다(長南.澤, 2007).
- 청각장애 학생의 독서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中野(1971), 我妻(1983), 今井(1993)의 논문은 농학교 초.중.고등부 청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로, 청각장애 학생의 독서력 성적의 신장은 초등부 3학년 시점부터 제자리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 中村(1996)은 농학교 초등부와 중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력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적을 讀字力 테스트, 어휘력 테스트, 문법력 테스트, 독해.감상력 테스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적이 가장 높은 영역은 讀字力 테스트이고 문법력 테스트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長南.澤(2007)은 농학교 초.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력 진단 검사 고학년용을 실시하여 총점, 讀字검사, 어휘검사, 문법검사, 독해.감상 검사 등의 성적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총점 분석에서 청각장애 학생은 초등학교 청인 아동보다 독서력이 떨어지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학년에 적절한 성적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3.4.3. 일본 성인 농인의 문해교육 현황

- 일본에서 전국 단위의 농인 단체로는 ‘전일본농아연맹(全日本聾啞聯盟)’이 있다. ‘전일본농아연맹(이하 약칭 ‘전일농연’을 사용함)’ 산하에는 47개의 농인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그 중 제일 큰 산하단체로 ‘도쿄도청각장애자연맹(東京都聴覚障害者聯盟)’을 들 수 있다.
- ‘도쿄도청각장애자연맹’은 ‘도쿄도교육위원회(東京都教育委員会)’의 위탁을 받아 청각장애인을 위해 교양, 문장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도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같은 기관이다. ‘도쿄도청각장애자연맹 2013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청각장애자의 문화교양·교육향상에 관한 사업’ 항목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청각장애자 교양 강좌(도교육위원회: 청년부·고령부·여성부)
 - ㉡ 청각장애자 문장교실(도교육위원회: 사무국)
 - ㉢ 청각장애자 컴퓨터 강좌(사무국)
 - ㉣ 문화강좌(사업부)

○ 2013~2014년도 교양강좌 프로그램 안내문

[오후반] 13:30~16:00 ※접수는 13:00부터입니다.		[저녁반] 19:00~21:00 ※ 접수는 18:30부터입니다.	
일시	2013년 11월 15일 (금)		2013년 11월 28일 (목)
테마	안심, 안전한 여행을 즐기자! 여행은 인생을 풍부하게 해주지만, 모르는 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다소 불안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여행을 다루는 여행사 직원에게 이야기를 듣고, 안심·안전한 여행을 즐기기 위한 기초 지식 등을 배웁니다.		고독사 방지 - 지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고독사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의 참가가 어려운 청각장애자에게는 노소에 관계없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가능한 일을 배웁니다.
강사	片桐 幸一 씨 (주식회사 H·I·S 장벽제거 여행)		結城 康博 씨 (슈쿠토쿠(淑徳)대학 교원)
장소	도쿄도장애자복지회관 교실 ※ 지도는 뒷면입니다.		
일시	2014년 1월 10일 (금)		2014년 1월 16일 (목)
테마	가족에게 만일의 사고가 있다면 - 구급예의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면역력 UP - 질병에 지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3. 외국의 농인 문해교육 현황 조사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사태가 되었을 경우 구급대가 알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지,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어떤 준비를 해 두어야 하는지, 만일의 경우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는 등의 지식을 배웁니다.	면역학 전문가로부터 면역력에 대한 기초 지식, 식사방법과 생활습관을 약간 고쳐 간단하게 면역력을 높이는 요령 등을 배우고,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보내기 위한 지식을 배웁니다.
강사	袖山 みゆき 씨 (도쿄소방서 방재부 방재안전과 방재복지계장)	奥村 康 씨 (준텐도(順天堂)대학 면역학 특임교수)
장소	도쿄도장애자복지회관 교실 ※ 지도는 뒷면입니다.	
일시	2014년 2월 7일 (금)	2014년 2월 20일 (목)
테마	간단하게 면역력 UP - 질병에 지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 1월 [저녁반]과 같은 내용입니다.	수화만담과 잡다한 이야기 - 수화에 의한 표현의 가능성 수화만담에서는 고전만담에서 현재 수화에 없는 단어를 표현할 때, 또 재미있고 우스운 이야기를 수화로 전달하기 위해 수화표현 공부를 합니다. 수화만담을 실제로 보고, 그 고안에 대해 앞으로 수화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의 힌트를 배웁니다.
강사	奥村 康 씨 (준텐도(順天堂)대학 면역학 특임교수)	飯田 勝巳 씨 (예명: 大喰亭満腹 수화만담연구회「소초회(笑草会)」대표)
장소	미카타(三鷹)역전 커뮤니티센터 3층 회의실 A·B ※ 지도는 뒷면입니다.	

○ 2013~2014년도 문장교실 프로그램 안내문

저녁반(전기)				
회	수요일 18:30~21:00			
	월일	주제	장소	강사
1	5/8	개회식·말의 사용법	도쿄도장애자복지회관	倉方
2	5/15	계절 인사·편지글		倉方
3	5/22	메일 활용과 예문		越智
4	5/29	경어와 비즈니스 용어		倉方
5	6/5	한자를 배우자		野沢
6	6/12	그림과 수화로 배우는 문법		早瀬

7	6/19	현대용어·유행어		野沢
8	6/26	ICT 용어·컴퓨터 지식		越智
9	7/3	하이쿠·센류(俳句·川柳) 즐기기		野沢
10	7/10	쉬운 문법		早瀬
11	7/17	사용되는 문법		早瀬
12	7/24	이로하카드(いろはカルタ)의 속담		越智
13	7/31	의료·의약 용어		越智
14	8/7	수화로 배우는 이야기~격언&명문		早瀬
15	8/21	말을 사용한 놀이		越智
16	8/28	새로운 수화①		倉方
17	9/4	새로운 수화②		倉方
18	9/11	주의할 말·폐회식		野沢

오후반(후기)				
회	수요일 13:30~16:00			
	월일	주제	장소	강사
1	9/11	개강식·말의 사용법	도쿄도장애인복지회관	倉方
2	9/18	수화에서 문장으로		倉方
3	9/25	계절 인사·편지글		倉方
4	10/2	한자 읽는 법		野沢
5	10/9	그림과 수화로 배우는 문법		早瀬
6	10/16	말을 사용한 놀이		越智
7	10/23	동음이의어		野沢
8	10/30	주의할 말		倉方
9	11/6	의료·의약 용어		越智
10	11/13	현대용어·유행어		倉方
11	11/20	하이쿠·센류(俳句·川柳) 즐기기		野沢
12	11/27	쉬운 문법		早瀬
13	12/4	사용되는 문법		早瀬
14	12/11	경어의 사용법		倉方
15	12/18	수화로 배우는 이야기~격언&명문		早瀬
16	1/8	이로하카드의 속담		越智
17	1/15	새로운 수화①		倉方
18	1/22	새로운 수화②·폐회식		倉方

3. 외국의 농인 문해교육 현황 조사

- 문장 교육은 30년 이상 전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해 무료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1회, 2시간 반 수업이 5개월간 지속되며, 수강자는 관심 있는 테마의 수업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은 조사·조동사의 사용법과 문법을 비롯하여 편지나 메일 쓰는 법, 의료용어, 시사용어의 해설 등 다양하다.

4. 국내 농인의 문해교육 조사 현황

이 장에서는 국내의 농인 관련 각 기관에서 문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고, 문해교육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농인 문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4.1. 문해교육 기관의 교육 현황

현재 한국에서 농학교 등 농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제외하면 농인의 문해력과 관련된 교육은 주로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시도협회 및 지부, 수화통역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역협회에서 이루어지는 농인 대상 문해력 관련 교육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4.1.1. 조사 방법

국내에서 현재 농인의 문해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시도협회 및 지부, 수화통역센터, 농학교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서 농학교와 같은 전문 교육 기관은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농학교는 전국적으로도 그 수가 적을 뿐 아니라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는 지역적으로 차별이 없고, 신분적으로 제한이 없는 농인을 위한 교육기관을 선정하였다. 이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농인 문해교육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농인 대상 문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으로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시도협회 및 지부, 수화통역센터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한국농아인협회 산하에 있는 185개의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답변을 받는 방법을 취하였다.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에 각 기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관련한 붙임 자료를 보냈다. 그 붙임 자료는 농인 문해교육과 관련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농인 문해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면서 심층 면담 기관 선정의 기초 자료로 쓰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이름과 사업기간에 대한 정보, 직접적인 심층 면담 조사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구성 및 책임자에 관련한 정보, 학습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교육 대상 정보, 농인 문해력 교육에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 교재 정보, 심층 면담의 조사 대상자가 될

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연구

수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책임자와 별개로 직접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수자에 대한 정보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짜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커리큘럼과 수업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을 요청한 조사표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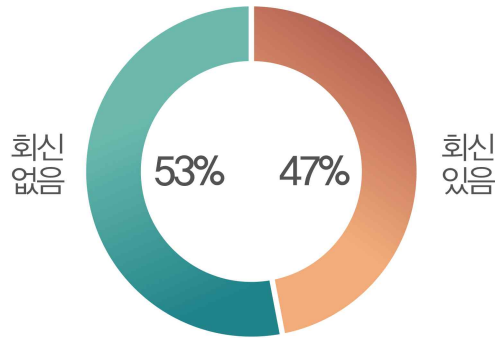
전국 수화통역센터 문해교육 현황 조사표							
[작성자: 연락처:]							
기관명	사업기간	책임 담당자	교육 대상	교재 현황	교수자 현황	커리큘럼	수행프로그램 관련 수업자료
							① 강의안(수업지도안): O, X ② 시험지 및 제출 답안: O, X
[작성 참고사항] 1. 사업 기간: (예시) 2013년 3월 1일 ~ 2013년 5월 31일까지 / 주 3회, 6시간 (월, 수, 금/ 각 일 2시간 씩) 2. 책임담당자: 프로그램 담당자 성함 기재 3. 교육 대상: (예시) ① 총 00명 ② 반의 구별 기준(성인/학생 농인 여부, 수화 사용 능력 여부) ③ 개설 반의 수 ④ 각 4. 교재 현황: 각 반별 교재를 '저자(출판년도), 책제목'순으로 제시. 출판된 책이 아닐 시 교재 구입 가능한 곳 연락처 제시 5. 교수자 현황: ① 교수자 총 인원 수 ② 각 반 별 교수자의 현황(이름, 전공, 수화 가능 여부, 농인/청인 구별) 6. 커리큘럼: 당해 기관에 제출된 강의 계획서 별도 첨부 7. 수행프로그램 관련 수업자료: 자료의 유무 체크 후 실질 자료는 별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1> 현황 조사표 견본

위 <그림 1>과 같이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시도협회 및 지부, 수화통역센터에 문해교육 현황 조사표를 보내고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답변을 받았다. 답변을 받은 기관들의 자료를 모두 취합하였다. 그리고 취합된 자료를 통계화하여 전국의 농아인협회 지부 및 수화통역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인 문해교육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4.1.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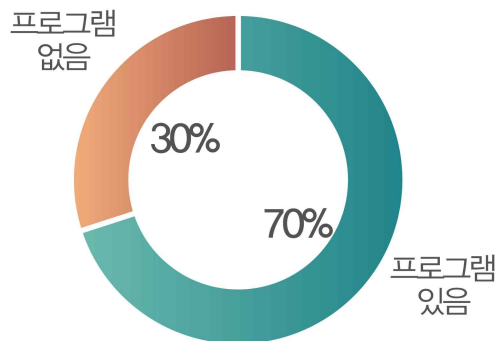
<그림 1>의 조사표를 통해 얻은 회신 유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으로 삼아 협조 요청을 한 기관은 총 185곳의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시도협회 및 지부, 수화통역센터였다. 이 중에서 답변이 온 곳은 87곳이다. 이는 전체 기관의 47.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즉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 실태 파악에 대하여서는 전국의 절반 가까운 기관을 대상으로 삼아 본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회신 유무

<그림 2>의 결과에서처럼 본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관이 본 조사에 응한 기관보다 많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관은 98개 기관이다. 이런 무응답 기관은 문해력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무응답 기관은 문해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즉 농인을 위한 문해력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기관일수록 별도의 회신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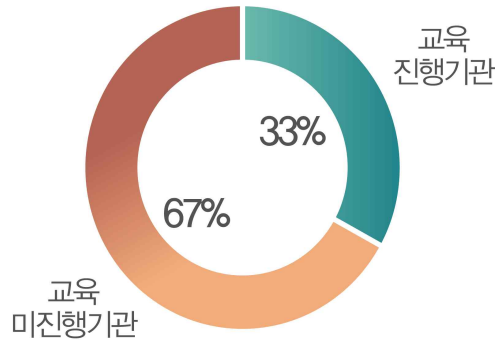
다음 조사 결과는 응답기관(87개 기관)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유무에 대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87개의 응답기관 중 농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한 번이라도 진행된 적이 있었던 곳은 61곳이다. 이는 7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농인의 문해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은 기관은 26곳으로 30%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응답기관 중 문해교육 프로그램 유무

<그림 3>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조사의 경우 응답기관의 수치(87개 기관,

47%)가 총 조사 대상 기관(185개 기관)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였다. 따라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에 대한 비율을 총 기관의 수에 대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프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전체 조사 대상 기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유무

<그림 4>에서 보여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문해교육 프로그램 진행 비율에 대하여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약 1/3 수준에 그치는 33%만이 확실하게 문해교육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파악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기관 중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목록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까지 몇 개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더하여 표로 나타냈다. 그 표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문해교육 프로그램 기관 정보

지역	시/군	기관명 (총 61개)	프로그램 수 (총 131개)
강원	고성	강원농아인협회 고성지부	1
강원	양양	강원농아인협회 양양지부	1
강원	철원	강원농아인협회 철원지부	1
강원	홍천	강원농아인협회 홍천지부	1
강원	횡성	강원농아인협회 횡성지부	1
경북	고령	경북농아인협회 고령지부	3
경북	구미	경북농아인협회 구미지부	3

4. 국내 농인의 문해교육 조사 현황

경북	군위	경북농아인협회 군위지부	1
경북	김천	경북농아인협회 김천지부	1
경북	성주	경북농아인협회 성주지부	2
경북	안동	경북농아인협회 안동지부	3
경북	영덕	경북농아인협회 영덕지부	1
경북	영양	경북농아인협회 영양지부	1
경북	의성	경북농아인협회 의성지부	1
경북	청도	경북농아인협회 청도지부	5
경북	청송	경북농아인협회 청송지부	1
경남	거창	경북농아인협회 거창지부	6
경남	밀양	경남농아인협회 밀양지부	1
경남	하동	경남농아인협회 하동지부	1
부산	부산	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	1
경기	고양	경기농아인협회 고양지부	1
경기	김포	경기농아인협회 김포지부	2
경기	남양주	경기농아인협회 남양주지부	1
경기	부천	경기농아인협회 부천지부	1
경기	수원	수원시 농아노인복지센터	2
경기	안성	경기농아인협회 안성지부	2
경기	안양	경기농아인협회 안양지부	1
경기	의정부	경기농아인협회 의정부지부	4
경기	이천	경기농아인협회 이천지부	1
경기	파주	경기농아인협회 파주지부	1
인천	인천	한국농아인협회 인천광역시협회	5
충북	괴산	충북농아인협회 괴산지부	1
충북	단양	충북농아인협회 단양지부	4
충북	보은	충북농아인협회 보은지부	1
충북	제천	충북농아인협회 제천지부	2
충북	진천	충북농아인협회 진천지부	1
충북	청주	충북농아인협회 청주지부	1
충북	충주	충북농아인협회 충주지부	1
대전	대전	한국농아인협회 대전광역시협회	1
세종	세종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	1
전북	군산	전북농아인협회 군산지부	7
전북	김제	전북농아인협회 김제지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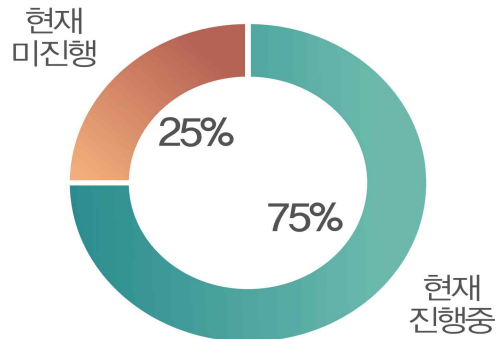
전북	부안	전북농아인협회 부안지부	4
전북	완주	전북농아인협회 완주지부	6
전북	전주	전북농아인협회 전주지부	4
전남	강진	전남농아인협회 강진지부	1
전남	고흥	전남농아인협회 고흥지부	1
전남	광양	전남농아인협회 광양지부	1
전남	나주	전남농아인협회 나주지부	1
전남	목포	전남농아인협회 목포지부	1
전남	무안	전남농아인협회 무안지부	4
전남	보성	전남농아인협회 보성지부	4
전남	순천	전남농아인협회 순천지부	1
전남	신안	전남농아인협회 신안지부	1
전남	여수	전남농아인협회 여수지부	2
전남	영광	전남농아인협회 영광지부	6
전남	완도	전남농아인협회 완도지부	1
전남	장흥	전남농아인협회 장흥지부	6
전남	진도	전남농아인협회 진도지부	1
전남	해남	전남농아인협회 해남지부	3
제주	서귀포	제주농아인협회 서귀포지부	3

위 <표 2>를 보면 문해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는 1개에 그치고 있다. 프로그램이 1개인 기관은 36개 기관으로 전체 61개 기관 중 약 59%에 해당한다. 그리고 나머지 25개 기관 중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곳(5개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은 8곳이다. 이는 나머지 기관(25개 기관)을 전체로 보았을 때 32%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점을 보아 두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한 곳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은 다양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 준다.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수에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농인들이 받는 문해교육 혜택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다음 조사 결과는 2013년 현재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유무에 대한 결과이다. 2013년 현재 문해교육이 진행 중인 곳은 46개 기관으로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적 있는 총 61개 기관 중 46개 기관이 현재에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 <그림 5>의 그래프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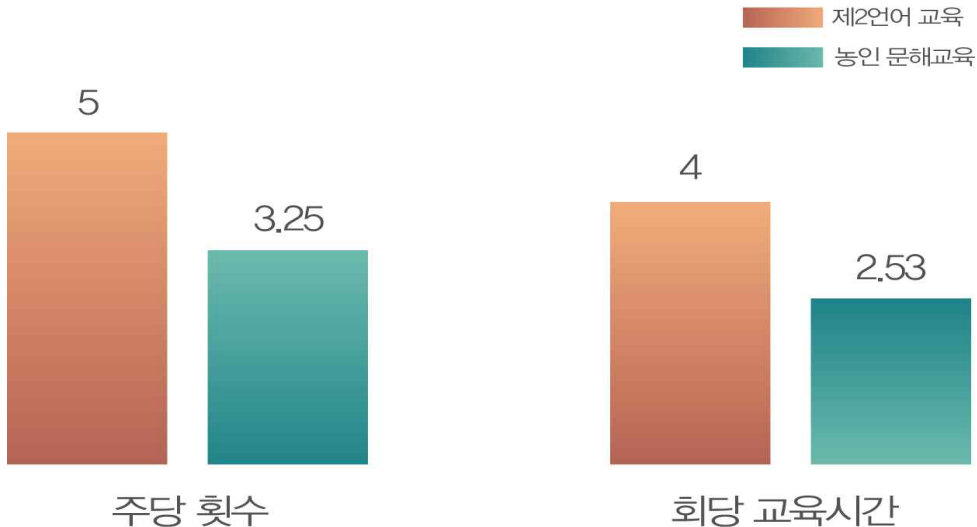
<그림 5> 응답 기관 중 현재
문해교육 진행 여부

<그림 5>에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과거에 진행되었다가 현재까지 지속되지 못한 경우는 15개 기관으로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5%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져 오거나 2013년 현재 신설되어 처음으로 문해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과거에 비해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표 2>와 관련하여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총 131개의 프로그램이 총 61개의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한 기관당 평균 프로그램 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육 기관 1곳당 시행한 교육프로그램의 수는 평균 2.14개였다. 하지만 이는 앞서 <표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평균 교육프로그램 수일 뿐이다. 상세히 분석해 보면 평균 교육 프로그램 수인 2.14개에 못 미치는 1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기관은 총 36곳으로, 비율로 따지면 약 59%에 해당한다. 평균 프로그램 수 2.14개와 가장 유사한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5곳으로 약 8%에 불과하다. 또한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20곳으로 약 33%를 차지한다.

따라서 평균 프로그램 수보다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가 양분되며, 평균 프로그램 수로 여러 곳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많게는 7개의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따라서 소수의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문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이 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각 기관에서 다양한 문해교육이 시도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의 주당 평균 횟수와 1회당 평균 교육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2 언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것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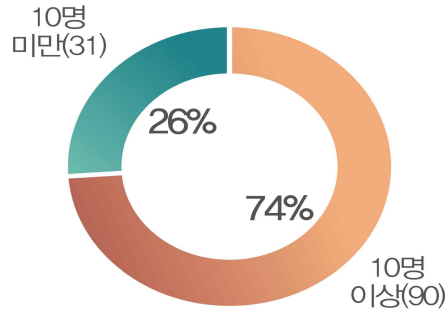
<그림 6> 문해교육 횟수 및 시간

<그림 6>을 보면 각 기관의 프로그램은 주당 평균 3.25회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의 프로그램은 1회 교육에 평균 2.53시간, 분으로 환산하면 110분의 수업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대학 기관에서의 제2 언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횟수와 시간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제2 언어로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보통 주당 5일 수업을 하며, 회당 4시간 교육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기관과 문해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학습자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총 몇 명의 학습자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 구성이 10명 이상인지 아닌지, 학습자는 수맹자와 수화자가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학습자 관련 정보를 정리해볼 것이다.

먼저 131개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학습자는 모두 성인 농인 총 1602명이었다. 이는 학습자가 한 프로그램에 약 12.2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제2 언어 교육을 할 때 이상적으로 한 학급을 구성하는 학습자 수는 10명이다. 이 수준에 비추어 보면 12.2명은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기관별로 보면 편차가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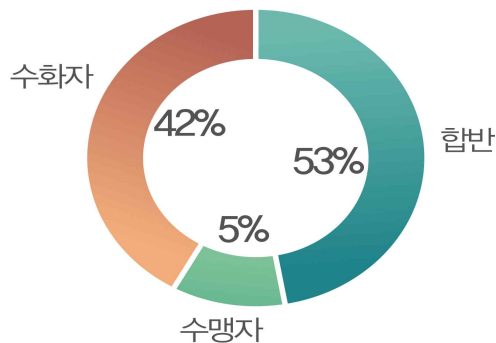
다음 <그림 7>은 이상적인 학습자 수를 10명으로 규정하고 그 이상과 이하로 한 프로그램당 참여 인원수를 분류해 본 결과이다.



<그림 7> 프로그램당 참여 인원 수

<그림 7>은 본 조사에 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총 131개이지만 학습자의 인원 정보에 미기재된 프로그램 10개를 제외한 결과이다. <그림 7>에서는 학습자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90개 프로그램으로 74%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미만인 경우는 31개의 프로그램으로 2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의 수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급 구성을 학습자와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8>과 같다. 이 분류는 학급 구성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수화자만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수맹자끼리 구성된 학급인지, 수화자와 수맹자의 합반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핀 결과이다. 여기에서 수화는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며 수맹자는 수화를 모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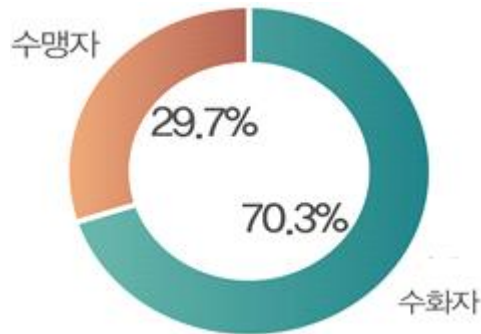


<그림 8> 교실 구성

<그림 8>에 의하면 수화를 할 수 있는 수화자만으로 구성된 반은 전체 42%이다.

그리고 수맹자만으로 구성된 반은 5%이며, 수화가능자와 수화자가 섞여 구성된 반은 53%이다.

또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를 수화 가능 여부에 따라서 수화자와 수맹자로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농인 학습자의 수화 가능 여부

<그림 9>는 농인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9>를 보면 수화 가능자는 1126명(70.3%)이고, 수맹자는 476명(29.7%)이다. 다른 제2 언어 교육과 다르게 자기 모어인 수화를 모르는 학습자의 수가 476명으로 29.7%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맹자들을 위한 문해교육으로서 수화 교육 프로그램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수맹자들을 고려한 것으로 학습자의 요구(needs)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당연한 개발 방향이다.

또한 합반이 가장 많았지만 두드러진 수치는 아니다. 이와 관련한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 하나는 수맹자와 수화자가 함께 교육받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즉, 시간과 인원 등의 문제 때문에 학습자의 수화 능력에 따른 분반보다는 수화자와 수맹자의 합반이 가장 쉽다는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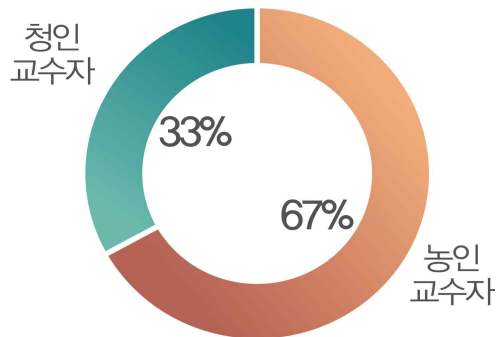
반면 다른 하나는 수화자와 수맹자의 합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는 4.2.절 전문가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해 파악한 의견이다. 이들에 의하면 수화자를 통해 수맹자는 자극을 받아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수맹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화자의 경우에는 보조교사 역할로 활용 가능하며, 이러한 역할분담으로 인해 한국어 문해력이 깊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의 교실 상황이 수맹자와 수화자의 합반이 많다는 점과 합반의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맹자와 수화자 모두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화와 한국어 문해력 향상을 위한 농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교실 상황에 적절한 교재 및 교수법도 연구하여 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학습자와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었다. 하지만 이는 학습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이 사항이다. 하나는 인천에서 중국인과 성인 농인을 함께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안양에서 안양 교도소 농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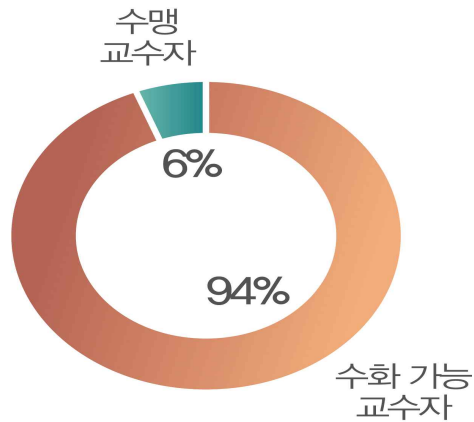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농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제 교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에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131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자는 총 144명으로 파악되었다.

총 교수자 중에서 농인 교수자가 97명(67%)이고, 청인 교수자는 47명(33%)이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교수자의 농인 여부

또한 교수자를 수화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수화 가능 교수자는 136명(94%), 수맹 교수자는 8명(6%)로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보이면 아래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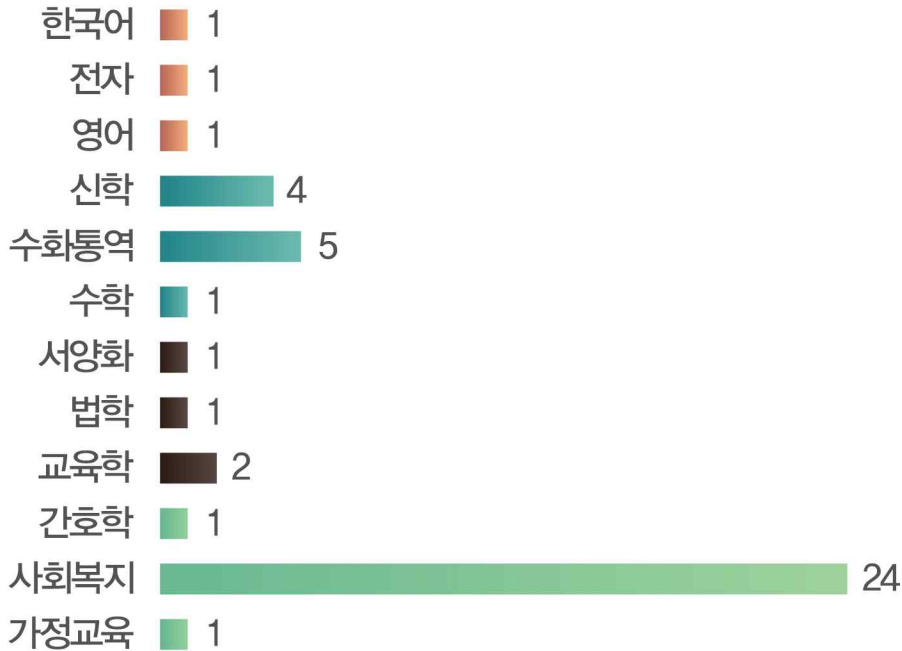
<그림 11> 교수자의 수화 가능 여부

<그림 11>의 결과는 수화 가능 교수자가 94%의 절대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농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목표언어를 이해시킬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농인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6%의 수맹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수화 가능자가 비록 94%라고는 하나 수화 능숙도 및 자연수화 구사 가능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교수자들의 전공을 정리·분석하였다. 먼저 144명의 교수자 중 전공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총 43명이다. 이 결과로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수자들의 학력을 짐작할 수 있다. 전공이 무엇이나고 묻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것은 대학 교육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짙다.

정규 교육을 넘어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정도의 사람이라면 한국어를 통해 일상생활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전공이 없다고 응답하거나 전공에 관련해서 응답이 없는 경우 교수자로서의 적절한 실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교수자들 중 전공이 있다고 답변해온 사람(43명)들의 전공 분야를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그림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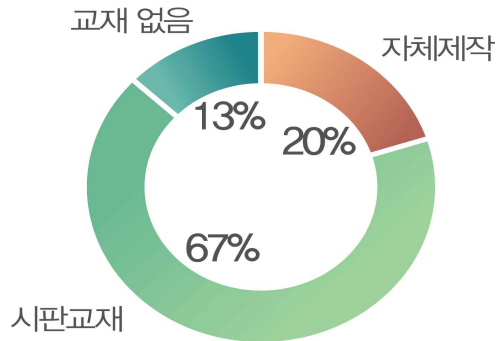


<그림 12> 교수자의 전공

<그림 12>를 보면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교수자는 1명, 수화통역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자는 5명임을 알 수 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두 언어의 전공자는 총 6명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농인에게 꼭 필요한 두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인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한국어와 수화 전공자를 중심으로 한 교수자 선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전공자들을 농인을 위한 한국어 교수자로 잘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져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서 쓰이고 있는 교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재 사용 비율은 크게 교재를 사용하는 곳과 교재가 없는 곳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교재를 사용하는 곳은 총 56곳으로 87%에 해당하고, 교재를 사용하지 않은 곳은 총 8곳으로 13%에 해당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교재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13%를 차지하여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러한 점들은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 교재를 선정할 때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재 사용 비율을 정리해 놓은 그래프는 아래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교재 사용 현황

<그림 13>을 보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곳 중 시판 교재는 67%이고 자체 제작 교재인 경우는 20%로 나타난다. 시판 교재가 7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교재의 목록을 살펴보면 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가 대부분이다(<표 3> 참조). 이러한 교재들은 성인 농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비효율적인 교육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아예 교재가 없는 곳도 13%인데 이 역시 농인의 특성에 맞는 교재를 찾기 어려웠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 곳이 전체의 20%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는 상대적으로 교재가 없거나 시판 교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에도 농인의 특성이나 수화 언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들어진 교재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확신을 갖기 위해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목록을 작성해 보았다. 응답 기관 중에서 교재가 겹치는 것은 하나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한 표는 아래 <표 3>이다.

<표 3> 사용 교재 현황

교재 이름	교재 종류
The칩고, 재미있는 수화	수화교재
농아인을 위한 한국수어1	수화교재
농아인을 위한 한국수어2	수화교재
사랑의 배움터	수화교재
청각장애 언어	수화교재
한국수화	수화교재

4. 국내 농인의 문해교육 조사 현황

한국수화첫걸음	수화교재
함께 배우는 세상	수화교재
4세 한글	문해력 교재
6세 한글	문해력 교재
ㄱㄴㄷ 한글 가나다국어	문해력 교재
가나다한글교재	문해력 교재
국어	문해력 교재
국어 입학 준비	문해력 교재
기탄국어	문해력 교재
뉴 가나다/초급	문해력 교재
또박또박 한글쓰기	문해력 교재
또박또박 한글쓰기 단어 100	문해력 교재
받아쓰기	문해력 교재
생각놀이 느낌놀이	문해력 교재
생각놀이 느낌놀이 6세 한글	문해력 교재
소망의 나무	문해력 교재
수어로 배우는 한글	문해력 교재
수화랑 한글로 세상 바라보기	문해력 교재
쉽게 배우는 한국어	문해력 교재
신나는 한글 여행	문해력 교재
실용문법연습서	문해력 교재
썼다 지웠다 한글 ㄱㄴㄷ	문해력 교재
연필잡고 만4세 한글	문해력 교재
연필잡고만5세	문해력 교재
연필잡고만6세	문해력 교재
입학 준비 한글	문해력 교재
점선으로 따라 쓰는 처음 한글	문해력 교재
지능 업 만4세 한글 따라 쓰기	문해력 교재
지능 업 한글	문해력 교재
첫 한글	문해력 교재

한글	문해력 교재
한글 생각하기	문해력 교재
한글 자라기 10단계	문해력 교재
한글1단계	문해력 교재
한글2단계	문해력 교재
한글3단계	문해력 교재
한글4단계	문해력 교재
한글5단계	문해력 교재
한글교재	문해력 교재
한글단어	문해력 교재
한글 따라 쓰기	문해력 교재
한글쓰기	문해력 교재
한글은 내 친구	문해력 교재
한글자라기6단계	문해력 교재
with Talk 2.0	기타교재
기적의 계산법	기타교재
기탄수학	기타교재
놀이야! 공부야!	기타교재
동영상교재	기타교재
동화책	기타교재
디즈니 스텝스킬	기타교재
배움의 터	기타교재
상상 톡톡톡	기타교재
생각 씽씽	기타교재
소망의 터	기타교재
수학1단계	기타교재
수학2단계	기타교재
수학3단계	기타교재
수학4단계	기타교재
수학5단계	기타교재

썼다 지웠다 숫자123	기타교재
여러 종류의 교재 사용	기타교재
지능 업 만4세	기타교재
지혜의 터	기타교재

위 <표 3>에서 정리한 교재 목록을 보면, 수화 교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이다. 문해력 교재는 청인 유아가 보는 한글 교육용 교재이고, 기타 교재는 청인 유아가 공부하는 숫자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재 사용 실태는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가 모두 성인 농인이라는 사실과 어울리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교재들은 그 내용이 성인 농인에게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성인 농인이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와 주제로 이루어진 교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4.2. 관련전문가 심층 면담

이 부분에서는 4.1.절을 보완한 질적인 연구를 위하여 문해교육 담당자와 교수자를 만나 심층 면담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인들의 문해교육을 포함하여 청인과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지와 이를 진행해오면서 불편했던 점을 정리하여 설명할 것이다. 그런 다음 농인의 문해교육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여러 측면에서의 의견을 살펴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면담을 위한 기관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였다. 우선 학교와 같은 전문 교육기관은 제외하였다. 전문 교육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심층 면담 대상 기관으로 삼은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를 알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먼저 농인을 위해 힘써온 지역 기관 이외에도 기업 기관에서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대상으로 삼은 기업은 보통의 기업에 비하여 농인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이면서 농인만으로 작업라인(셀)을 운영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주)개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다. 이곳에서 농인이 내는 성과를 보고 꾸준히 농인을 채용하는 데에는 농인을 위한 특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특별한 환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하여 심층 면담 조사 대상 기관으로 삼았다.

또한 농인 문해교육 조사서를 작성한 기관 87곳 중 3년 이상 꾸준히 농인의 문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인의 문해교육에 대한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판단한 곳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하였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기관은 안동시 수화통역센터와 완주군 수화통역센터 두 곳이다. 심층 면담 조사는 총 3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심층 면담 조사 현황

	조사 일시	조사 기관	조사자	피조사자
1차 심층 면담	2013.10.15.화	(주)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윤석민 서광진 이현숙	A(농인, 셀장) 백형렬(청인, 제조담당자) 최선민(청인, 수화통역사) 김정현(청인, 생산지원팀장)
2차 심층 면담	2013.11.25.월	안동시 수화통역센터	고아라 최화니	정순희 (청인, 문해교육 담당자) 황우석 (농인, 문해교육 교수자)
3차 심층 면담	2013.11.29.금	완주군 수화통역센터	고아라 최화니 이현숙	김현희 (농인, 문해교육 교수자) 정은혜 (청인, 문해교육 담당자)

심층 면담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시행되었다. 가장 먼저 심층 면담을 통해 꼭 알고자 하는 바를 정리하여 질문지를 만들었다. 그 다음은 만들어진 질문지를 기관 방문 전에 피조사자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는 심층 면담 당일에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 심층 면담 당일에는 그 질문지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때 질문지 이외의 사항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모든 내용을 녹음 및 녹화, 전사하였다. 그리고 그 전사본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들을 본 절에서 제시할 것이다.

4.2.1. 심층 면담 질문지

심층 면담 질문지는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질문 문항들이 작성되었다. 특히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질문지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는데 기업의 경우, 채용된 농인을 대상으로 기업 채용 전 어디에서 주로 사회화 교육을 받았는지를 물었다. 이를 통해 또 다른 문해교육 기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 외에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반 청인 직원과의 소통방식을 묻는 문항과 청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겪은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질문하여 농인 입장에서 의사소통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또 현재 회사에서 농인 직원을 위한 프로

그럼들을 조사하여 그 중에 농인들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을 달리하여 청인·고용주에 대한 의견도 정리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해당 기관에 농인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그들을 채용한 이유에 관련한 질문을 하였다.

그 밖에도 농인 직원과의 주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농인과의 의사소통 중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 대해서 물었다. 또한 의사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문항을 만들었다. 이들을 통해 농인과 소통하는 청인들이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려고 하였다.

또 다른 기관인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시도협회 및 지부, 수화통역센터와 같은 사단법인 기관에 대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농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 교수자를 만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심층 면담 질문지에서는 우선 지속적으로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이유를 물어 농인 문해교육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농인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알고자 하였다.

또한 농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알기 위하여 운영하였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는 문항을 작성하였다. 또한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가 어떤 형태(수화자 반, 수맹자 반, 합반)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듣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교실 언어가 무엇인지, 교실 언어가 가지는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하여 묻는 문항을 만들어 교실에서 어떤 언어가 사용되어야 한국어 문해교육에 더 효율적일지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재와 관련한 문항도 만들었다. 4.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인을 위한 한국어 문해교육 교재 실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특히 많은 기관에서 유아용 교재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만들었다. 또한 교재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교재 선택의 이유와 교재의 장·단점을 질문하는 문항을 질문지에 배열하였다.

또한 교수자의 전공 및 한국어와 수화 실력에 관련한 기본적 소양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이와 동시에 교수자가 농인인 경우와 청인인 경우의 실례를 묻고 그 장·단점을 물어 이상적인 교수자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교수자와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물어 국가적 차원의 행정지원이나 청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여러 측면(프로그램, 학습자 구성, 교재, 교수자, 국가

적 차원의 행정 지원 등)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길 바라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끝을 맺으며 관련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해교육 관련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각 기관별 실제 심층 면담 질문지 문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 (주)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ㄱ. 농인 직원용 질문

-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안산사업소’에 입사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안산사업소’에 입사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 회사 생활을 하면서, 청인 직원과 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합니까? (수화, 한국어 구화, 한국어 글) 혹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귀사에서 청인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농인의 문해력 향상과 관련하여 사회진출에 성공한 선배로서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ㄴ. 청인 관리자용 질문

- 귀사(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안산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농인을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귀사에서는 농인 직원과의 주된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입니까? (수화, 한국어 구화, 한국어 글)
- 농인 직원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농인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책, 언어적 특성에 기반한 교육, 동기부여, 청인과의 교류, 농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
- 귀사에서 농인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농인의 문해력 향상과 관련해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2) 안동시 수화통역센터

- 귀 기관(안동시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귀 기관에서 문해교육 대상이 성인 농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인 농인으로 한정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덧붙여 최근 3년 동안 귀 기관에서 문해교육을 받은 농인 학생들의 한국어 문해력은 어느 정도인지 교육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문해교육을 하는 교실에서 선생님과 농인 학생과의 주된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입니까? (수화, 한국어 구화, 한국어 글) 만약 교실에서 수화가 주된 의사소통 방식이라면 수화실력이 한국어 문해력 발전 속도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 기관에서는 2011년에는 시중에 있는 책을 교재로 하다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 기관에서 농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의 교수자가 모두 농인이었습니다. 농인이 농인에게 한국어 및 한글을 가르치는 데 장점과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들에 무엇이 있는지 써 주십시오.
- 귀 기관은 다른 기관과 달리 한글 교육을 뛰어넘어 한국어 문법교육, 시사상식 이해 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귀 기관에서 독자적이고 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한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농인의 한국어 문해력 향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언어적 특성에 기반한 교육, 동기부여, 청인과의 교류, 농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

(3) 완주군 수화통역센터

- 귀 기관(완주군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귀 기관에서 문해교육 대상이 학생 농인에 비해 성인 농인의 비중이 높습니다. 성인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덧붙여 최근 5년 동안 귀 기관에서 문해교육을 받은 농인 학생들의 한국어 문해력은 어느 정도인지 교육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귀 기관에서는 수화 사용 가능자와 수맹자가 모두 한 반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교실 구성이 주는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화실력이 한국어 문해력 성취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 기관에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책을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모두 가르치고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불편함을 겪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농인들만을 위한 한국어 맞춤 교재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귀 기관에서 농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의 교수자가 초기에는 청인이었지만 지금은 농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농인이 농인에게 한국어 및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써 주십시오.
- 귀 기관의 농인 문해교육 교수자들이 언어학이나 언어교육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겪는 교육 도중의 불편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귀 기관은 한글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커리큘럼에 보면 한글 쓰기가 수어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글 쓰기 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한글쓰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한국어 단어 쓰기, 한국어 문장 쓰기).
- 귀 기관에서 진행되어 온 한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농인의 한국어 문해력 향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책, 언어적 특성에 기반한 교육, 동기부여, 청인과의 교류, 농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

심층 면담을 진행할 세 곳의 질문지를 (1~3)과 같이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질문지를 기초로 심층 면담하였다. 질문지에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추가 질문을 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정리된 내용 중 농인 문해 교육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 4.2.2.항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가 생각하는 농인 문해교육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는 4.2.3.항에서 상술하겠다.

4.2.2. 농인 문해교육 실태

여기에서는 세 차례의 심층 면담 결과로서 현재의 농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농인의 사회화와 농인과 청인 사이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농인 문해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교수자 현황, 교재 현황, 교육 프로그램 현황, 제도 및 행정지원 현황, 학습자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또한 청인 인식을 중심으로 하여 그 밖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리

할 것이다. 그리고 교실 상황과 같은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정리하여 현 농인 문해교육 실태에 대하여 보고할 것이다.

① 교수자

교수자에 대한 심층 면담은 기관 조사와 관련하여 교수자가 청인인지 농인인지 여부와 수화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부터 수집하였다. 그리고 교수자에게 별도의 직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추가 질문을 통해 수집된 교수자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세 곳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를 비교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심층 면담 문해교육 기관의 교수자 현황

<p>(주)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교수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인, 수맹자 ② 교수자 직업: 교육 주제와 관련 전문 분야의 사람 또는 직장 내 간부 ③ 교수자 의사소통 방식: 청인교수자의 말을 수화통역사들의 통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p>안동시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교수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인, 수화가능자 ② 교수자 직업: 안동수화통역센터 직원, 농통역사
<p>완주군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교수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09년: 청인(한국어 양성과정을 수료한 직원 → 자격미달의 다른 직원) ② 2010년 이후~2012년: 현재 교수자와 일치 • 현 교수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인, 수화 가능자 ② 교수자 직업: 완주군 수화통역센터 직원, 농통역사 ③ 목표어 실력: 농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은 자로서 초급반을 운영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자 • 교수자 배치 현황: 학생 20명 정도에 현재 강사 1명

위 <표 5>에 의하면 기업체의 경우와 수화통역센터의 경우 교수자 양상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된다. 먼저 기업체인 (주)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의 경우 청인 교수자였다. 그리고 언어 교육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 교수자가 아니었다. 이곳은 기업체이기 때문에 지속적 문해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직장 내에서 필요한 사회성을 기르는 차원에서의 교육이 특강 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특강 교수자는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직장 내부의 간부들이었다.

반면에 수화통역센터의 경우, 별도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문해교육 담당 교수자는 언어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농인 교수자라는 점이다. 이는 농인들의 삶의 방식을 잘 이해하고 학습자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제대로 교육시켜야 할 목표어의 지식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 못하다. 즉 농인 교사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모어가 아니어서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적인 특성은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자이면서도 목표언어인 한국어나 제1 언어인 수화 전공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의 직업이 공통적으로 농통역사이다. 즉 이들은 사실상 수화 실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농인임과 동시에 농통역사라는 것은 농식 수화를 구사할 줄 아는 실력의 교수자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농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 한국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자의 협업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현 실태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수화통역센터의 농통역사로 근무하는 직원이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수자가 되는 시스템에 대한 배경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안동 수화통역센터에서 농인들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수자로서 전문 교육을 받은 교수자를 초빙하고 싶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수화통역센터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자급자족하는 실정이라고 면담에 응하였다. 또한 완주군 수화통역센터에서도 전문 교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화로 의사소통하는 교실 상황에서 교수자 1명이 학습자 20명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 전문 교수자 지원이 없는 실정이라 하는 수 없이 수화통역센터 내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교수자 관련 면담 내용을 정리하고 그 상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농인들을 위한 한국어 문해교육 전문 교수자를 양성하고 그 교수자를 각 문해교육 기관에 배치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② 교재

이 부분에서는 한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기업 대상 기관을 제외하고 두 수화통역센터의 교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교재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쓰고 있는 교재의 특성과 과거의 교재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그리고 교재의 변화가 없는 경우, 프로그램별로 나누어 쓰고 있는 한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재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한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두 곳 수화 센터의 교재 현황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안동시와 완주군 수화통역센터의 사용 교재 현황

<p style="text-align: center;">안동시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재: 외국인 대상의 초급 문법교육서(초등학생 수준) ② 문제점: 농인의 상황에 잘 맞지 않음 • 2012~2013년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재: 여러 교재를 조합하여 자체 제작. 주로 동화책 복사본을 사용 ② 특이점: 그동안 책을 접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성인 농인임에도 불구하고 동화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데 불만이 없음 ③ 주안점: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농인들이 특히 궁금해 하는 단어 위주로 교재 구성
<p style="text-align: center;">완주군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반 교재: 연필 잡고 만5세 한글, 삼성출판사 • 중급반 교재: 연필 잡고 만6세 한글, 삼성출판사 • 부교재: 글씨 연습을 위한 공책, 스티커북, 단어카드, 단어 게임, 신체 관련 포스터 등

두 수화통역센터 모두 문해교육 교재를 농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책으로 교육 중이었다. 이미 기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조사에서 살핀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안동시 수화통역센터는 2011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재와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재가 달랐다. 2011년 초반 실시했던 문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시판 교재 중 외국인을 위한 초급 문법교육서로 교육을 하였다. 이 교재에 대해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 교수자는 한국인이 보기에 초등학생 수준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인 농인에게 맞지 않는 소재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농인 실정에 맞게 교재를 직접 구성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농인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교재를 사용한다고는 하나 주먹구구식의 교재 제작은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기관 심층 면담 조사 대상자들은 성인 농인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재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완주군 수화통역센터의 경우에는 한국 청인 유아를 위한 한글교육서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선 4.1.절에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대부분의 기관(67%)에서 시판 교재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과 그 교재 목록 <표 3>과 비교하여 참고해 보면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완주군 수화통역센터는 2013년 현재 두 개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준별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급 교재로는 ‘연필 잡고 만5세 한글’을, 중급 교재로 ‘연필 잡고 만6세 한글’을 쓰고 있다. 수준별로 분리되어 교재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인 농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두 수화통역센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을 분석한 결과 교재에서 보이는 공통적 특성을 정리할 수 있었다. 교재들은 모두 단어 위주로 구성되었고, 그림 위주로 구성되었다. 이는 농인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짐작할 수 있다. 농인의 모어 특성상 시각 정보에 강하고, 수화가 조사와 어미 활용이 없는 문장 구성으로 단어를 연결하는 것처럼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재의 실태를 종합하여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할 때, 첫째로는 성인 농인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화의 특성에 기인하여 시각 이미지 위주로 편집된 교재, 농인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초급에서는 단어 중심으로 구성한 교재를 편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③ 교육 프로그램

먼저 심층 면담을 하여 대략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심층면담 실시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현황

기업	(주)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화경연대회 개최 • 농인의 사회성 훈련 진행
지역 수화통역 센터	안동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2013년 3년간 문해교육 실시 • 2012~2013년 2년간 시사상식 교육 실시
	완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2013년 5년간 문해교육 실시 (한국어와 수화교육) • 2013년부터 수준별 문해교육 실시

기업이었던 조사 기관은 수화경연대회와 농인의 사회성 훈련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농인의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은 격월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발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본적 문해교육, 언어교육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한국어 이해 능력이나 수화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교육이다.

기업에서 농인들은 활발한 사회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농인의 한국어 문해력 정도가 사회생활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초점이 청인과 농인이 좀 더 활발하고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지역 수화센터인 두 곳은 문해교육과 시사상식 교육을 하고 있었다. 언어지식을 쌓는 교육이 주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의 교육은 기업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언어교육이 갖는 일반적 특성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교육하는 대상도 언어 자체이다. 한국어나 수화가 중심이 되어 그 자체를 알아가기 위한 언어 교육이다. 시사상식 교육도 사회에 나아가고자 하는 농인들을 독려하는 데 그 목적을 둔 언어 교육이다.

이에 지역 수화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 교육의 한 종류로서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프로그램 내용을 알아야 비로소 농인들을 위한 문해교육에 대한 올바른 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수화센터에서 진행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전반이란 ‘문해교육 실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가, 수업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수업일시는 언제인가, 교실에서 쓰는 언어는 어떤 것인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포함한 교실, 수업 내용 및 수업 과정.

학습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다.

두 곳 수화통역센터 중 안동시는 문해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어 교육과 시사상식 교육이 진행중이다. 안동시 문해교육의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안동시 수화통역센터 문해교육 프로그램 현황

<p>문해교육 프로그램 (2011년~ 201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맹 농인 대상 교육 필요: 당초 수화와 한글을 모두 구사하지 못하는 문맹 농인의 교육을 목적으로 시작 ② 농인의 욕구에 의한 교육 대상 확대: 한글을 배우려는 농인들의 문의가 늘어 모든 농인을 대상으로 범위 확대 • 교육 목표: 전문적 국어 지식의 교육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목표 설정 • 수업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휘 교육 위주: 한국어 단어와 수화 단어를 일대일 대응하는 방식으로 교육 ② 문법 교육 제외: 조사 교육에는 신경 쓰고 있으나 문법 교육은 시행하지 않음 • 수업 일시: 학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로 동계 기간에 수업 편성(농업 종사자 배려) ② 낮, 밤으로 반을 나누어 수업 편성 • 교실 언어: 수화(60%) 및 필담(40%) • 문해교육 프로그램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어 표현 능력 상승(문자 연락 등) ② 일상생활의 불편함 감소(물건 구매 시 등)
<p>시사상식 교육 프로그램 (2012년~ 201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동기: 농인의 사회 적응 독려 • 교수자: 수화통역센터 직원 동원 및 청인 강사 초빙 • 수업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반상식 교육(보험 해지 등) ② 신문 보도 자료 내용을 농식으로 풀어 설명하는 교육

안동시의 문해교육은 언어 자체에 대한 프로그램과 시사상식을 위한 이해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양한 소재의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한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어휘 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수화의 특성에도 기인한 초급 수준에 있어서 맞춤형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수화는 언어적으로 보았을 때 적절한 순서로 단어가 배열되는 것이 문장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초급 수준에서는 수화와 대응하는 어휘 차원의 표현을 교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실제로 직접 그 프로그램을 교수하고 있는 교수자의 답변을 듣고⁴⁾ 농인들의 한국어 이해의 측면에서 초반에는 어휘 교육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이루어진 교육 형태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가 ‘일상생활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다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만 있을 뿐 세부 목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 맞는 세부 목표도 설정하여 수업 후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하는 것까지도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녹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교실 언어에 주목할 점은 모국어와 목표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1 언어인 수화 약 60%, 목표어인 필담 약 40%가 섞인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화를 사용하는 것은 그날 배운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 인지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즉 교육하는 내용에 대한 제시 및 설명은 수화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어 필담은 지금까지 배운 한국어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준별 분반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첫째, 교수자인 동시에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시군 지부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자 자체의 시간이 부족한 것 둘째, 정부 차원의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다른 한 곳인 완주군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 한국어 구조에 맞는 한국 문장을 처음부터 제시하면 농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표 9> 완주군 수화통역센터 문해교육 프로그램 현황

<p>문해교육 프로그램 (2009년~ 201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민의 욕구 충족: 본인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대한 욕구, 가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자하는 욕구 등 ② 한국어를 모르는 농인들의 권리 보호 ③ 일상생활에서의 편리성 제공 • 수업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인과의 교류를 위한 방안으로서 필담을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 과정: 이름 쓰기부터 기초 단어 교육 ㉡ 중급 과정: 초급과정보다 높은 수준의 단어 교육, 한국어의 어순 및 한국어 문법체계 교육(조사 등) ② 수화 교육 동시 진행 ③ 단계별 수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2012년: 초급과정 1반 운영 ㉣ 2013년: 초급과정 1반, 중급과정⁵⁾ 1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반: 한 달에 2회 - 중급반: 1년에 7회(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준) • 교실 언어: 수화 • 교실 상황: 수맹자와 수화자의 합반 • 학습자 평가 방법: 관찰을 통한 평가(확실한 피드백의 부재) • 문해교육 프로그램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어 이해 능력 상승 ② 일상생활에서의 한국어 표현 능력 상승 ③ 자신감 형성
---	--

완주군은 안동시와 같이 다양한 소재 측면의 한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5) 중급 과정의 형성은 같은 과정 안에서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일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또 배우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 그 요인이었다.

것은 아니지만 한글 및 수화 교육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 교육 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언어 교육 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어 단계별로 각각의 반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실 상황을 파악해 보면 학생들은 수맹자와 수화자의 합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앞서 살핀 4.1.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학생 구성과 상통한다.

그리고 교실언어는 안동시에서 목표어와 모어를 일정 비율로 섞어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100% 수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완주군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상 수화 교육이 동시 진행되고 있고, 학습자 중에 수맹자도 함께 있어 수화도 목표언어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도구로서 수화를 선택한 결과라고 파악할 수 있다.⁶⁾

그리고 이 기관에서의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 중에서 주목할 점은 수업 시간에 대한 내용이다. 수업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수업과 수업 사이의 시간이 너무 멀게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언어 교육에 적합한 커리큘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⁷⁾ 이와 더불어 행정 당국의 예산 지원이 부족하며, 학습자들 스스로도 정확하고 효율적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은 성향 때문이라고 해당 기관 전문가들이 대답하였다.

④ 국가 차원의 행정적 지원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하면서 농인들을 위한 복지 문제들이 국가 차원의 행정적 지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과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기관인 안동시 및 완주군 수화통역센터에서 국가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리하여 보았다. 그 내용은 아래 <표 10>과 같다.

6) 해당 기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전문가가 생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발전방향을 소개하는 4.2.3항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7) 대체적으로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은 농사를 짓는 직업군들이 모여 있으며, 50대의 중장년층이 성인이다. 따라서 농번기에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체계적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확실한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표 10> 국가 차원의 행정 지원 현황

<p>(주)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정책의 활성화와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그룹차원의 장애사원 채용 • 채용 후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정식 채용
<p>안동시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지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 교수자 채용 예산 부족 ② 기타 농인 문해교육 관련 예산 부족
<p>완주군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예산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화와 한국어 모두 잘하는 강사를 초빙하고 싶었으나 행정적 어려움으로 하지 못함(농인 선생님 입사 후 자체 해결) ② 2014년~ : 중급반 강사 초빙 예산 책정 체결 승인 (5년 만의 쾌거) ③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문제 ④ 각 기관별 농통역사 예산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인식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인이 야학이나 평생학습을 어떻게 하느냐는 식의 대응 ② 수화통역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대우 및 인력 부족 ③ 국가 차원의 농인 교육 프로그램 부재

국가 차원의 행정적 지원 문제의 경우, 기업 기관인 (주)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의 경우와 한국농아인협회 산하의 수화통역센터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아주 상이하였다.

먼저 기업 기관인 (주)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기업과 정부 기관과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측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함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결과로서, (주)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에는 농인만으로 작업라인인 셀을 운영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셀을 통하여 작업성과를 내고 있다는 정보 또한 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통한 농인들의 복지 정책은 잘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에 채용되기 위한 교육 이외의 부분에서 한국어 문해교육 등 교육적 차원에서의 정부 기관의 노력을 발견하지 못했다.

기업에서 발견된 한국어 문해교육의 지원이 없었던 것처럼 안동시 및 완주군 수화통역센터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두 기관 모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양질의 문해교육을 하고 싶어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에 적합한 교수자를 채용하는 문제와 적절한 수준의 언어 교육에 부합하는 주 5회, 총 20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예산 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농인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가 차원의 행정 기관에서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의견 일치를 보여 주었다.

또한 완주군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예산 지원의 부족에 대한 원인이 국가 행정 기관의 인식이 부족한 데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일례로 ‘농인도 한국인인데 한국 말을 왜 이해를 못하느냐’ 또는 ‘농인은 말을 못하는데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냐’ 등의 인식을 품고 대응하는 국가 기관을 많이 보았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농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인식을 가지고 국가 기관이 농인들을 위한 사안들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완주군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주민 여성이 많은 편이고, 이 중에는 한국 농인과 결혼한 이주민 농인 여성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이 대응하고 있는 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례로 이주민 농인 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에서는 이주민 농인 여성이 한국 국적을 따기 위한 시험에 대해서 이주민 청인 여성과 차별 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즉 농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 수화 시험이 아닌 한국어 필답 시험을 강요하고, 시험문제 및 답 유출 우려를 이유로 수화통역사 배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외국인 이주민 여성이 받는 국가 차원의 혜택에 비하면 한국의 국민인 농인들에 대한 배려나 혜택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는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외국인 이주민 여성보다 농사회의 역사가 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⑤ 학습자

학습자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각 기관의 주 학습자 층과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파악하여 어떤 대상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일차적으로 필요할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정리하였다. 세 곳의 학습자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심층 면담 문해교육 기관의 학습자 현황

<p>(주)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학습자층: 성인 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 나이층: 20~40대 ② 직업: 생산직원 • 학습자 수준: 일상적인 수준의 한국어가 가능한 정도
<p>안동시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학습자층: 성인 농인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 나이층: 30~50대 ② 직업: 개인 사업장의 기술직 혹은 농업 • 학습자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수준 ② 문장력이 좋은 학습자와 좋지 않은 학습자의 합반 • 취약한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휘 차원의 높임말 ② 다양한 어미
<p>완주군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학습자층: 성인 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 나이층: 50대 ② 원인: 정규 교육의 소외 계층, 지역적 특성 • 학습자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을 쓰고 읽을 줄 모르는 수준 ㉡ 아는 단어 조합만으로 한국어 글을 이해하는 수준 ㉢ 문장 차원의 글에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 ② 중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문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수준 ㉤ 의성어 의태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수준 ㉥ 신문의 헤드라인 정도는 이해하는 수준

위 <표 11>에서 보이듯이 주 학습자 층은 세 곳 모두 학생 농인보다는 성인 농인이었다. (주)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의 경우에는 기업이기 때문에 교육 대상

이 회사 직원으로 한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학습자는 성인 농인이 되는 것이다.

안동시 및 완주군의 수화통역센터의 경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학습자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해당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는 성인 농인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30~50대 나이의 학습자들은 학교와 같은 전문 교육기관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계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완주의 경우 성인 농인뿐만 아니라 학생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 학습자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체육 특기생으로서 수맹자였다. 그 학생은 동시에 문맹자였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소통 수단이 부재하는 학습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 수화통역센터에서는 다른 학습자들과 분리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학생과 학생의 어머니로 구성된 학급을 개설하고 문맹 및 수맹 교육을 병행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두 명과 교수자 한 명이 교실을 구성하여 면대면 방식에 가깝게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두 기관 모두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태도가 열정적이라고 답변하였다.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편이며, 학습을 통한 즐거움도 큰 편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어에 대한 질문도 활발하다고 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은 수준별 학습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안동의 경우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분반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 당국의 인식과 예산 부족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⑥ 기타 문제점

그 밖에 전문가들이 심층 면담에서 언급하고 있는 농인 관련 교육이나 업무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았다.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교수자, 교재, 프로그램, 국가 차원의 행정적 지원, 학습자 이외의 측면에서 관측되는 여러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이에 여러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 나타내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심층 면담 문해교육 기관에서 지적한 문제점

<p>(주)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업무 차원에서 소통의 문제보다는 농인 사원의 개인적 성향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많음(현재는 많이 개선된 상태)
<p>안동시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의 문해교육 필요성 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인에게 수화뿐만 아니라 국어 및 문해교육도 필요하다는 인식 부족 ② 인식의 부족이 행정 지원 부족으로 이어짐(시·도청에서 농인 교육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함)
<p>완주군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예: 수화는 1~2년만 하면 배워요?) • 문법식 수화로 간단한 의사소통마저 못하는 청인들 상황 • 언어장애와 청각장애의 구분 모호: TV 등의 대중매체에서 현실과 다른 농인의 묘사로 인하여 실제 농인들에 대한 인식 부족 • 교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따로 마련된 교실이 없어 사무실 한쪽을 교실로 사용 ② 교육을 위한 시설: 칠판 • 농인들만 노력하는 사회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인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② 문법식 수화 구사 • 무방비한 상태로 외국 농인 여성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위 <표 12>를 통해 각각의 심층 면담 조사 대상 기관별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업 기관인 (주)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업무를 위해 의사소통과 관련한 노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소통상의 불편함보다는 청인과 다른 농인의 개인적 성향에 대한 문제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바 있다고 하였다. 지금은 서로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하여 청인들을 대상으로 청인들이 알지 못하는 농인들의 특성을 인지도시키고 교육하여 농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안동시 수화통역센터에서는 국가와 청인들이 ‘농인들도 문해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정이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지 않는 악순환으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완주군 수화통역센터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한국 수화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자격을 가지는 공용 언어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청인들에게 농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해교육을 위한 독립된 장소가 부재한 실정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시급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제대로 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 기관 및 국가 기관에서의 당연한 의무인 만큼 학습 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2.3. 문해교육 개선 방향

심층 면담을 진행한 세 곳의 문해교육 기관에서 문해교육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언급한 것들이 있다. 이 부분들은 현재 문해교육이나 농인 교육에 힘쓰고 있는 전문가들의 현실성 있는 목소리에 부합하는 제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급들을 정리하는 것은 향후에 농인 문해력 향상 방안을 제안하거나(6장) 문해교육을 위한 여러 요소들에 대한 전체적인 제언을 할 때(7장) 초석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심층 면담 당시에 나왔던 전사본을 바탕으로 하여 현장의 전문가들이 제언하고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각각 교수자와 관련한 개선 방향,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개선 방향, 교재 개선 방향, 국가적 차원의 행정 문제의 개선 방향을 주로 다루면서 청인 인식을 포함한 여타의 부분에서도 참고할 만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① 교수자

농인에게 한국어 문해력을 효율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교수자는 어떤 사람인지, 교수자 외에 보조 인력에 대한 생각은 어떨지 등에 대하여 현재 문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농인 문해교육 현장에서 몸소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농인 문해교육에 적합한 교수자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농인 문해교육 교수자의 발전 방향 제안

<p>안동시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자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수자는 반드시 수화 능력을 갖추어야 함 ② 국어나 수화의 전공자는 아니어도 됨
-----------------------	--

	(전문적 교육을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수준이기 때문)
완주군 수화통역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급반 교수자의 자격: 농인 교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수자와 학생들 사이의 동질감과 친밀감 형성 ② 교수자와 학생들 간 원활한 소통으로 교육적 효과 상승 ③ 도전의식 형성 및 가능성 확인: 학생들의 롤모델 중급반 교수자의 자격: 수화경력 10년 이상의 청인 교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어 지식 수준: 모국어로서 무리 없이 소화하는 수준 ② 수화 수준: 학생들과 무리 없이 소통 가능한 정도 전문 교수자 양성과정 필요 문법식 수화 가능자의 보조교사나 도우미 역할 장려

두 곳 모두 교수자에 대한 개선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방향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농인 교수자와 청인 교수자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인 교수자는 농인의 삶과 문장력을 이해하므로 농인 맞춤 교육이 가능하나,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존재한다.

반면 청인 교수자는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있으며 농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해박한 한국어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농인과의 효율적 의사소통의 측면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농인 교수자와 청인 교수자가 조를 이루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인 교수자의 경우 초급반을 전담으로 하고 중급반은 청인 교수자가 전담으로 하는 것이 수준별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준별로 달리 교수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이와 관련하여 청인과의 교류 측면과 교육 인력 부족 해소책의 한 방법으로서 수화와 국어를 잘 아는 청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보조 교사로 쓰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교수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수화 능력을 꼽았다.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해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반영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교수자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안동시 수화통역센터에서는 농인을 위한 한국어 문해교육 목표가 일상적 생활을 위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자의 전공이 한국어 관련 전공이 아니어도 되고 모국어 사용자로서의 직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완주군 수화통역센터에서는 농인의 한국어 문해교육을 위한 전문 교수자 양성과정의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한국어 문장 실력이 되는 농인 교수자에게 언어교육 및 문해교육 교수자들이 가진 교수 방법을 익힐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농인 교수자가 초급반을 주로 맡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② 교재

교재는 4.1.절과 4.2.1.항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다. 농인을 위한 교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였던 상황이었다. 현장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농인에게 맞는 교재가 무엇이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구 및 부교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면담 문해교육 기관의 교구 및 부교재 발전 방향 제안

<p style="text-align: center;">안동시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재 개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각 이미지 활용 ② 짧은 문장 구성 ③ 충분한 예문 활용 ④ 학습 가능한 분량의 고려한 교재 개발 ⑤ 단계별 구성 • 부교재 개발 방안: 채팅·대화창 활용
<p style="text-align: center;">완주군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인의 입장을 고려한 교재 개발 ② 성인 농인을 위한 소재 및 주제로 구성된 교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㉞ 초급: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어휘 위주로 구성된 교재 ㉟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 및 생활과 관련한 교재(동사무소, 가족과의 대화, 교통과 생활 등) ③ 단계별 교재 필요 ④ 의성어 의태어 교육의 간소화 • 부교재 개발 방안: 동영상 자료 활용

안동시 수화통역센터와 완주군 수화통역센터 두 곳 모두 농인들을 위한 맞춤 교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 첫 번째로 농인의 언어 특성에 기인한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수화가 시각언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그림이나 만화 등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농인의 이해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재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다른 언어적 특성으로 수화는 단문 구성이 많은 언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재를 개발할 때 농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짧은 문장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안동 수화통역센터의 두 전문가들은 농인들이 한 시간에 배우기 적절한 학습 분량은 어휘 2개 정도라고 말하면서⁸⁾ 그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다른 언어 교육과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단어 하나당 관련되는 예문을 풍부하게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교재를 개발하여야 하며 문장이 짧은 것에서부터 긴 것으로 나아가는 등 단계별로 교재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는 언급을 잊지 않았다.

또한 농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농인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완주군에서는 농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시판 교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일례로 대부분 청인을 상대로 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가 ‘읽어 봅시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어 교육에서는 연습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삭제하기보다는 농인을 위한 맞춤형 교재에서는 ‘수화로 말해 봅시다’ 등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농인들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교재로서, 단계별로 세밀하게 구성된 교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농인 학습자들의 요구와 수준은 다양하다. 그러나 단계별로 구성된 한국어 문해교육 교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상황이 심각함을 알게 해준다.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고 농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한국어 문해교육 단계가 제대로 측정되어야 하고 그를 바탕으로 교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농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재에 대한 발전 방향 제안 이외에도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부교재가 필요하며 그 부교재는 실용성과 재미와 흥미 위주로 개발되기를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안동시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청인과의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채팅·대화창(카카오톡, 네이버온 등)을 활용한 전자책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재미를 고려했을 뿐

8) 단어와 관련된 여러 그림과 예문을 제시하고 이해시키는 교육 시간과 복습 시간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에 농인들이 한 시간 동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 어휘 2개 정도라고 한다.

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모방, 교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문해력을 상승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완주군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시각 정보에 강한 농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영상 부교재를 개발하면 문해교육 효과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리라는 기대감도 드러내었다.

③ 프로그램

먼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현장 담당자들이 주장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의 제언을 정리해 보았다. 해당 기관의 전문가들이 제안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성은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문해교육 프로그램 모형에 대한 제언

<p style="text-align: center;">안동시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 교육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의 어려움: 농인들마다 문해력이 달라 교육 요구도 다르게 나타남 ② 해결 방안: 농인에게 맞춘 일대일 방식의 교육이 가장 좋다고 생각됨
<p style="text-align: center;">완주군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문해교육과 수화교육의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실 언어: 수화 ② 학생 구성: 수화 실력이 월등한 사람부터 수맹자까지 ③ 효과: 한국어 문해교육의 실력 상승 및 수맹자의 수화 실력 상승 • 중급반 문해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단 단위가 아닌 문장 정도를 보고 이해한다 ② 문장 구성성분에 맞게 배열 가능하다 ③ 문장 구성에 필요한 적절한 조사를 붙일 수 있다 ④ 동사의 활용 형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위의 <표 15>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할지에 대하여 (※)개논 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이유는 농인을 위한 직접적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기관인 두 곳에서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였다. 안동시 수화통역센터에서 생각하는 효과적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1:1 수업이었다. 즉 농인의 특수한 상황, 시각 언어인 수화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의 교육이 목표 언어를 학습하고, 문해력을 상승시키는 데 즉효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농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큰 전제는 완주 수화통역센터도 일맥상통하였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농인의 특성상 제1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1 언어인 수화와 목표어인 한국어가 동시에 교육되어야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수화 가능자와 수맹자의 합반으로 학습자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때의 교실 언어는 제1 언어인 수화로 교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농인들의 이해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농인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단계별 수업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면담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단순한 단계별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각 단계별로 세분된 교육 목표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커리큘럼이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발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 청인의 제2 언어 학습 단계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되고 철저한 요구 분석과 수준 분석을 통해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국가적 차원의 행정 문제

수화통역센터의 특성상 국가의 지자체 기관과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현실과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에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심층면담 기관 요구사항-행정적 문제 개선

<p>안동시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 교수자 채용 예산 지원 ② 기타 농인 문해교육 관련 예산 지원
-----------------------	--

<p style="text-align: center;">완주군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에서의 자체 해결에서 벗어난 적극적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최소의 강사 및 강사비 지원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 횟수 보장 ③ 평생교육과 야학에서의 권리 보장 • 국가 차원의 가정방문 교육 프로그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 소외 계층의 권리 보장 ② 농인 가족을 함께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필요 • 농인의 실정에 맞는 법적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화언어법 상정 ② 외국 이주민 농인 여성 권리 보장: 한국 국적을 받기 위한 시험 기회 보장
--	---

앞서 4.2.2.항에서 국가 차원의 행정 지원과 관련된 현황을 살필 때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이 문제점을 시급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 지원 확대를 들었다. 이 개선점에 대해서는 두 곳 모두에서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문제이면서 절실히 보이는 문제였다. 이는 양질의 교육과 농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선 방향이라고 말했다.

예산 지원 확대 이외에도 완주군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국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가정방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방향도 제시하였다.

또한 법적인 문제로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한국 수화를 한국어 공용어로 인정하는 법을 상정하여 청인 및 당국의 인식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주민 농인 여성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⑤ 기타 개선 방향

그 밖의 개선 방향으로는 청인들이 농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그 밖에 농인의 교육 및 문해교육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업체에서도 언급한 내용이 있어 이를 포함

하여 정리할 것이다. 정리한 내용을 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심층 면담 조사자의 여타의 개선점

<p>(주)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들의 자발적 노력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 단체 생활에 더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p>안동시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과 청인의 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인과 청인의 공동 노력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 문법식 수화 교육 및 청인과의 필담 교류 확대 ㉡ 청인: 수화 교육을 통해 농인과의 교류 확대 ② 교류 활성화 방안: 농인과 청인의 일대일 결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국어를 배우는 농인과 수화를 배우는 청인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제도 ㉡ 기대효과: 농인의 문장력과 청인의 수화능력 향상 • 수화를 통한 한국어 교수하는 방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유: 학습자들의 대체로 수화 능력이 뛰어날수록 문장력도 뛰어남 ② 효과: 수화를 통해 타인과 풍부하게 교류하므로 이해력이 높고 문장력도 좋아짐
<p>완주군 수화통역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인과 어울리는 사회분위기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익광고: TV를 통한 대대적인 광고 필요 ② 대중매체에서 농식 수화 노출: 영화 도가니 ③ 제대로 된 농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영화, 드라마 제작 • 대중매체에서 농인을 등장시킬 때 실질적이고 대중적인 농인의 모습으로 그려서 농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함

위 <표 17>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여타의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청인의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농인과 청인의 공동 노력이 중요한 개선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기업 기관인 (주)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의 경

우에는 농인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농인들을 위해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이 조사 기관이 기업이기 때문에 다수의 구성원인 청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제안된 발전 방향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심층 면담 조사 대상 기관인 두 수화통역센터에서는 공통적으로 농인과 청인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청인의 농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노출이 쉽게 이루어지는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농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농인에 관한 정보 노출은 농인과 청인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안동시 수화통역센터에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관찰 결과 수화 능력과 한국어 문장력은 긴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그들의 제1 언어인 수화를 존중하는 교수법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4.3. 요약

지금까지 4장에서 살펴본 국내 농인의 문해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문해교육 기관의 교육 현황

- 본 연구는 한국농아인협회 지부 및 수화통역센터 185개 가운데 문해력 관련 조사에 응한 87곳(47%)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관(98개)은 문해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유무를 알 수 없어 논의에서 제외하였음. 그러나 상당수는 문해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 2013년 현재 농인 대상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46개 기관으로 교육 경험이 있는 전체 기관(61개)의 75%에 해당됨.
- ⇒ 과거보다 많아지는 추세임.
- 문해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 수는 총 131개로 기관당 평균 2.14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 2013년 현재 운영 중인 기관(46개)의 교육 프로그램 수는 57개로 한 기관당 평균 1.2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임.
- 교육 프로그램은 평균 주당 3.25회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110분이다.

- ⇒ 이는 대학의 제2 언어 교육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함.
-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총 1602명으로 프로그램당 1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 ⇒ 언어 교육의 특성상 프로그램당 참여자 수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프로그램에 따라 편차가 큼.
-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자는 총 144명으로 이 가운데 농인 교수자가 97명, 청인 교수자가 47명이다.
- ⇒ 수화 가능자(136명, 94%)라도 수화 능숙도 및 자연수화 구사 가능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수화 불가능자(8명, 6%)에 의한 교수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함.
- 교육 프로그램의 교재 사용비율은 56곳(87% = 시판교재 67% + 자체제작교재 20%)이고 교재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8곳(13%)이나 되었다.
- ⇒ 유아용 한글 교재 등 대부분 성인 농인에 부적절한 것이 많음.

○ 관련 전문가 심층 면담

- 본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 중인 기관 중 3년 이상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 2곳과 농인을 집단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한 기업 1곳의 관련 전문가를 직접 면담하여 조사하였다.
- ⇒ 기관은 안동시 수화통역센터와 완주군 수화통역센터 2곳이고 기업은 농인만으로 작업라인(셀)을 운영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임.
- 교육 프로그램으로, 캐논은 수화경연대회나 농인의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고 안동시는 문해교육과 함께 시사, 상식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완주군은 5년간(2009년~현재) 한국어 및 수화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 ⇒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일대일 또는 면대면 교육, 수준별 교육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
- 교육 대상자로, 캐논은 직장 농인으로 연령이나 학력이 비슷하고 한국어 능력 역시 비슷한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안동시는 30~50대의 성인 농인으로 문해력의 편차가 큰 사람이 섞여 있으며 완주군은 50대 위주로 초급과 중급으로 수준을 나누고 교육하고 있다.
- ⇒ 교육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
- 교수자로, 캐논은 지역 내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청인인 직장 내 간부가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고 있고 안동시와 완주군은 농통역사 등 농인 교수자와 수화통역센터 직원이 교수자로 활동하고 있다.
- ⇒ 농인 교수자와 청인 교수자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며 수준별 교육 능력을

4. 국내 농인의 문해교육 조사 현황

갖춘 교수자가 필요함. 한국어와 수화 능력을 모두 갖춘 교수자가 필요함.

- 교재로, 안동시에서는 초등학생용 문법서를 사용하다가 2012년 이후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완주군에서는 5,6세용 한글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 성인 농인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고 시각 이미지 등이 가미된 성인 농인 맞춤형 교재의 제작이 필요함.

- 국가차원의 행정적 지원으로, 캐논에서는 장애인고용정책의 활성화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안동시와 완주군에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완주군에서는 국가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농인을 위한 법률적, 경제적, 교육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5. 농인의 문해력 설문조사

이 장에서는 농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해력 설문지 결과를 분석했다. 먼저, 설문지 문항 작성 및 수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 변인별 점수분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5.1. 설문지 문항 작성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두고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설문지 문항 작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5.1.1. 문항 작성 기준

문해력의 사전적 정의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를 풀어서 이해해 본다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농인의 문해력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청인과 달리 농인은 오로지 문자에 의지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농인의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농인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인의 문해력을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효과적인 문해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확한 문해력 측정을 위해서는 설문 문항의 작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먼저, 소재 면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소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작성하되, 농인이 자주 접하는 소재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의 형식 면에 있어서는 난이도를 낮추고 그림이나 도표 등의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농인의 문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국립국어원, 2008)에서 사용한 문해력 평가지를 토대로 농인의 특수성에 맞게 평가 항목을 수정하였다. 다음 표에서 국립국어원의 2008년도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 개발 지침과 농인의 문해력 측정을 위한 문항 개발 지침을 비교해 보았다.

<표 18> 청인과 농인의 문해력 평가 문항 틀 비교

구분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국립국어원, 2008)	“농인의 문해력 조사”
문제 유형	사실:추론:비판 = 5:3:2	사실:추론:비판 = 5:4:1
문제 상황	실용:교양 = 6:4	실용:교양 = 6:4
지문의 길이	한 문단 이하	한 문단 이하
문항 수	25문항 (60문항 중)	20문항 (40문항 중)
난이도	상 : 중 : 하 = 1 : 2 : 1	상 : 중 : 하 = 1 : 2 : 2
자료 유형	산문과 문서(도표, 그림) 사용	시각적인 도표와 그림을 확대 사용
기타	-	농인들에게 친숙한 소재 활용

위 표에서 문제 유형과 문제 상황 및 지문의 길이는 2008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하고 문항 수는 기존의 25문항에서 20문항으로 줄였다. 난이도는 하의 비중을 두 배로 늘리고 시각적인 자료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항을 구성하는 소재 역시 농인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농사회에서 좀 더 관심 있고 익숙한 소재를 활용하였다.

문제 유형은 크게 사실, 추론, 비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실 영역은 글에 제시된 명시적 정보를 읽는 이가 다 이해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며, 추론 영역은 글에 제시된 정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찾아내는 부분이다. 비판 영역은 추론 영역과 동일한 사고 과정을 거치지만 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5.1.2. 기초 설문지 작성

농인의 문해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해력 설문 조사와 함께 기초 설문을 실시하였다. 문해력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그 상관관계의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을 추려 10개의 질문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당신의 청각장애가 온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② 당신의 부모님께서는 수화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 ③ 당신의 부모님께서는 농인이십니까?
- ④ 당신의 형제 중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⑤ 당신의 형제 중에 농인이 있습니까?
- ⑥ 당신은 누구에게 수화를 처음 배웠습니까?
- ⑦ 당신은 수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⑧ 당신은 국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두 개 이상도 가능)
- ⑨ 당신은 읽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⑩ 당신은 자신의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위 10개의 질문 중에서 ①은 청각 장애가 온 시기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문자를 습득한 후에 장애가 온 경우와 국어 문자 습득 전에 장애가 온 경우에 따라서 문해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설정한 질문이다.

②와 ③은 부모의 영향에 관한 질문이다. 초기 언어 습득 시기에 부모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청인인지 농인인지에 따라 농아동의 언어 인지력이 차이를 보인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④와 ⑤는 형제에 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농인 형제도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부모 못지않게 농인의 모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인의 경우는 부모만이 모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농인의 경우 형제의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농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질문이다.

⑥과 ⑦은 앞서 말한 ②, ④와 더불어 농인의 문해력에 끼치는 수화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다. 국립국어원(2013) 조사에서도 농인의 국어 표현 능력에 수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다. 따라서, 국어 이해 능력에는 본인과 가족의 수화 구사력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⑧은 국어를 배운 장소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인 경우, 평생교육 기관 등을 통하여 국어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⑨와 ⑩은 읽기 교육 여부와 문해력의 상관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읽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문해력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가정이지만 상관관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읽기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5.1.3. 예비 조사 실시 및 문항 수정

총 40문항을 예시로 작성하여 논의를 거친 후 20문항을 추려내었다. 20문항은

영역별로 각각 사실 정보 10문항, 추론 정보 6문항, 비판 정보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문해력 설문 문항이 평가 자료로서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현황과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차 예비조사: 서울(2013.09.7), 10명
- 2차 예비조사: 남원(2013.10.6), 11명
- 평균 점수: 7.45점(20점 만점)
- 학력별 득점: 대재(15점), 무학(9점), 초~고졸(6점)

예비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보았다. 우선, 학력별 득점이 고르게 배분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무학의 경우는 독학이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해 받은 문해교육의 결과가 점수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나, 초졸, 중졸, 고졸의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는 점은 설문 문항의 변별성이 부족했음을 나타낸다. 특히, 정보 유형은 사실 정보였고 난이도는 ‘하’에 해당하는 문제의 정답률이 30%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하고자 했다.

문항의 타당성은 난이도, 문제 유형, 농인의 특수성에 기반한 문제 내용의 3가지를 중심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수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사용되는 이미지는 사진보다는 그림 자료를 활용
- 지나치게 긴 문장으로 된 보기는 그 길이를 조정
- 문제 요구가 중의적인 것은 하나로 수정
- 추가 이미지 삽입
- 일상적이지 않은 주제 변경
- 난이도 재조정

이미지는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지만 이미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글을 이해하는 데 보충적인 역할만을 해야 하므로 논의 과정을 거쳐 조정이 필요했다. 정답을 요구하는 보기의 경우는 4문항으로 정하였으며, 보기의 문장이 너무 긴 경우는 그 길이를 축소했는데, 이는 문제가 제시하는 텍스트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보기 문장의 해석에서 어려움을 느껴 정답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의 수정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가족은 찻솔 통에서만 만납니다!

아빠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는 집안 일을 이유로...
동생은 고3이라는 특혜(?)로.../ 아침마다 복적이지만...

- ① 바쁜 현대인의 일상이 잘 드러나 있다.
→ (수정)현대인은 바쁘다.
- ② 가족 간에 좀 더 풍부한 대화가 필요하다.
→ (수정)가족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
- ③ 욕실이 가족의 중심 공간이다.
- ④ 찻솔 통에서라도 만나서 다행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표 19> 문해력 설문 문항의 영역별 분류

문항 수	20문항		
정보영역	사실: 11문항,	추론: 7문항,	비판: 2문항
난이도	상: 4문항,	중: 9문항,	하: 7문항

<표 20> 개별 문해력 설문 문항의 분류 정보

문항번호	영역	주제	난이도
1	사실 정보	메모	하
2	사실 정보	요리 순서	하
3	추론 정보	공익 광고	하
4	사실 정보	자동차 광고	하
5	사실 정보	운동 묘사	하
6	추론 정보	제품 사용설명서	하
7	사실 정보	통계(공연)	중
8	사실 정보	안내문	중
9	사실 정보	신문기사(결혼)	중
10	사실 정보	교통	중

11	추론 정보	수필(여행)	중
12	추론 정보	광고	중
13	추론 정보	신문기사	중
14	사실 정보	의학상식	상
15	사실 정보	통계(독서분야)	중
16	추론 정보	광고	중
17	비판 정보	안내문	하
18	비판 정보	시	상
19	추론 정보	법률	상
20	사실 정보	책소개	상

5.2. 조사 지역 및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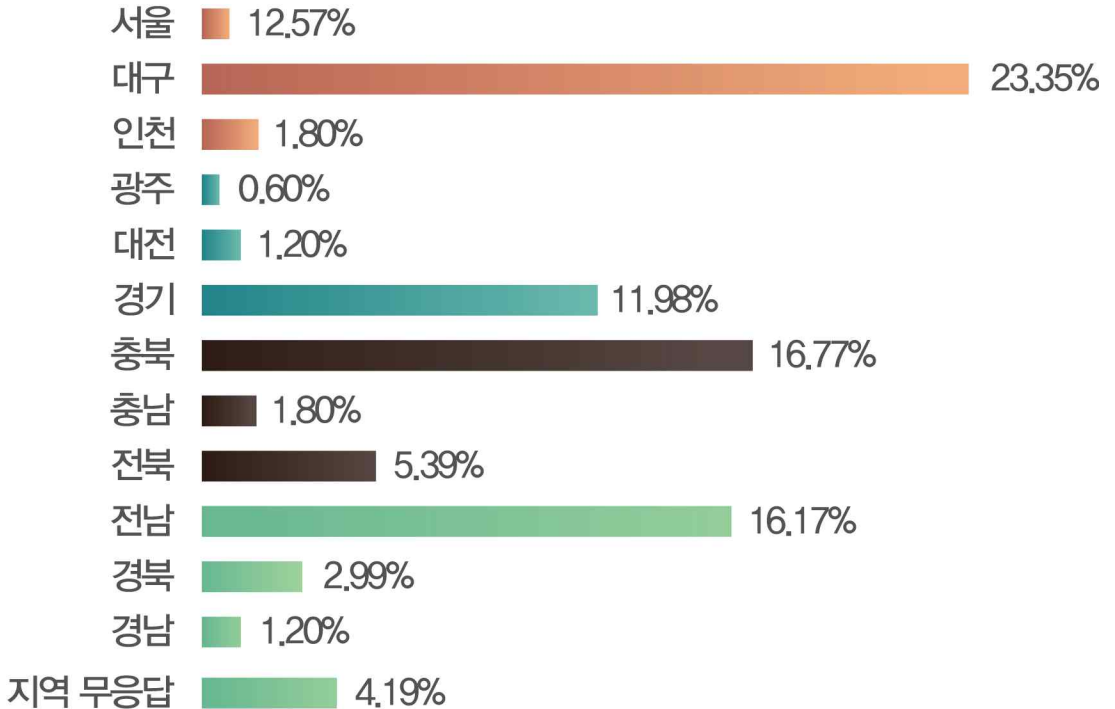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는 총 167명이었고 조사 지역은 전국 단위를 고려하여 경기, 서울, 충주, 목포, 대구, 전주 6곳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농인과 학생을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집단을 다양화해 집단별 특징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농학생들의 경우 다시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학교에 다니는 농학생과 특수학교에 다니는 농학생으로 구분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 학교에 있는 농학생들을 일일이 조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특수학교에 있는 농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별 조사 일시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21> 문해력 설문 조사 일정

조사횟수	일시	지역	인원 (총 167명)
1차	2013.10.15.	캐논코리아 안산 공장	30명
2차	2013.11.03.	목포 농아인 교회	25명
3차	2013.11.10.	대구 농아인 교회	45명
4차	2013.11.26.	충주 성심 학교	33명
5차	2013.12.08.	서울 명성 교회	25명
6차	2013.12.23	전주 선화 학교	9명

총 6차에 걸쳐 기업, 종교기관, 농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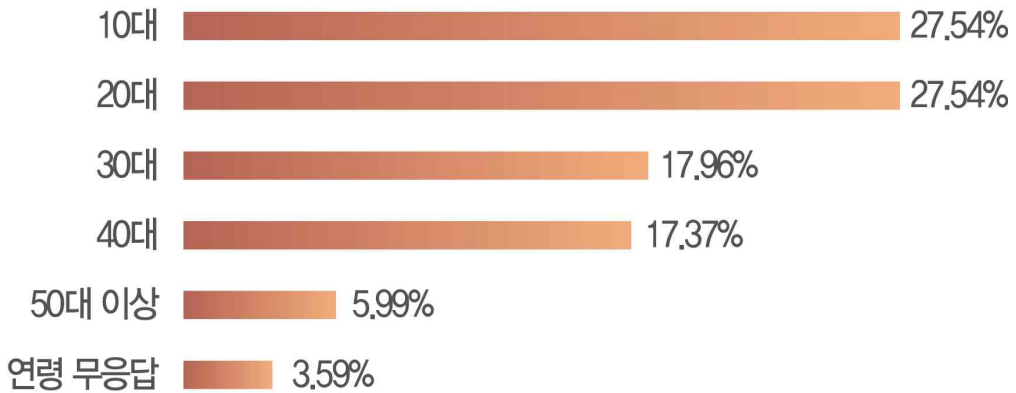
<그림 14> 지역별 조사자 비율

조사한 곳은 6곳이지만 응답자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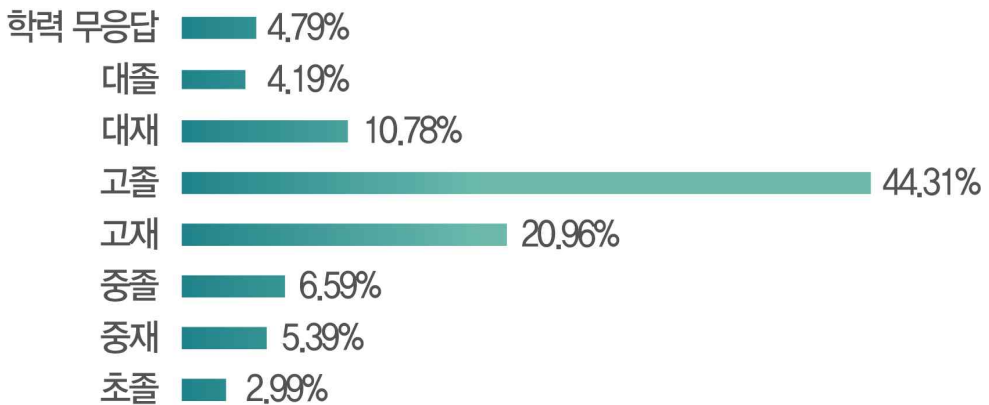
<그림 15> 성별 조사자 비율

성별로는 남성이 58%로 여성 40%보다 조금 많았다.



<그림 16> 연령대별 조사자 비율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와 40대 순이었다.



<그림 17> 학력별 조사자 비율

학력별로는 고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재, 대재 순이었다.

5.3. 조사 결과 분석

본 절에서는 앞절에서 이루어진 설문 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전체적인 점수 분포와 문항별 점수 분포로 나누어 분석해 볼 것이다.

5.3.1. 전체 점수 분포

이번 설문 조사 대상자 167명의 평균 점수는 9.6점(20점 만점)이었다. 이 연구는 전국적인 단위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하여 문맹률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문해력 부족의 원인과 문해력 향상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농인 비문해자는 설문에서 제외했고, 설문지를 읽고 풀 수 있는 농인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즉, 9.6점이 전체 농인의 문해력 수준을 보여주는 점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농인들의 문해력 전반에 대한 수준과 경향은 이 점수를 통해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통계 조사에서 얻은 평균 점수가 농인이 어느 정도의 문해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하여 학교 성적이 중간에 해당하는 청인 중학생 3학년 8명과 고등학교 1학년 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평균 점수는 16.7점이었다. 학력이 모두가 고졸인 캐논 코리아 농인 직원들의 평균 점수 10.2점과 비교해도 청인 중·고등학생들의 점수가 훨씬 높았다. 설문에 응한 성심학교 농학생 33명 중에서 점수가 16점 이상인 학생은 5명뿐이었고 이 5명 중 4명의 학생은 일반 학교에서 농학교로 전학온 학생들이었다.

5.3.1.1. 소속 집단별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서울, 경기, 대구, 목포, 충주, 전주 6곳이다. 하지만 학력이나, 연령과 달리 지역별 집단의 특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에, 조사 대상자가 소속된 집단별 정체성이 뚜렷하여 집단별로 문해력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18> 소속 집단별 점수 분포

<표 22> 소속 집단별 인원 및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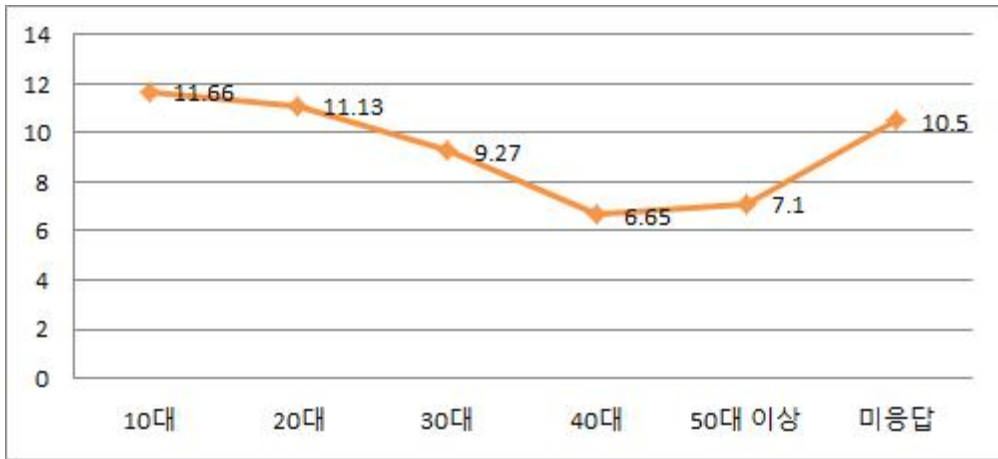
지역	소속 집단(개별)	소속 집단(전체)	인원	점수(20점)
경기	캐논코리아	직장	30명	10.2점
충주	성심학교	농학교	42명	10.9점
전주	선화학교			
서울	명성교회	종교기관	95명	8.8점
대구	농아인교회			
목포	농아인교회			

소속 집단별로 문해력 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농학교 학생들의 점수가 10.9점 (성심학교:10.8점, 선화학교:11.1점)으로 가장 높았고, 캐논코리아 농인 직원들의 점수는 10.2점, 종교기관에 소속된 농인들의 점수는 8.8점이었다.

농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생들로 현재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문해력 점수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농학생들의 점수편차가 커서 같은 학년 학생이라고 해도 3점~ 18점의 분포를 보였다. 여기서 몇몇 농학생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학습 장애나 지적 장애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캐논 코리아에 근무 중인 농인들의 문해력 점수의 편차는 농학생들과 달리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임을 감안할 때 문해력 점수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농인 직원들은 사무직이 아닌 생산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일에 대한 설명은 회사에 고용된 농통역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문해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주로 업무에 관계된 일부 작업 용어에 국한되어 있었다.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농인들임에도 문해력 점수가 높지 않다는 사실은 그만큼 농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해교육이 절실함을 말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교 기관에 소속된 농인들은 다양한 점수분포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응답자들의 연령, 직업, 학력이 무척 다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교 기관이라는 소속 집단의 특성은 이번 설문 조사에서 찾기가 어려웠다. 종교 기관에 소속된 응답자들의 연령별 문해력 점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19> 종교 기관의 연령별 문해력 점수 그래프

<표 23> 종교 기관의 연령별 문해력 점수표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미응답
인원수	6	15	29	29	10	6
비율	6%	16%	31%	31%	11%	6%
평균	11.66	11.13	9.27	6.65	7.1	10.5

5.3.1.2. 연령 및 학력별

연령은 문해력 조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해력이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해 능력을 가리키므로 더 많은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문자 텍스트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쉽게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다는 전제가 붙는다. 청인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런 가정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인의 경우는 대학까지 졸업한 농인도 드물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고 하여 청인처럼 높은 문해력을 지녔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농학생들의 문해력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연령별 점수를 보면, 10대는 10.9점, 20대는 10.5점, 30대는 9.4점, 40대는 6.7점, 50대는 7.1점을 보이고 있다. 50대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령, 학력별 인원수와 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0> 학력별 성적 추이

위 도표에서 중재와 중졸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은 연령과도 상관이 있는데, 중졸 응답자의 대부분이 30~50대로 중학교를 졸업한 지 오랜 시간이 되어 문해교육과 멀어지면서 문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연령별 성적 추이

<표 24> 연령·학력별 점수분포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미입력
초졸	.	.	.	4	5	.
중재	13.77
중졸	.	.	5	4.28	6	.
고재	10.16	11		.	.	.
고졸	12.5	9.86	9.15	7.42	.	8
대재	.	12.4	11.8	8	13.5	.
대졸	.	10	8.66	10	.	.
무응답	7	12	5	.	11	13

<표 25> 연령·학력별 인원수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미입력	합계
초졸	.	.	.	1	4	.	5
중재	9	9
중졸	.	.	1	7	3	.	11
고재	31	4	35
고졸	4	29	19	19	.	3	74
대재	.	9	6	1	2	.	18
대졸	.	3	3	1	.	.	7
무응답	2	1	1	.	1	3	8
합계	46	46	30	29	10	6	167

위 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고졸 학력 응답자들의 연령별 점수 분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문해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지속적인 문해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 농인이 국어 문자 생활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인의 경우 문자로 된 정보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반면에, 농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국어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의 도움이 끊긴 상태에서는 문자 생활로부터 멀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수화통역센터에서 문해교육을 받

고 있는 농인들의 현황에서 엿볼 수 있다.

학력만을 기준으로 한 점수 분포를 보면, 초졸(10.6점), 중졸(9.6점), 고재(10.3), 고졸(10.5점), 대재(9.9점), 대졸(12.1점)의 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으나 초졸의 경우 고졸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는 성심학교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점수가 반영된 결과이다. 초졸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평균 4.5점이었다. 초졸과 중졸의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고졸과는 많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5.3.1.3. 기초 현황별

기초 현황별 질문은 문해력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국어원(2013) 조사에서는 아래 10개의 변인이 농인의 국어 표현 능력과 상당한 관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어 이해 능력의 영역인 문해력 점수와의 관계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응답에 따른 문해력 점수는 다음과 같다.

<표 26> 기초 현황별 문해력 평균 점수

구분		문해력 평균점수	응답자 수 (명)
전체		9.6	167
청각장애가 온 시기	5세 이전	9.59	142
	10세 이전	10.3	13
	15세 이전	9	8
	20세 이전	0	0
	20세 이후	8	1
	모름/무응답	6.33	3
부모의 수화 가능 여부	가능	10.41	31
	불가능	9.31	135
	모름/무응답	15	1
부모의 농인 여부	예	9.13	23
	아니요	9.7	142
	모름/무응답	4	2
형제의 수화 가능 여부	가능	9.67	59
	불가능	9.49	108
형제의 농인 여부	예	9.56	30
	아니요	9.55	137

5. 농인의 문해력 설문 조사

수화습득	부모	10.2	10
	형제	11	3
	친구	10.15	72
	친척	7	2
	선생	8.88	78
	모름/무응답	11.5	2
본인의 수화 구사 정도	매우 잘함	11.25	27
	잘함	9.3	52
	보통	9.16	71
	조금	10	12
	전혀	8	4
	모름/무응답	5	1
국어를 배운 장소	집	12.66	24
	학교	9.66	142
	종교	9.24	29
	협회	7.07	14
	독학	11.47	23
	모름/무응답	11	1
읽기 교육 경험	예	10.16	109
	아니요	8.53	56
	모름/무응답	5	2
읽기 능력 정도	매우 잘함	12.9	10
	잘함	10.83	36
	보통	9.36	90
	조금	7.68	25
	전혀	6	4
	모름/무응답	9	2

위 표에서 드러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모의 농인 여부는 문해력과 상관성이 없었다.
- 부모가 수화를 할 경우 문해력 점수가 약간 높았다.
- 형제의 농인 여부와 수화 가능 여부는 문해력과 상관성이 없었다.
- 수화 능숙도와 문해력과의 상관성은 낮았다.
- 국어를 집에서 배우거나 독학한 사람의 문해력 점수가 높았다.
- 읽기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의 문해력 점수가 높았다.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중에 의외의 결과는 국어를 집에서 배우거나

독학한 사람의 문해력이 높았다는 점이다. 학교나 기관에서의 교육이 문해력 향상에 큰 영향을 못 줬다고 보기보다는 농인에게서는 부모와 가족 간의 언어 생활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읽기 교육의 경험은 문해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농인에게 직접적 문해교육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 형제가 농인인 점과 부모와 형제 및 본인이 수화에 능숙하다는 점은 문해력과 상관성이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국어원(2013) 조사에서 드러난 수화 능력과 국어 표현 능력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결론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국어능력과 문해력의 차이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할 듯하다. 즉, 수화를 잘 구사하면 국어능력은 더 좋을 수 있으나 그러한 차이가 문해력에서는 줄어드는데, 이는 문해력이 많은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해력은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능력이지만, 수화를 잘하는 것은 단편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능력이므로 서로간의 관련성이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농인이 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도 문해력을 바탕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따라서 문해력 향상 방안에는 국어능력 향상보다 더 정밀하고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해력 점수가 낮은 원인으로 지시사, 연결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 수도 있다. 농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이 지시사와 연결어미, 접속부사 등인데, 이 때문에 단어 수준에서는 잘 이해하는 것도 문장 수준을 넘어가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해력 평가 문제는 여러 개의 문장을 연결하여 전체의 뜻을 찾아내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므로 농인들에게 더 어렵게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5.3.1.4. 점수대별

응답자들의 문해력 점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하위 10%는 4점 이하, 상위 10%는 15점 이상을 득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점수대별 분포 현황

점수	인원수	백분율(%)	누적백분율(%)
0	0	0%	0%
1	1	1%	1%
2	5	3%	4%

3	3	2%	5%
4	9	5%	11%
5	9	5%	16%
6	14	8%	25%
7	12	7%	32%
8	15	9%	41%
9	15	9%	50%
10	15	9%	59%
11	16	10%	68%
12	15	9%	77%
13	13	8%	85%
14	8	5%	90%
15	6	4%	93%
16	1	1%	94%
17	4	2%	96%
18	3	2%	98%
19	3	2%	100%
20	0	0%	100%

5.3.1.5. 변별도 분석

문항의 변별도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정답률 차이를 통해 출제된 문항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하는 지수를 가리킨다. 변별도 지수(D)는 상위집단의 정답률에서 하위집단의 정답률을 뺀 값을 소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즉 성적이 높은 사람이 맞춘 문제를 성적이 낮은 사람이 못 맞출 경우 그 문항의 변별도는 상승하며 이 문항은 좋은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 상, 하위집단을 각각 25%씩 정함.
- 변별도(dl), 상위집단(hg), 하위집단(lg), 상위집단 정답자(hc), 하위집단 정답자(lc)

$$dl(\text{변별도 지수}) = hc/hg - lc/lg$$

- 도출된 값은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변별도가 높음.
- 바람직(0.3 이상), 개선의 여지(0.2~0.3), 개선이 필요(0.2 미만), 재작성(-값)

<표 28> 문항별 변별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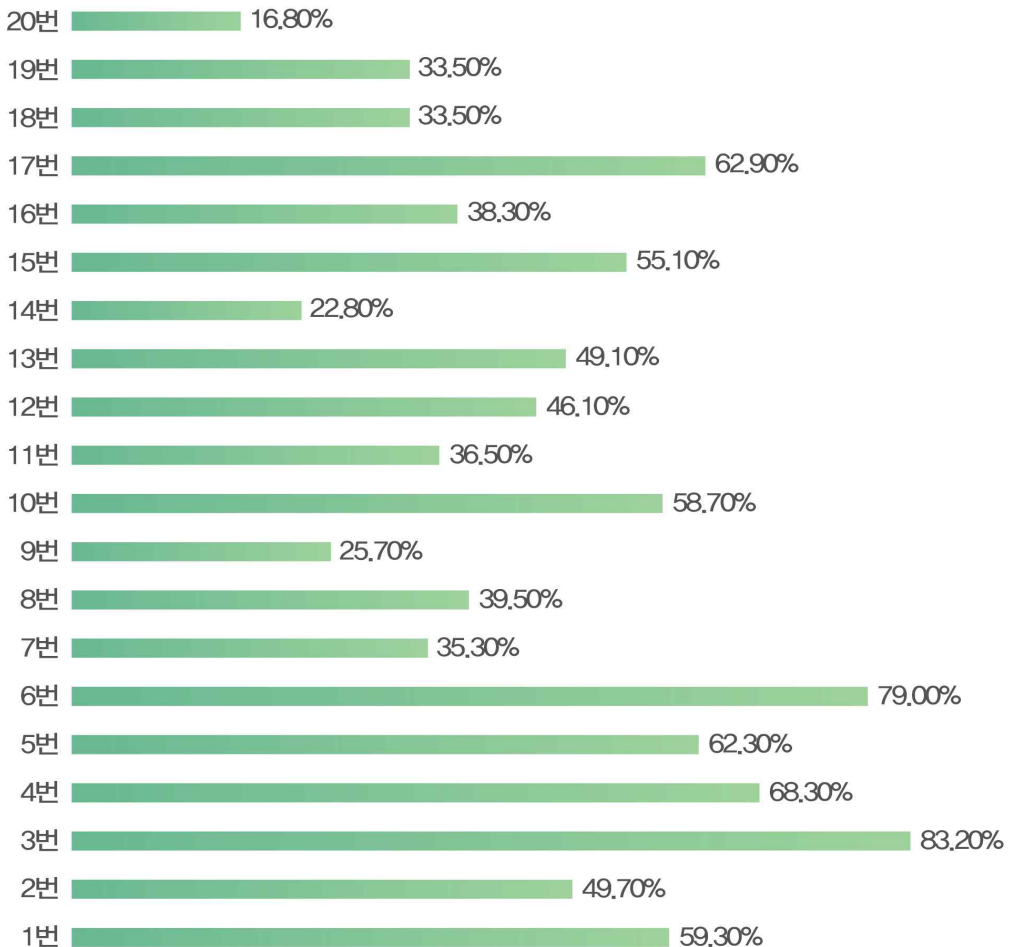
문항 번호	영역 (난이도)	주제	상위집단 정답자	하위집단 정답자	변별도 지수 (0.48)
1	사실(하)	메모	49	7	0.75
2	사실(하)	요리 순서	42	14	0.45
3	추론(하)	공익 광고	53	18	0.56
4	사실(하)	자동차 광고	51	11	0.69
5	사실(하)	운동 묘사	46	10	0.62
6	추론(하)	제품 사용설명서	53	19	0.54
7	사실(중)	통계(공연)	31	8	0.39
8	사실(중)	안내문	38	7	0.55
9	사실(중)	신문기사(결혼)	20	4	0.28
10	사실(중)	교통	49	8	0.73
11	추론(중)	수필(여행)	28	10	0.28
12	추론(중)	광고	41	8	0.58
13	추론(중)	신문기사	44	10	0.59
14	사실(상)	의학상식	15	5	0.16
15	사실(중)	통계(독서분야)	48	5	0.78
16	추론(중)	광고	38	5	0.6
17	비판(하)	안내문	48	7	0.73
18	비판(상)	시	18	7	0.17
19	추론(상)	법률	19	16	-0.03
20	사실(상)	책소개	15	6	0.14

전체 문항의 변별도는 0.48로 아주 높았다. 그러나, 4개의 문항은 0.2 미만으로 변별도 분석에서 개선이 필요한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개의 문항은 난이도 분류에서 상으로 구분했던 것이다. 문항 설계 단계에서 자체 회의를 통하여 응답자들이 풀기에 어려우므로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문항들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정확한 문해력의 수준만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텍스트 주제와 유형에 농인들이 더 어렵거나 쉽게 반응하는지도 알아보고자 했으므로

문항에 반영했던 것들이다. 실제로 이 4개의 문항에 대한 집단별 응답 분포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개별 문항에 대한 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5.3.2. 문항별 점수 분포

설문지 문항 20개는 난이도와 영역을 고려하여 번호순을 정하였다. 즉, 난이도는 문항이 뒤로 갈수록 ‘하’에서 ‘상’으로 구성하였고, 영역은 사실, 추론, 비판 영역의 문제들을 서로 섞어 배치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문항 번호가 상위 번호일수록 정답률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2> 전체 문항 정답률

<표 29> 문항별 정답률

문항번호	영역 (난이도)	주제	정답률
1	사실(하)	메모	59.3%
2	사실(하)	요리 순서	49.7%
3	추론(하)	공익 광고	83.2%
4	사실(하)	자동차 광고	68.3%
5	사실(하)	운동 묘사	62.3%
6	추론(하)	제품 사용설명서	79.0%
7	사실(중)	통계(공연)	35.3%
8	사실(중)	안내문	39.5%
9	사실(중)	신문기사(결혼)	25.7%
10	사실(중)	교통	58.7%
11	추론(중)	수필(여행)	36.5%
12	추론(중)	광고	46.1%
13	추론(중)	신문기사	49.1%
14	사실(상)	의학상식	22.8%
15	사실(중)	통계(독서분야)	55.1%
16	추론(중)	광고	38.3%
17	비판(하)	안내문	62.9%
18	비판(상)	시	33.5%
19	추론(상)	법률	33.5%
20	사실(상)	책소개	16.8%

문항별 정답률을 보면 사실과 추론, 비판에서 추론과 비판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난이도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문항별 정답률에서 난이도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다. 청인 예비조사와 연구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난이도 배열에 따라 문항 2번은 사실(하)에 해당하고 문항 10번은 사실(중)으로 분류했던 것인데, 정답률은 문항 2번이 49.7%였고 문항 10번은 58.7%였다. 그리고 사실(중)으로 분류했던 문항 9번은 비판(상)이나 추론(상)에 해당하는 문항보다 더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정답률에 따른 문항순 표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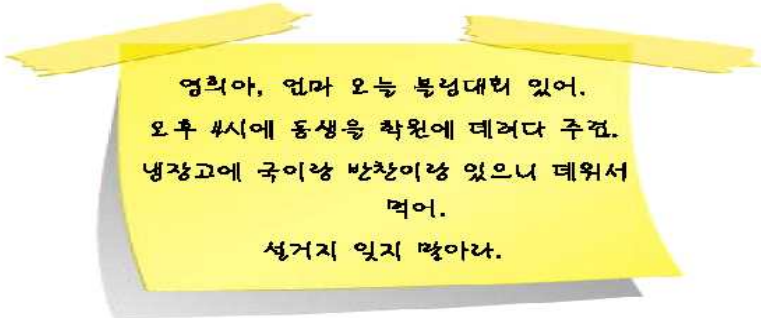
<표 30> 정답률에 따른 문항순

문항번호	영역 (난이도)	주제	정답률
3	추론(하)	공익 광고	83.2%
6	추론(하)	제품 사용 설명서	79.0%
4	사실(하)	자동차 광고	68.3%
17	비판(하)	안내문	62.9%
5	사실(하)	운동 묘사	62.3%
1	사실(하)	메모	59.3%
10	사실(중)	교통	58.7%
15	사실(중)	통계(독서분야)	55.1%
2	사실(하)	요리 순서	49.7%
13	추론(중)	신문기사	49.1%
12	추론(중)	광고	46.1%
8	사실(중)	안내문	39.5%
16	추론(중)	광고	38.3%
11	추론(중)	수필(여행)	36.5%
7	사실(중)	통계(공연)	35.3%
18	비판(상)	시	33.5%
19	추론(상)	법률	33.5%
9	사실(중)	신문기사(결혼)	25.7%
14	사실(상)	의학상식	22.8%
20	사실(상)	책소개	16.8%

문항 2번과 9번의 난이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낮은 것은 농인 응답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농인들이 일반적으로 해당 텍스트가 설명하는 방식보다 배경지식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한 태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문항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음은 영희에게 어머니가 남긴 메모입니다. 메모의 내용과 다른 것은?



영희아, 엄마 오늘 볼링대회 있어.
오후 4시에 동생을 학원에 데려다 주겠.
냉장고에 국이랑 반찬이랑 있으니 데워서
먹어.
설거지 잊지 말아라.

- ① 어머니는 볼링대회에 간다.
- ② 동생은 학원에 가지 않는다.
- ③ 냉장고에 국과 반찬이 있다.
- ④ 영희는 설거지를 해야 한다.

문항 1은 사실 정보를 물어보는 것으로 메모 내용을 읽고 메모의 내용과 다른 것을 찾는 문제이다. 정답률은 59.3%로 전체 20문항 중 여섯 번째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문항 1의 난이도는 회의 과정을 통해 ‘하’로 지정을 했는데 예상보다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4 개의 보기 문항 중 정답을 제외한 오답을 선택한 경우는 그 비율이 일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정답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가정할 수 있다.

- 메모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긴 글이다.
- 질문이 ‘내용과 다른 것’을 물어본다.
- 보기의 문항이 메모의 내용과 다른 문장 형식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가정이 가능한 이유는 문항 1보다 정답률이 높게 나타난 3~6번 문항은 1번 문항보다 짧은 텍스트이며, 보기의 문항 또한 짧았다. 주어진 텍스트가 길며, 다양한 문장 형식이 쓰인 경우이더라도 청인에게 사실 정보는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농인에게는 길어진 내용만큼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부담이 더 많이 가해졌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2. 다음 요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김치라면

< 만드는 방법 >

- ① 물 550ml를 냄비에 넣고 끓인다.
- ② 물이 끓으면 라면스프와 김치를 넣는다.
- ③ 라면면발을 넣는다.
- ④ 4분 정도 끓이면 완성.

- ① 물은 끓이지 않는다.
- ② 김치를 넣어야 한다.
- ③ 라면 면발을 제일 먼저 넣는다.
- ④ 30분 이상 끓여야 한다.

2번 문항은 요리방법을 읽고 그 사실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로 사실 영역의 난이도 ‘하’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49.7%로 전체 20문항 중 아홉 번째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1번 문항보다 더 낮은 정답률이다. 2번 문항은 10번 사실 영역 ‘중’에 해당하는 문항의 정답률보다 더 낮아서 난이도 설정과 다른 결과를 보인 문항이다.

오답률을 살펴보면, 오답으로서 가장 많은 선택을 한 보기 문항은 ‘라면 면발을 제일 먼저 넣는다’이다. 문항 2는 문항 1보다 긴 텍스트도 아니었고, 문장 형식도 다양하지 않았으며 질문 또한 ‘올바른 것’을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응답자들이 상식에 기대어 문제를 풀었다.
- 주어진 문장 전체를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보다 일부만을 보기에서 물어본 경우가 이해하기 더 어렵다.
- 주어진 ‘요리방법’ 텍스트에 요리 순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

즉, 농인들은 일상적인 소재로 된 쉬운 내용의 글이라 하더라도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이 조금이라도 부족할 경우 문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가?

도로는 생명이 달리는 곳입니다.

- ① 요리 ② 운전 ③ 노래 ④ 공부

문항 3은 공익 광고를 소재로 한 추론 영역의 난이도 ‘하’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83.2%로 전체 20 개의 문항 중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사실 정보와 달리 주어진 텍스트에 직접적인 정답이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텍스트의 내용이 짧고 보기 문항이 하나의 명사 어휘로 되어 있어 높은 정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4. 다음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한국자동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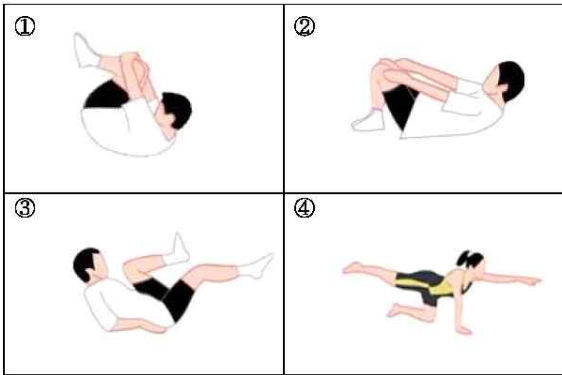
한국자동차는 편안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매우 튼튼합니다.
낮은 가격과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지요.
당신의 선택, 한국자동차입니다.

- ① 편안하다 ② 작다 ③ 튼튼하다 ④ 가격이 비싸다

문항 4는 자동차 광고의 내용으로 사실 영역의 난이도 ‘하’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68.3%로 전체 20 문항 중 세 번째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문항 4는 문항1, 2와 달리 주어진 텍스트가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기 문항 또한 형용사 기본형이 쓰여 농인이 이해하기 쉬웠다고 볼 수 있다.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스트레칭 동작은?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바닥에 댄 후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쭉 뻗어준다.



문항 5는 운동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사실 영역의 난이도 ‘하’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62.3%로 전체 20문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오답을 선택한 경우는 그 비율이 일정했다. 보기 문항이 그림으로 제시되어 응답자의 어휘력 수준에 비례해서 정답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6.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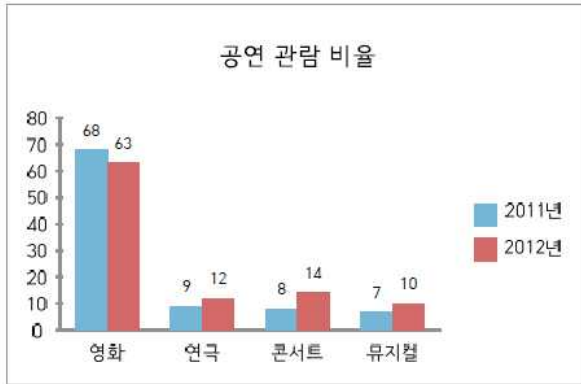
1. 먼저 전원 버튼을 누르시고 화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2. 화면이 나오면 원하는 기능에 손가락을 대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 ① 구입 안내 ② 효과 설명 ③ 문의 사항 ④ 사용 방법

문항 6은 제품 사용 설명서로 추론 영역의 난이도 ‘하’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79%로 전체 20 문항 중 두 번째로 아주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정답률이 높았던 것은 생활에 친근한 소재와 내용 그리고, 보기 문항이 명사로 이루어진 점과 그림 자료가 제시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농인의 문해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친근한 소재와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어휘와 문장

형식을 학습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7. 다음을 보고 내용이 같은 것은?



- ① 관람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콘서트이다.
- ② 두 해 모두 영화를 관람한 비율이 가장 낮다.
- ③ 2011년에는 연극보다 뮤지컬을 더 많이 관람했다.
- ④ 2012년에는 연극보다 콘서트를 관람한 사람이 적었다.

7번 문항은 공연 관람 내용을 통계 그래프로 제시한 것으로 사실 영역의 난이도 ‘중’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35.3%로 전체 20문항 중 열다섯 번째의 아주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예비 조사 시에도 그래프나 통계가 나온 문항에 대해서 농인 응답자들은 낮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연구원 회의를 통해 도표나 통계표에 대한 이해 역시 문해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하여 설문지 문항에 포함시켰다.

보기 문항에서 정답은 ①인데, 오답 중에서는 ②번이 24%의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보기 문항 ②번의 내용을 보면 ‘영화를 관람한 비율이 가장 낮다’로 그래프상에서 아주 뚜렷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②번이 틀린 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많은 농인 응답자들은 ②번이 옳바르다고 선택했다. 7번 문항의 정답률이 낮은 원인으로 다음의 사실을 가정해 볼 수 있다.

- 농인들은 같은 시각 자료이더라도 그림이나 사진보다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다.
- 그래프를 설명하는 보기의 문장이 많은 정보를 한 문장에 담고 있다.
- 그래프를 설명하는 보기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을 비교하는 문장이다.

8. 다음 안내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방과후공부방』
아동모집 안내

♡ 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
♡ 교육료 : 40,000원(1개월) / 교재비 별도
♡ 시간 : 월~금 / 오후 2시~오후 5시
↳ 차량은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 프로그램 : 기초학습지도, 종이접기, 양-교실, 독서지도 및 논술, 예술교육,
판문교실, 문화체험(영화상영, 체험학습참여 등), 간식제공 등
※ 교재는 두산동아인 빅참이는평가 & 빅참이는 수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의 혜택이 있으니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① 교육료는 내지만 교재비는 무료입니다.
- ②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③ 매일 5시간씩 가르칩니다.
- ④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교육료가 없습니다.

8번 문항은 안내문의 내용으로 사실 영역의 난이도 ‘중’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39.5%로 전체 20문항 중 열두 번째의 정답률을 보였다. 8번 문항의 정답률은 설정했던 난이도에 따른 예상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긴 텍스트인 점을 감안하면 정답률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이 대부분 긴 문장 형식이 아닌 단어의 나열이라는 점이 농인들이 이해하는 데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 아래 기사를 읽고 ㉠,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결혼 조건 1순위! 남자가 갖출 조건 ㉠, 여자가 갖출 조건 ㉡

결혼 조건 1순위에 대한 결과가 성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났다.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력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성격을 중시하였으며, 그 뒤로는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 직업을 꼽았다. 남자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배우자의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격 좋아야한다고 말하는 남자들이 많았다.

- | | | | |
|------|----|-------|-----|
| ㉠ | ㉡ | ㉠ | ㉡ |
| ① 외모 | 성격 | ② 외모 | 경제력 |
| ③ 성격 | 외모 | ④ 경제력 | 외모 |

9번 문항은 결혼 내용의 신문기사로 사실 영역의 난이도 ‘중’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25.7%로 전체 20 문항 중 열여덟 번째의 아주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정답은 보기 문항에서 ④번인데, 응답자들은 가장 많은 오답으로 ②번을 선택했다. ②번 오답률은 정답률보다 높은 30%에 이른다. 처음 설문지 문항을 작성했을 때 9번 문항의 질문 조건은 ‘남자가 원하는 조건’, ‘여자가 원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연구단 회의를 거쳐 이러한 질문이 응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남자가 갖출 조건’, ‘여자가 갖출 조건’으로 질문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꾼 질문이 응답자들에게 더 혼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인으로 몇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다.

- 농인들은 텍스트의 서술 방식과 질문의 서술 방식이 다를 때 텍스트의 서술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농인들은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했다기보다 전체 문맥의 의미 위주로 글을 파악했다.
- ‘갖추다’라는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10. 다음 정보를 보고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열차 안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 ② 노약자에게는 자리를 양보합니다.
- ③ 다리는 벌리지 않고 앉습니다.
- ④ 먼저 탄 후에 내립니다.

10번 문항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주제로 한 글로 사실 영역의 난이도 ‘중’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58.7%로 전체 20 개의 문항 중 일곱 번째 정답률을 보였다. 10번 문항은 난이도 ‘중’으로 분류된 문항 가운데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10번 문항을 사실 영역에서 난이도 ‘중’으로 분류한 이유는 주어진 텍스트의 문장 형식과 보기 문항의 문장 형식이 다르며 또한, 보기 문항에서 다른 어휘를 사용하여 설명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이도에 대한 이런 예측과 달리 농인 응답자들은 비교적 쉽게 정답을 찾아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주어진 텍스트의 글이 온전한 문장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 사실적인 그림 정보가 제공되었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상식적인 내용이다.

1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차는 한 시간을 달리면 무려 1만 8600칼로리를 소비한다. 같은 시간에 자전거는 350칼로리를, 그것도 허리둘레에 끼인 지방을 소비한다. 자동차로 운전하는 거리의 80퍼센트가 집에서 13킬로미터 이내에 집중된다. 몸무게 70킬로그램 한 사람을 나르기 위해 300마력을 내는 2000킬로그램 과물을 움직이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 ① 운동을 위해 자전거를 타자.
- ② 자동차를 타지 말고 자전거만 타자.
- ③ 아무리 먼 거리라도 자동차를 타지 말자.
- ④ 자동차를 타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한다.

11번 문항은 주장하는 내용의 글로 추론 영역의 난이도 ‘중’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36.5%로 전체 20 문항 중 열네 번째의 정답률을 보였다. 11번 문항은 추론적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응답자는 제시된 텍스트의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하는 바를 추론해내야 한다.

12. 다음 광고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은 칫솔 통에서만 만납니다!

아빠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는 집안 일을 이유로...
동생은 고3이라는 특혜(?)로...
아침마다 복적이지만...

- ① 현대인은 바쁘다.
- ② 가족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
- ③ 욕실이 가족의 중심 공간이다.
- ④ 칫솔 통에서라도 만나서 다행이다.

12번 문항은 가족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광고로 추론 영역의 난이도 ‘중’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46.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같은 추론 과정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해야 하는 11번과 달리 12번 문항은 그림 자료를 보여 주고 있으며 문장 또한 짧고 쉬운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높은 정답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13. 다음은 신문기사의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여행 성수기, 비행기 표 구입 ‘하늘의 별 따기’

- ① 여행객이 늘어나 순식간에 비행기 표가 다 팔렸다.
- ② 여행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비행기 표 가격이 많이 올랐다.
- ③ 같은 기간에 여행을 가려는 사람이 많아 비행기 표가 부족하다.
- ④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시기여서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

13번 문항은 여행에 관한 신문기사로 추론 영역의 난이도 ‘중’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49.1%로 높게 나타났다. 주어진 텍스트는 신문기사의 제목이고 설문 응답자는 기사 제목을 통해 어떤 내용의 기사일지 추론해내야 한다. 일단, 이 문항은 텍스트의 길이가 짧은 것이 정답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높은 정답률은 농인들이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관용적 비유 표현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4.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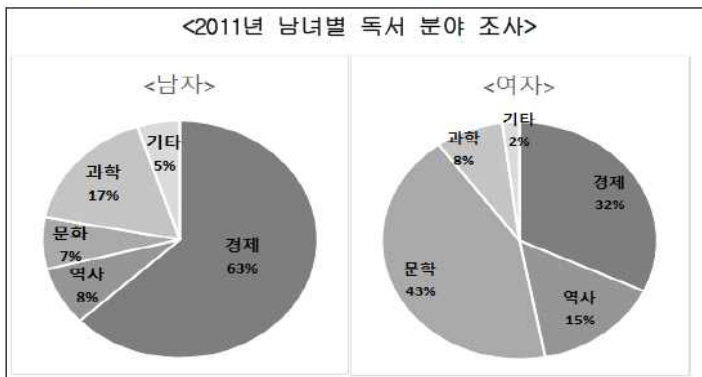


함께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팔을 벽에 긁기 시작하면 어쩐지 나도 간지러워져 따라 긁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영국의 한 연구팀은 가려움증도 하품처럼 옮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가려움에 전염되면 뇌는 실제로 피부가 붓고 열이 나는 것으로 인식해 가려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누가 더 가려움에 잘 전염될까? 하품이나 웃음의 경우 공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전염되는 데 반해 가려움은 신경질이 심한 사람일수록 더 잘 전염된다.

- ① 신경질이 심한 사람은 피부가 붓는다.
- ②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가려움을 함께 느낀다.
- ③ 웃음과 하품에 쉽게 전염되는 사람은 가려움에도 쉽게 전염된다.
- ④ 가려움에 전염되면 직접적인 피부 자극이 없어도 가렵다고 느낀다.

14번 문항은 의학 상식을 소개하는 글로 사실 영역의 난이도 ‘상’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22.8%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14번 문항은 긴 텍스트에 난이도가 높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은 예비 조사에서 정답률이 낮아 문항의 변별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해력이 높은 농인들 간의 정도성의 차이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설문 문항으로 최종 결정한 문항이다.


15. 다음 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서 분야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
- ② 남자는 과학보다 역사에 관심이 더 많다.
- ③ 남자가 여자보다 경제에 관한 책을 더 많이 읽는다.
- ④ 여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문학이다.

15번 문항은 독서분야에 관한 통계표로 사실 영역의 난이도 ‘중’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55.1%로 전체 20 문항 중 여덟 번째 정답률을 보였다. 설문지 문항 20문항 중에 통계 자료는 7번 문항과 15번 문항이 있는데, 7번 문항의 정답률은 35.3%인데 반해 15번 문항의 정답률은 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둘 다 사실 영역의 난이도 ‘중’으로 분류는 했지만 7번 문항의 난이도가 더 높다. 보기 문항이 더 길고 복잡하며 그래프도에서도 비교 기준이 더 많다. 문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난이도에 비례해 농인 응답자의 정답률도 비례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6. 다음 사진에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돈을 물 쓰듯 한다.

②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③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④ 얼마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16번 문항은 공익광고의 내용으로 추론 영역의 난이도 ‘중’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38.3%로 전체 20 문항 중 13번째를 차지한다. 16번 문항은 12번 문항과 비슷한 소재를 써서 응답자로 하여금 추론 과정을 통해 정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텍스트가 없이 사진 자료만을 보고 보기 문장 중에 사진과 어울리는 문장을 찾는다는 점에서 변별성이 있다. 보기의 문항도 비유적인 문장을 사용해서 좀 더 깊은 추론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16번의 정답률이 12번의 정답률보다 낮다고 판단된다.

17. 다음 글에 대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보 등산 모임

- . 산행 장소: 지리산
- . 모이는 때: 10월 20일(일) 04:00
- . 모이는 곳: 터미널 앞
- . 회 비: 5,000원
- ※ 점심은 산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 ① 지리산은 위험하지 않을까?
- ② 수영복을 준비해야 하나?
- ③ 회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 ④ 국립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되나?

17번 문항은 산행 안내문으로서 비판 영역의 난이도 ‘하’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62.9%로 전체 20문항 중 4번째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 문항에서는 주어진 사실 텍스트를 적절히 비판하고 있는 보기 문항을 고르는 것이 과제이다. 텍스트와 보기 문항이 단어와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인 응답자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8. 다음 글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존의 이유

조병화

깊이 사귀지 마세. / 작별이 잦은 우리들의 생애,
가벼운 정도로 / 사귀세.
악수가 서로 짐이 되면 / 작별을 하세
어려운 말로 / 이야기하지 / 얹기로 하세.
(중략)
작별이 올 때 /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사귀세.

- ① 가능하면 가볍게 사귀자.
- ② 결국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다.
- ③ 사람 사이에는 항상 거리가 필요하다.
- ④ 작별이 잦은 만큼 더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

18번 문항은 시문학으로서 비판 영역의 난이도 ‘상’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33.5%로 이 문항의 난이도가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번 문항에서 주어진 텍스트를 읽어도 표면적으로 보기의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시의 내용이 의도하고자 한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농인들의 문해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인들의 문해력의 특성을 알아볼 목적으로 설문지 문항에 추가한 것이다. 비교 대상으로서 살펴볼 수 있는 청인 중고등학생 16명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8 번 문항의 정답률은 13%에 그쳤다. 청인 학생들의 전체 문해력 점수가 농인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예상 밖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같은 연령과 학력의 성심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답률이 36.4%로 전체 정답률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조심스럽게나마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농인들은 부족한 어휘력에도 불구하고 문맥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 성인 농인의 문해력 수준이 청인 초등학교 2~5학년 수준이라는 기존의 논의는 어휘력과 사실 정보에 지나치게 기댄 공정하지 않은 평가일 가능성이 있다.

19.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빈벌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벌이라면, 근로기준법은 고용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따라서 근로 기준법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맺어진 어떤 약속이나 계약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근로자가 입사 당시에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에는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제28조)이 있기 때문에 그 서약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 ① 근로 기준법의 제정 과정
- ② 근로 기준법의 기본 목적
- ③ 근로 기준법의 제정 동기
- ④ 근로 기준법의 문제점

19번 문항은 법률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추론 영역의 난이도 ‘상’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33.5%로 낮게 나타났다. 이 문항은 제시된 텍스트의 사실 정보를 토대로 추론하여 주제를 찾아내는 문항이다. 응답자는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어휘력, 문장력과 추론 능력까지 사용해야하므로 낮은 정답률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20. 다음 책소개 글과 내용이 같은 것은?



철학자 아버지의 인문교육

저/역자	권영민
출판사	청년출판 주주빌
출판일	2013.07.25
총페이지	272쪽
가격	14,000원
추천자	박인철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일반적인 태도로부터 벗어나 아기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생생한 일들을 단순히 지나쳐 보내지 않고 철학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음미한다. 일상사를, 그것도 육아의 문제를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틀로 탐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저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사소한 일들을 한편으로는 아이의 시선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빠의 시선에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양한 철학 이론과 접목시켜 재해석해본다.

- ① 이 책은 번역서이다.
- ② 이 책은 철학 연구를 위한 책이다.
- ③ 저자는 육아에서 감정적 행동을 강조한다.
- ④ 저자는 지나치기 쉬운 일도 철학적으로 생각한다.

20번 문항은 책을 소개하는 내용의 글로 사실 영역의 난이도 ‘상’에 해당한다. 정답률은 16.8%로 전체 20 문항 중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 문항은 책에 대한 소개글을 읽고 보기에서 올바른 사실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요구한다. 정답률이 낮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제시된 텍스트의 양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번 문항의 제시문의 양도 많고 난이도도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텍스트의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답률이 낮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개별 어휘의 난이도가 더 높은 것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더 쉬운 텍스트인 14번 문항의 정답률도 무척 낮았다는 점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텍스트의 양이 많을수록 정답률이 낮다.
- 난이도가 같을 때 사실 영역의 문항은 추론 영역의 문항보다 정답률이 낮다.

5.3.3. 영역별 점수 분포

평가 영역은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사실적 이해의 문항은 제시된 언어 자료나 도식을 바탕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추론적 이해를 묻는 문항은 어

떤 정보가 제시된 자료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보들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비판적 이해를 묻는 문항은 제시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잘못된 정보의 도출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총 20개의 문항 중 사실적 이해는 11개 문항(55%), 추론적 이해는 7개 문항(35%) 비판적 이해는 2개 문항(10%)이다.

영역별로 볼 때 추론 영역의 정답률이 52%로 가장 높았으며 사실은 45%, 비판은 43%를 나타냈다. 그래프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 영역별 정답률

추론 영역의 정답률이 사실 영역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온 결과는 청인을 대상으로 한 국립국어원(2008) 문해력 조사에서 사실 영역의 정답률이 추론 영역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왔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사실 영역의 점수와 추론 영역의 점수 차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 사실 영역과 추론 영역의 차이

점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p
사실점수	167	44.86	22.78	166	4.773	0.001**
추론점수	167	52.27	22.16			

* $p < 0.05$ ** $p < 0.01$

위 표에서 p값은 유의확률로 일반적으로 이 값이 0.05보다 작으면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다는 의미(차이가 의미가 있다)가 된다. 그리고 0.01보다 작을 시에는 그 차이가 매우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 표의 p값은 0.001이므로 0.01보다도 작기 때문에 차이가 매우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⁹⁾

9) 이 분석은 통계 분석 전문가(안정룡, 전북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의 자문을 거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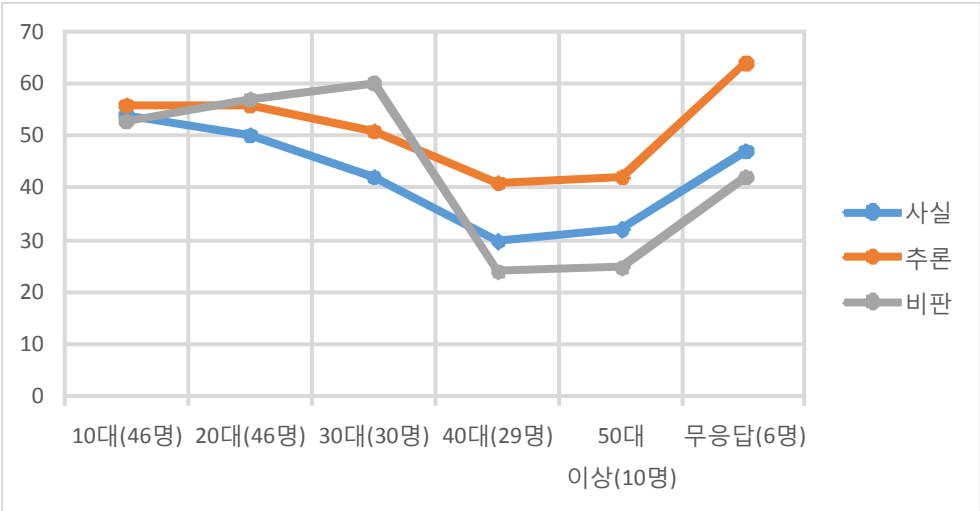
농인의 문해력 조사에서 추론 영역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로 몇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 농인의 언어인 수화는 문법 형태소가 거의 없이 적은 어휘수로 모든 언어적 표현을 생성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수화를 이해하기 위해 추론 능력이 발달했다.
- 농인의 국어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담화 생성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별 어휘의 의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사실 영역의 문제보다, 추론 영역의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다.

<표 3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영역별 문해력 점수

구분		사실	추론	비판
전체		45	52	48
연령	10대(46명)	54	56	53
	20대(46명)	50	56	57
	30대(30명)	42	51	60
	40대(29명)	30	41	24
	50대(9명)	35	46	28
	70대(1명)	9	14	0
	무응답(6명)	47	64	42
학력	초졸(5명)	24	29	10
	중재(9명)	68	70	72
	중졸(11명)	18	31	9
	고재(35명)	50	54	50
	고졸(74명)	42	50	49
	대재(18명)	61	62	56
	대졸(7명)	38	55	71
	무응답(8명)	44	62	44
성적 등급	상위 25%(42명)	74	74	62
	하위 25%(42명)	19	30	17
소속 집단별	회사(30명)	50	53	55
	종교기관(95명)	40	50	44
	농학교(42명)	51	56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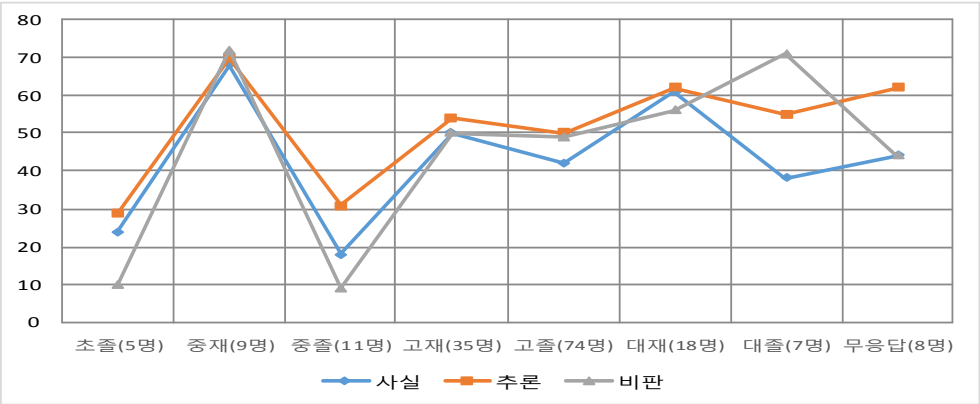
5. 농인의 문해력 설문 조사



<그림 24> 연령에 따른 영역별 점수

연령에 따른 영역별 문해력 점수를 보면 10대는 사실과 추론 영역의 점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추론 영역의 점수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0대와 30대를 비교해 보면 추론 영역의 점수가 조금 떨어진 것과 달리 사실 영역의 점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추론 영역의 점수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사실 영역의 점수가 낮아졌다고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사실과 추론 영역 모두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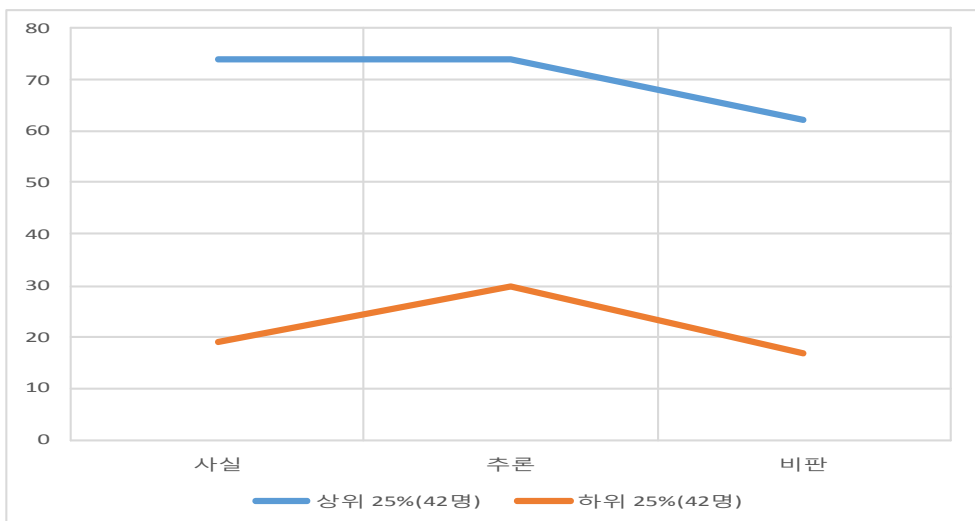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영역별 점수 분포를 살펴보자.



<그림 25> 학력에 따른 영역별 점수

학력에 따른 영역별 점수에서 주목되는 점은 중졸, 고졸, 대졸 등의 학력을 가진 성인 농인들은 사실 영역과 추론 영역에서 큰 점수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중재, 고재, 대재 학력을 가진 학생들은 사실과 추론 영역에서 점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농인들이 학교를 졸업 후 사실 정보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역으로 성인 농인의 문해교육이 성인 청인을 대상으로한 문해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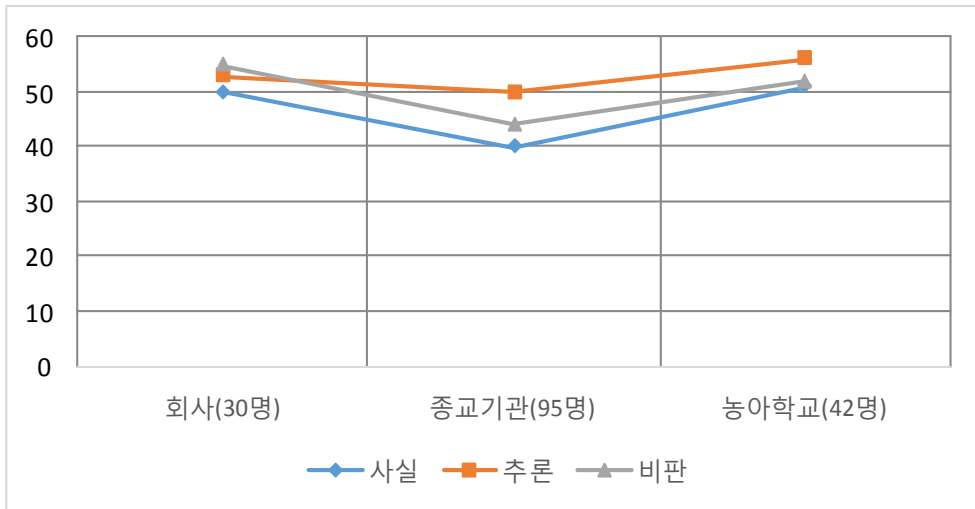
다음으로 성적 등급에 따른 영역별 점수분포를 살펴보자.



<그림 26> 성적 등급에 따른 영역별 점수

성적 등급에 따른 영역별 점수의 경우에는 상위 25%는 사실과 추론 점수의 차이가 없지만, 하위 25%는 사실과 추론의 점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점수별 하위 25% 응답자들의 사실 정보 정답률은 추론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다. 추론의 정답률은 (74 → 30)을 나타내지만, 사실 정보의 경우 (74 → 19)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소속 집단에 따른 영역별 점수 분포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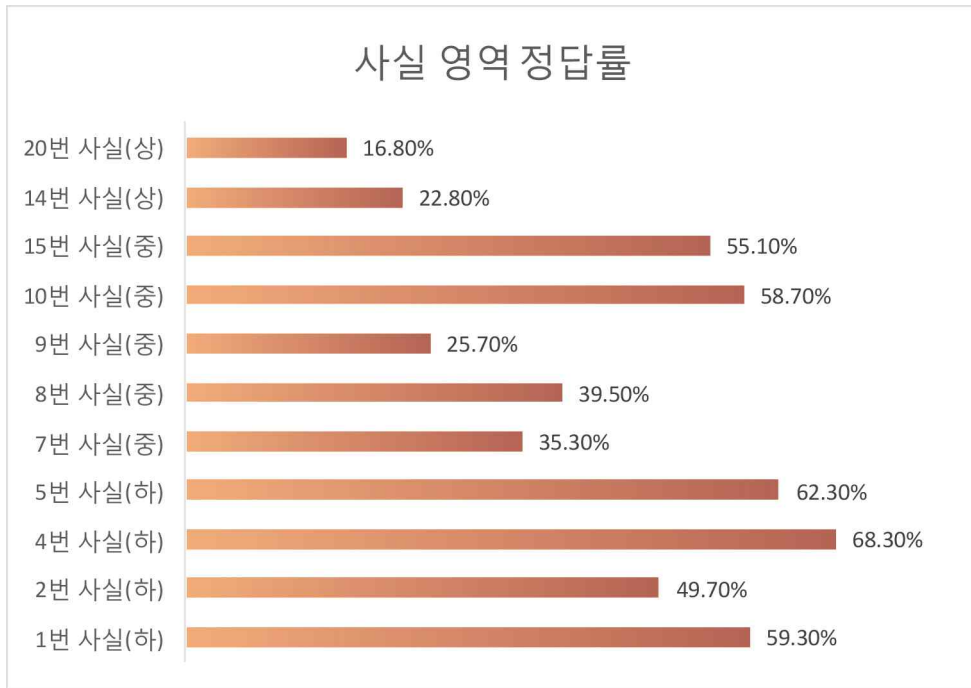


<그림 27> 소속 집단에 따른 영역별 점수

소속 집단에 따른 영역별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회사에 소속된 응답자들은 추론에서 다소 높은 정답률을 보이지만 사실, 추론, 비판의 정답률이 고른 양상을 보였고, 농학교도 양상은 비슷했다. 하지만 종교 기관에 소속된 응답자들은 사실과 추론의 정답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소속 집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의 연령은 20대였고, 농학교는 10대였으므로 중장년층 응답자 전부는 종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5.3.3.1. 사실 정보

사실 정보는 응답자가 문항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사실 정보에 해당하는 문항은 총 11문항으로 난이도에 따라 하(4문항), 중(5문항), 상(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상에 해당하는 문항은 예비조사 결과 변별력이 부족하여 문항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검토하였지만 본 연구가 양적인 연구보다 질적인 연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필수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8> 사실 영역 정답률

위 표가 연구단 회의에서 가정한 난이도 예측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래프가 ‘하’에서 ‘상’으로 갈수록 정답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하’와 ‘중’ 난이도의 변별력이 뚜렷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래프 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가정하고 7번과 15번을 난이도 ‘중’으로 설정하였는데, 7번의 경우는 예상 결과가 나왔지만 15번의 경우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사실 정보 2번 문항의 경우 10번이나 15번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사실 정보를 물어보는 방식 즉, 질문의 유형에 따라 정답률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정보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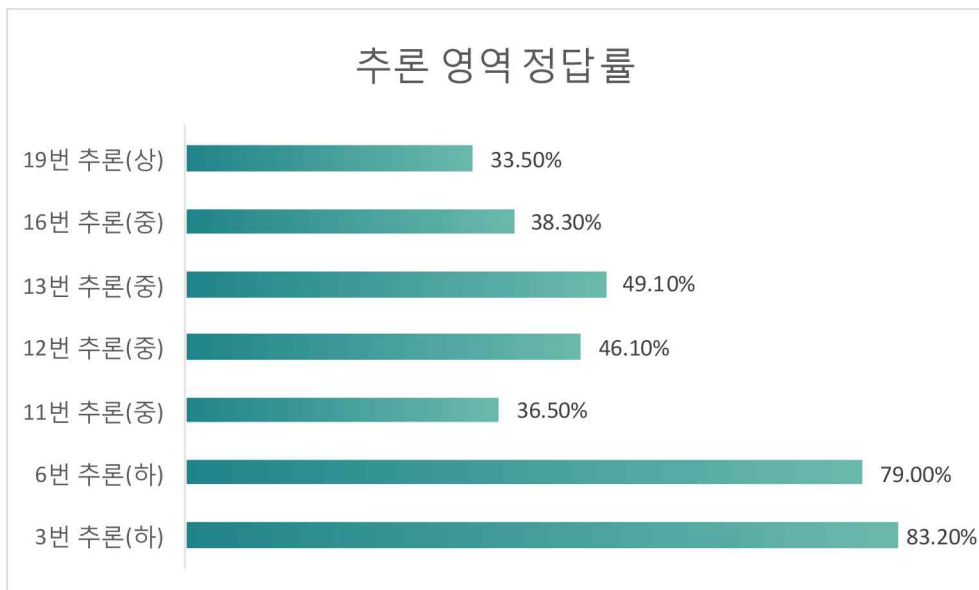
- 텍스트가 길수록 정답률이 떨어진다.
- 주어진 텍스트와 같은 어휘와 문장형을 사용해서 물어볼 때보다 다른 어휘와 문장형으로 물어볼 때 정답률이 떨어진다.
- 주어진 텍스트가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진 경우보다 명사나 구 단위로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정답률이 올라간다.
- 문장의 의미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자료의 도움이 있을 때 정답률이 올라간다.

- 모든 시각적 자료가 농인의 문해력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프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복합적일 때 오히려 정답률은 떨어진다.
- 질문이 '내용과 같은 것'을 찾을 것을 요구하거나 '내용과 다른 것'을 찾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답률의 차이를 가져오지 못한다.
- 친근하고 익숙한 소재가 사용된 텍스트의 경우 정답률은 높지만 텍스트의 내용이 상식과 조금 다를 경우 정답률이 떨어진다. 즉, 농인들은 텍스트의 문자적 의미보다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의미로 글을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5.3.3.2. 추론 정보

추론 정보는 응답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사실 정보를 토대로 추론의 과정을 거쳐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추론 정보에 해당하는 문항은 총 7문항으로 난이도에 따라 하(2문항), 중(4문항), 상(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추론 정보를 담고 있는 문항별 정답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9> 추론 영역 정답률

추론은 예측된 난이도에 따른 결과를 보여준다. 추론(하)의 경우 전체 20문항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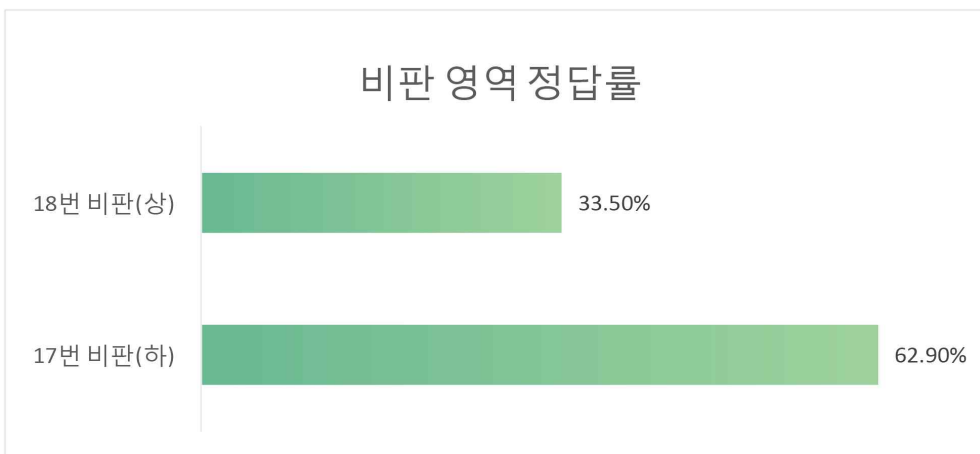
정답률이 가장 높았다. 추론 영역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11번과 19번은 그림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추론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각적 자료의 도움이 있을 때 추론 영역의 정답률이 크게 올라간다.
- 사실 영역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텍스트가 길어질 때 정답률도 떨어진다.
- 농인은 추론 영역에 대한 문해력이 높지만 그걸 증명하는 데 필요한 어휘력과 문장력이 부족하여 실제보다 문해력이 낮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5.3.3.3. 비판 정보

비판 정보는 사실 정보를 토대로 추론의 과정을 거치지만 추론과 달리 주어진 텍스트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이해 과정을 평가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비판 정보에 해당하는 문항은 총 2 문항으로 난이도 하(1문항), 상(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비판 정보는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단계에서 초기에 더 많은 문항수를 평가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였으나 연구단 회의 및 예비조사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문항의 변별력, 추론 영역과의 차별성, 그리고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게 정해지는 문제 등으로 인해 2개 문항으로 축소하게 되었다.

비판 영역에 해당하는 2개 문항의 정답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0> 비판 영역 정답률

17번 문항은 주어진 텍스트가 간단한 어휘만으로 대부분 이루어졌고 이 문항에서 비판의 과정은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답률이 예상대로 높게 나왔다. 하지만 18번의 정답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는 어휘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맥의 의미를 농인 응답자들이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비판 영역의 문항에서 보이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농인은 추론과 비판적 사고 과정을 통해 문맥 의미를 잘 파악한다.
- 문맥 의미를 잘 파악하는 이유로 농인의 언어인 수화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적은 어휘로 언어적 의사소통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추론과 비판 능력이 발달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5.4. 요약

농인의 문해력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67명의 농인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9.6점**(20점 만점)이었다. 이는 비교기준으로 삼은 청인 중.고등학생 16명의 평균점수 **16.7점**에 비해 무척 낮음을 알 수 있다. (청인 초등학생을 비교기준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설문지 문항의 소재와 내용이 성인의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관련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 설문지 정답률을 연령, 학력, 성별로 살펴봤을 때, 연령은 **10~20대**, 학력은 **대재**, 성별은 **남성**의 문해력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특히 고졸보다 고재, 대졸보다 대재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문해력이 높게 나타났다.
- 문해력 점수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읽기 교육 경험**과 **독학**이었다. 부모의 농인 여부, 부모의 수화 가능 여부, 응답자의 수화 능숙도는 문해력과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 사실, 추론, 비판 영역의 문항 중 **추론** 영역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사실 영역과 추론 영역의 점수 차가 커졌다.
- 문해력 점수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짧은 텍스트, 텍스트와 같은 형식의 질문, 명사나 구 단위의 정보, 시각적 자료, 명시적인 그래프, 상식적인 정보 등이었다.
- 농인들이 글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은 높지만 그걸 증명하는 데 필요한 어휘력과 문장력이 부족하여 실제 이해 능력보다 더 낮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6. 사례별 문해력 향상 방안

6.1. 외국 사례 중심

○ 이중언어적 측면

- 수화를 제1 언어로 생각하며, 제1 언어의 습득은 제2 언어의 습득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 제1 언어의 습득은 농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농아동은 주변과 자연스럽게 소통함으로써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 수화법을 사용하지 않고 구화법에 의존할 경우 구화의 획득이 힘들 뿐만 아니라 구화를 획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구화를 획득한 시기까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지체된다.
- 수화법은 농인의 언어로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며, 수화를 사용한 의사소통 능력은 음성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능력과 동일하다.

○ 이중문화적 측면

- 제1 언어의 습득을 돕기 위해서는 제1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필요하다.
- 제1 언어를 습득하여 그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필요하다.
- 일대일 교육방법이나 또래의 숫자가 적은 곳에서는 제1 언어의 자연적인 습득이 어려울 수 있다.
- 농문화의 발달은 농 정체성을 강화하고 농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지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해준다.
- 농문화의 발달과 농문화에 대한 이해는 농인을 병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문화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

○ 어휘력 향상 교육

- 글 속에 있는 전체 단어의 90~95%를 이해하지 못하면 독해력이 지체된다.
- 풍부한 어휘력은 추론하는 것과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게 한다.
- 미국의 문해력 관련 연구 분야에서 어휘 지식과 읽기 이해력 사이에 존재하

는 강한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1. 어휘 교수를 중점으로 하는 학교 수업 프로그램 구안이 필요하다.
2. 다양한 맥락에서 새로운 단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안해야 한다.
3. 동일 어휘를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하여 어휘 사용 경험을 확대하고, 쓰기 활동을 가급적 자주 하여 작문 능력뿐만 아니라 상황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
4. 학생들이 스스로 어휘를 학습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한다.

6.2. 문해교육 기관 사례 중심

○ 농인의 요구 파악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 방식 구성

심층 면담 결과에 근거하면 농인의 요구가 다양한 것에 비하여 교육프로그램은 제한적이어서 농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습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 및 단계별 교육 목표 설정

기관 조사와 심층 면담에 의하면 같은 프로그램이 매년 반복 진행되고 있으며, 농인의 문해력 차이가 있고 그에 대한 농인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휘 수준에서 일상적 소통이 가능한 정도만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수준이 발전함에 따른 차등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 문해교육과 수화 교육의 병행

기관 조사 결과 문해교육 교수자는 거의 대부분 수화 가능자인 것을 보아 한국어 문해교육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은 수화로 소통을 하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으며, 심층 면담에서도 학생이 수맹자인 농인이라 할지라도 농인에게 결국은 제1 언어 역할을 하는 것은 수화이기 때문에 수화로 인지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농인 문해교육 전문가들의 언급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 농인들과 마주치는 농인 문해교육 전문가들의 오랜 경험과 관찰에 의하면 농인들의 수화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 문장 이해 정도가 좋고 빠르다고 한다.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 문해교육에 있어서 교실언어는 목표어인 한국어가 아니라 제1 언어인 수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수화에 능통한 교수자 임용

농인의 한국어 문해교육 교수자는 반드시 수화에 능통한 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 단계별 농·청인 교수자 배치: 단계가 높아질수록 청인 교수자 적합

수화통역센터 심층 면담 기관 두 곳 모두 농인 교수자였으며 그들이 부딪치는 한계점이 있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단계가 높아질수록 한국어 전문가가 교수하는 것이 좋으므로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뛰어난 청인 교수자. 특히 한국어 전공자가 좋을 듯하다. 초급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학생과 교수자 사이의 동질감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제1 언어인 수화에 능통하여 한국어에 대하여 전달받을 때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자의 능력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 수화의 언어적 특성과 농인의 사회화를 고려한 청인 보조 교사 배치

수화는 시각 언어이며, 상황 맥락적 요소가 음성언어보다 강하기 때문에 일대다의 교실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대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모든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교실 상황이 되려면 한 명의 교수자만 있는 것보다는 다수의 교수자가 존재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농학생과 청인 보조 교사의 교류를 교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형성한다면 농인들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 국가나 행정당국의 인식 변화를 통한 지원 확대

심층 면담을 진행한 기관의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 가장 큰 문제로 국가나 행정당국과의 의견 차이이다. 일례로 농인들은 평생 교육이나 야학과 거리가 먼 존재로서, 그런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단정 짓는 인식 때문에 강사비 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의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 농인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

시각 자료 활용, 어휘 위주의 구성, 단문 위주의 예문 구성, 의성·의태어 교육의 간소화, ‘읽어 봅시다’와 같은 청인 입장의 용어 사용 자제 등이 필요하다.

○ 단계별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단계별 교재 개발

언어 교육에 있어서 각 수준별 프로그램에 맞는 교재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처사이다.

○ 농인이 한 시간에 소화 가능한 분량으로 구성된 교재 개발

안동시 수화통역센터의 심층 면담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농인들이 한국어 교육 한 시간을 받을 때 농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량은 두 개 정도라고 한다. 이는 음성언어체계로 구성된 한국어를 시각언어체계인 한국 수화로 바꾸어 인지하고 서로의 관련성을 완전히 파악하기까지는 목표 어휘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예문에 대해 수화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 차례 복습하는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해당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이다.

○ 농인에게 적합한 교구 개발: 전자책, 동영상 교재 등

농인은 시각 정보에 민감하므로 생동감 있는 정보들을 통하여 교육적 효과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농인과 청인의 교류를 장려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화창 채팅창을 활용한 프로그램

청인과의 필담을 통한 교류는 농·청인 서로가 서로에게 갖고 있던 잘못된 인식을 자연스럽게 바꾸어줄 수 있는 장이 된다. 이는 농인의 사회화에 적극적 동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필담’이라는 것 자체가 농인의 제2 언어인 한국어 사용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피드백을 통하여 문해능력 또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요구와 시대적 상황에 맞는 대화창과 채팅창의 사용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좋은 교육 도구이자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성인 농인을 위한 소재로 구성된 교재 개발

기관 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자체 제작보다는 시판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시판 교재 중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미취학 아동의 한글 및 수학 교육에 관련한 책이다. 이는 기관 문해교육 현황 조사에서 대부분 성인 농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점과, 심층 면담이 이루어진 조사기관에서도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성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교재와 학생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안동시 수화통역센터와 완주군 수화통역센터에서의 심층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교재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내용상 유치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파악한 바 있다.

6.3. 설문 조사 결과 중심

○ 농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167명의 농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점수는 평균 9.6점(20점 만점)으로 청인 중.고등학생 16명의 평균 점수 16.7점과 비교할 때 무척 낮은 점수였다. 농인에게 문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똑같은 교육을 받은 청인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사실을 통해 농인을 위한 체계화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평생 교육으로서의 문해교육 지속

설문 응답자의 학력별 비교에서 고졸보다 고재, 대졸보다 대재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문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농인은 청인에 비해 학교 졸업 후 문해 능력을 키울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고 그로 인해 문해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인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졸업 후 지속적인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사실 정보 위주의 문해교육

설문지 문항은 사실과 추론, 비판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정답률을 비교하였을 때 사실 영역보다 추론.비판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추론 영역에 비해 사실 영역에 관련된 문해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인을 위한 문해교육에서 사실 정보를 파악하는 훈련이 더 강조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화 구사 능력을 통해 추론 능력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사실 정보를 파악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교재 구성에서는 사실 정보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하되, 교수자는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사실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의 문해교육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 함을 가리키기도 한다.

○ 농인의 문해력 특성을 반영한 교재 개발

문해력 설문지 분석 결과, 농인의 문해력 평가에 영향을 준 요인은 텍스트의 길이, 질문의 유형, 명사나 구 단위의 정보 제시, 시각적 자료의 형태 및 유무, 도표나 그래프, 배경지식의 활용 등이었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반영하여 농인에게 적합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장 정보보다 단어나 구 정보에 익숙한 농인을 위해 단어를 통한 문

장 학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되, 시각 자료의 유형을 사실 묘사 자료 및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 등으로 세분하여 농인들이 다양한 형식의 시각자료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한다.

○ 농인을 위한 문해력 평가 도구의 개발

청인과 비교하여 고졸 이상의 농인의 문해력 수준을 청인 초등학교 2~4학년 학생의 수준으로 평가하는 기존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문해력 측정 도구가 청인과 변별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설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맥적 의미 파악 능력 면에서 고졸 학력의 농인 응답자들은 청인 중.고등학생보다 높은 문해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인들의 문해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농인의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7. 제언

이 장에서는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 전국 문해교육 실태 조사 및 심층 면담과 농인의 문해력 설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자, 교재, 교육 프로그램, 제도 정비 및 행정 지원의 4 가지 관점에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

7.1. 교수자

(1) 수화 능통 교수자

- (가) 학습자인 농인의 제1 언어가 수화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
- (나) 효과적인 문해교육을 위해서는 수화로 교수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다) 한국어 문해교육 교수자는 반드시 수화에 능통해야 한다.

(2) 농인·청인 교수자의 협업 필요

- (가) 농인과 청인 교수자의 상호 보완적인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 교육 단계에 따라 농인·청인 교수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 (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청인 교수자 위주의 배치가 적합하다.
- (라) 단계마다 농지원교사(DST, Deaf Support Tutor)를 배치한다.

(3) 상황에 따른 문형구성 및 이해능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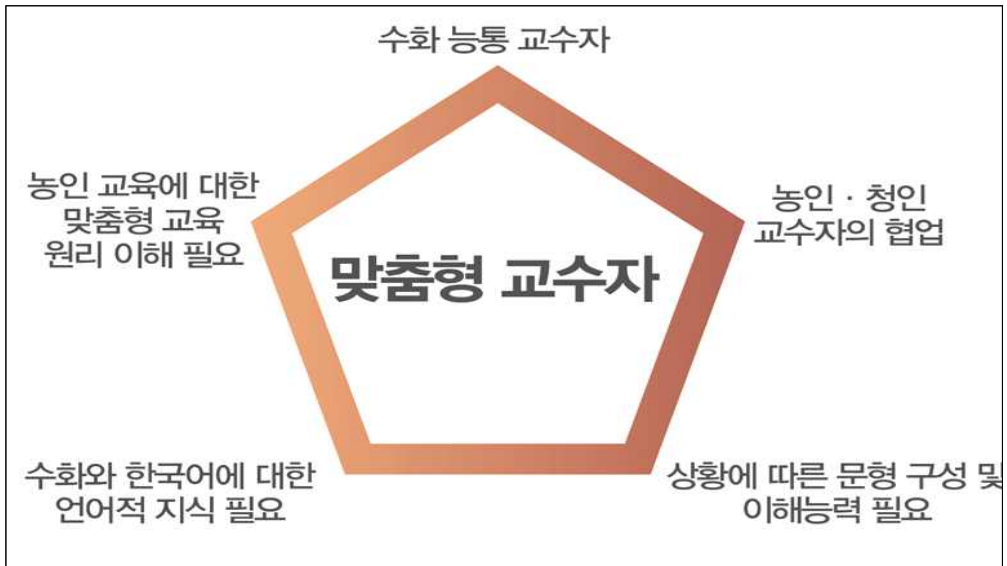
- (가) 교수자의 질문에 따라 문해교육 성취도가 크게 달라짐을 이해해야 한다.
- (나) 주어진 텍스트를 분석하여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동일한 상황이나 문형을 반복적으로 연습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수화와 한국어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 필요

- (가) 교수 언어인 수화의 언어학적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나) 교육 대상 언어인 한국어의 언어학적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다) 수화와 한국어의 언어학적 체계에 대한 상호 대조가 필요하다.

(5) 농인 맞춤형 교육의 원리 이해 필요

- (가) 농교육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나) 언어교육에서 표현교육과 이해교육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 (다) 이해교육 위주의 농인 맞춤 문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7.2. 교재

(1) 멀티미디어 교재

- (가) 텍스트 위주보다는 시각적인 정보가 많이 사용된 교재가 좋다.
- (나) 전자책이나 사이버 공간의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좋다.

(2) 수준별 교재

- (가)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 (나) 초급 단계에서는 텍스트보다 시각 정보가 많은 교재가 좋다.
- (다) 고급 단계로 갈수록 시각 정보는 줄이고 문자 해독력을 높이는 교재가 좋다.
- (라) 명시적 그래프(초급)와 정보복합적 그래프 및 글과 병행하는 그래프(고급)의 단계적으로 구성된 교재가 좋다.

(3) 짧은 텍스트의 교재

- (가) 텍스트가 가능한 한 짧은 교재가 좋다.
- (나) 같은 어휘의 반복이 많고 짧은 문장을 활용한 교재가 좋다.
- (다) 단어에서 문장으로의 확장을 보여주는 교재가 좋다.
- (라) 어휘력의 향상을 유도하는 교재가 좋다.
- (마) 단문 구조를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좋다.

(바) 분량이 단위 시간에 학습하기에 적합한 교재가 좋다.

(4) 수화체계를 고려한 교재

(가) 체언(명사)에서 시작하여 점차 용언을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좋다.

(나) 체언의 조사 사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좋다.

(다)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에 대하여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좋다.

(라) 단어 간 관계를 활용하는 의미장을 통해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교재가 좋다.

(마) 사실정보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실정보 어휘를 연습할 수 있는 교재가 좋다.

(5) 농인의 인지적 능력을 고려한 교재

(가) 농인 성인을 위한 소재로 구성된 교재가 좋다.

(나) 유아용 어휘보다는 일상적 어휘가 사용된 교재가 좋다.

(다) 문화나 맥락을 활용하는 속담이나 격언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좋다.

(6) 익숙한 소재를 활용한 교재

(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분야의 자료를 활용하는 교재가 좋다.

(나) 상식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어휘나 문장을 연습할 수 있는 교재가 좋다.

(다) 익숙한 어휘와 문장을 활용한 교재가 좋다.



7.3. 교육 프로그램

(1)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 (가) 학습자인 농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 (나) 지역적,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 (다) 농인의 사회적 역할 및 분야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2) 단계별 교육 목표를 반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 (가) 초급 단계에서는 한글 및 기본 문형을 습득함으로써 문자를 통해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본적 문해력의 구비를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
- (나) 중급 단계에서는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접하게 되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문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맥락적 문해력의 구비를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
- (다) 고급 단계에서는 전문 분야의 내용을 다루거나 정보복합적인 자료의 해석 등을 통해 전문복합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석적 문해력의 구비를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

(3) 수화교육과 병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 (가) 농교육은 수화로 교수가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다.
- (나) 농인의 수화능력은 연령, 학력,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하다.
- (다) 효과적인 문해교육을 위해 수화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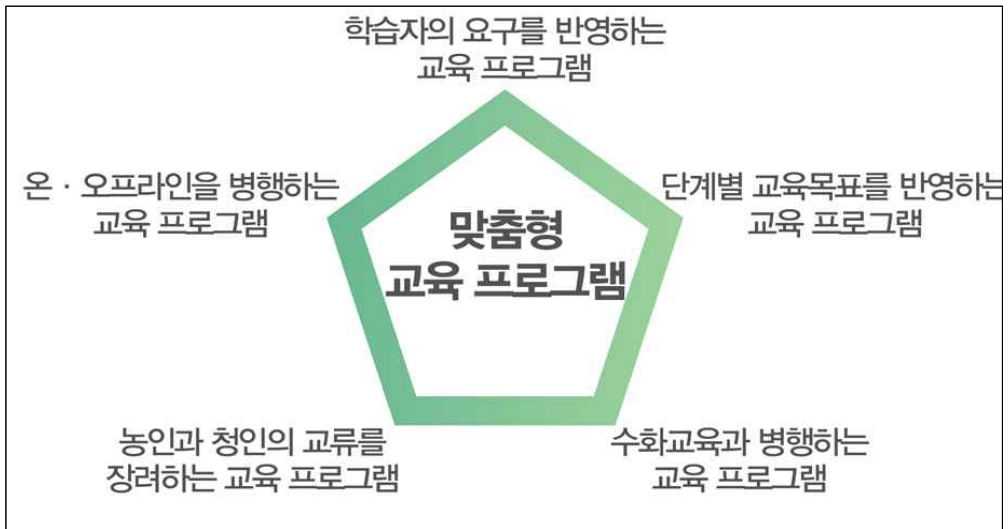
(4) 농인과 청인의 교류를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

- (가) 청인과의 교류가 활발한 교육 프로그램에 농인의 참여도가 높다.
- (나) 농인과 청인 사이에 필담을 주고받는 교육 프로그램은 농인과 청인의 상호인식을 높여준다.
- (다) 청인과의 교류 도구로 활용되는 한국어 사용은 자연스럽게 농인의 문해력을 높여준다.

(5)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 (가) 대화창이나 문자메시지 등 문해력이 필요한 매체를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

(나) 이메일이나 SNS 등 새로운 기기를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



7.4. 제도 정비 및 행정 지원

(1) 수화법의 제정

- (가) 수화법의 제정은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의 기초가 된다.
- (나) 농인의 정체성 및 수화의 정당성 확립은 농인의 올바른 국어 습득의 기초가 된다.
- (다)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실행의 기초가 된다.
- (라) 농교육을 포괄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전문 교사의 양성, 연구 및 교육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기초가 된다.

(2)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

- (가) 농인의 문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 (나) 수화와 한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 (다) 수화 가능자에게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라) 한국어 전공자에게 수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마) 수화통역사와 구별되는, 전문적인 농교육 전문 교사 인증 체계가 필요하다.

(3) 농교육자 처우 개선

- (가) 농교육자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 농교육자의 처우와 관련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 (다) 농교육자에게 전문적인 교사로서의 자격을 인증할 필요가 있다.

(4)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가) 재학 중보다 졸업 후에 농인의 문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 (나)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문해력의 감소를 막을 필요가 있다.
- (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농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5) 농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 (가) 농인 및 수화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나) 행정 당국 및 국가 기관에서 농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다) 농교육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 체계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6) 중장년층 문해교육 강화 방안

- (가) 농인의 문해력은 40대 이상에서 급격히 떨어진다.
- (나) 농인의 문해력 교육은 40~50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다) 중장년층 농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문법론, 집문당.
- 고인경(2010), 한국과 뉴질랜드의 수어 관련 정책 고찰,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곽정란·정운기·김경진(2004), 농인의 관점에서 본 농교육의 전환, 특수교육연구 제 11권 제2호.
-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0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09),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연구, 애드피아.
-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13),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2014),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 공청회 자료.
- 국립특수교육원(2008), 청각장애학생의 교육 및 청능재활의 적용 실제, 제15회 국제세미나 및 2008 청각학 세미나(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20p
- 국립특수교육원(2008), 청각장애학생의 교육 및 청능재활의 적용 실제, 제15회 국제세미나 및 2008 청각학 세미나(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20p
- 국립특수교육원(2011), 특수교육실태 국제동향, 극동디앤씨(주).
- 김경진·김창옥(2003), 청각장애 특수학교 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저널:이론과실천 제4권 4호.
- 김병하·강창옥·최영주(1994), 청각장애와 언어,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언아(2009), 2009 미국 장애인관련법 핸드북 요약, EDI 수시과제보고서.
- 남기현(2012), 한국수화의 기호학적 연구-분류사구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남영신(1987), 우리말분류사전, 한강문화사.
- 레이제켄도프, 김종복 외 역(2005), 레이제켄도프의 언어의 본질, 박이정.
- 박남수(2005), 이중문화 접근에 기초한 청각장애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재 개발, 언어치료연구 제14권 제4호.
- 박천기(2010), 韓·美 양국의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비교 조사, 방송문화진흥회 해외조사 연구 보고서.
- 배둘련·안성우·백유순(2002), 청각장애 학생과 교사 및 부모의 수화에 대한 태도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제4권 1호.
- 변광수 편(2003), 세계 주요 언어, 역락.
- 변용찬 외(2005),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광진(2013),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농인과 외국인의 한국어 오류 분석, 이중언어

학 52호.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8), 세종문화사대계1~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스티븐핀커, 김한영 외 역(1995), 언어본능 상~하, 그린비.

원성옥(2013), 수화의 언어학적 특징, 새국어생활 제23권 2호.

윤병천 김병하(2004),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특수교육저널:이론과실천 제5권 1호.

윤석민(2012), 농인의 국어교육론 정립을 위한 제안 -농인의 국어 인식 및 국어 능력에 대한 조사 연구 필요성, 건지인문학8.

윤석민(2013), 농사회 용어의 정리 방향,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농사회 용어 정리 토론회 자료집.

윤석민(2013),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제안, 새국어생활 제23권 2호.

이근술 최기호 편(2001), 토박이말쓰임사전1~2, 동광출판사.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도서출판 월인.

이영재(2010), 한국 수화언어의 인칭대명사 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이영재(2013), 농인의 언어 의식과 수화 사용, 새국어생활 제23권 2호.

이주호(2005),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양성.인사제도 개선방안,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 토론회.

이준우(2003), 한국 농 청소년의 농 정체성과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제4권 4호.

이희승·안병희(2009), 새로고친 한글맞춤법 강의, 친구문화사.

임지룡 외 역(2002), 몸의 철학, 박이정.

임홍빈(1998), 국어문법의 심층1~3, 태학사.

장은숙 원성옥(2005), 수화사용 농학생의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오류분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제6권 2호.

정대영(1997), 스웨덴의 특수교육, 현장특수교육 Vol.4 No.1

정은(2002), 수화의 사회적 인정, 그 당위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의사소통권과 사회통합의 연관적 의미 고찰,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제3권 3호.

정택진 외(2006), 농아인 가족이 만든 Premium Sign Language, 을지 글로벌.

村上芳則·長南浩人(2009), 일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와 평가(청각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제16회 국제세미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국제적 동향', 국립특수교육원.

최성규·김기생(2004),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한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태도 및 요구분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제5권 2호.

최성규·김기생(2005),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농문화에 대한 종단적 태도 비교, 특수

교육저널:이론과 실천 제6권 1호.

최성규·성학기(2003), 청각장애아동과 건청아동의 학년별 문자 이해력 비교 분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제4권 4호.

최성규(1999), 청각장애아 언어교육 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상호문화적 태도 비교, 난청과 언어장애연구 제22권.

편찬위원회 편(1992), 한국문화상징사전1, 동아출판사.

편찬위원회 편(2000), 한국문화상징사전2, 두산동아.

한국방송공사(1993), 표준 한국어발음대사전, 어문각.

한국청각장애교육 100주년 기념 사업회(2009), 청각장애교육의 전망과 과제(한국청각장애교육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열린세상.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6), 한국수화사전,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7), 수화로 하는 애국가·국기에 대한 맹세·한글날 노래,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7), 한국수화 문형사전,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7), 한국수화사전 별책Ⅰ 일상생활수화(1),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7), 한국수화사전 별책Ⅱ 법률수화,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8), 한국수화 1,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8), 한국수화사전 별책Ⅲ 교통수화,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9), 한국수화 2,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9), 한국수화 연구,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9), 한국수화사전 별책Ⅰ 일상생활수화(2),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9), 한국수화사전 별책Ⅳ 의학수화,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9), 한국수화사전 별책Ⅴ 정보통신수화,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10), 한국수화 연구2,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허명진·유광숙(2004), 수화와 문자간 단어제시 방법에 따른 청각장애 학생의 수용어

- 휘 형태 분석 , 특수교육저널 제5권 4호.
- 황현철(2011), 청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고용 제21권 제4호.
- 홍성은(2013), 국외 수화 언어학 연구 동향, 새국어생활 제23권 2호.
- 四日市章(2007), 聴覚障害と発達, 特別支援教育における障害の理解, 前川久男(編), 65 - 73.
- 四日市章(2007), 聴覚障害と発達・特別支援教育における障害の理解, 前川久男(編), 65 - 73.
- 小畑修一(1985), 我が国における聴覚障害者の言語教育の歴史, リハビリテーション研究 1985年11月(第50号) pp. 2 - 8, 日本障害者リハビリテーション協会.
- 水野映子(2007), 聴覚障害者の職場におけ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ー聴覚障害者・企業対象の調査にみる現状と課題, Life Design Report 2007年11-12月号 pp.4-15, ライフデザイン研究本部.
- 岩品敦子・松永充孝(2008), 事例研修と結びつけた授業研究一個の課題を授業に結び付けて, 授業の中で評価し, 定着を図ることを目指してー. 聴覚障害, 691, 16 - 25.
- 野沢克哉(1985), ろう者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諸問題, リハビリテーション研究 1985年11月(第50号) pp.22-28, 日本障害者リハビリテーション協会.
- 長南浩人(2008), 平成21年度山梨県教育職員免許状認定講習会資料
- 長南浩人・澤隆史(2007), 読書力診断検査に見られるろう学校生徒の読書力の発達. ろう教育, 49(1), 1 - 10.
- 井原栄二・草薙進郎・都築繁幸(1982), 聴覚障害児の話し・読み・作文指導. 明治図書.
- 中野善達(1990), 聴覚障害児の学力, 聴覚障害, 45(12), 4 - 10.
- 中野善達(1990), 聴覚障害児の学力. 聴覚障害, 45(12), 4 - 10.
- 中野善達(2008), 聴覚障害教育の基本と実際, 田研出版.
- 中村真里(1996), 聴覚障害児における構文指導に関する実験的研究. 風間書房.
- 萩原浅五郎(1963), “ろう”についての教育的解釈ー教育研究の中核ー, ろう教育, 18(5), 3 - 6.
- 萩原浅五郎(1963), “ろう”についての教育的解釈ー教育研究の中核ー. ろう教育, 18(5), 3 - 6.
- 脇中起余子(2009), 聴覚障害教育これまでとこれからーコミュニケーション論争・9歳の壁・障害認識を中心に, 北大路書房.

- Allen, T, Patterns of Academic Achievement Among Hearing Impaired Students: Deaf Children in America, San Diego, CA: Little Brown, 1986
- Anderson, R. J. & Sisco, F. Y.(1977), Standardization of the WISC-R performance scale for deaf children. Washington, D.C.: Office of Demographic Studies, Gallaudet College.
- Baynton, D.C. Forbidden Signs: American Culture and the Campaign Against Sign Language, Chicago: The University Press, 1996
- Brasel, K. & Quigley, S. P.(1977), Influence of certain Language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s in early childhood on the development of Language in Deaf individual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0, 95-107.
- C.A. Perfetti & Rebecca Sandak(2000), Reading optimally builds on spoken language,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5:1 Winter.
- Christiansen, J. B. & Leigh, I. W.(2002), Cochlear Implants in children Ethics and choice. Wh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Council of Europe(2005), The status of sign languages in Europ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Desselle, D. D.(1994), Self-Esteem, Family Climate, and Communication Patterns in Relation to Deafnes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39(3), 322-328.
- Diana Burman(2008), "Researching Deaf Children's Literacy", ESRC Research Methods Festival St Catherine's College, Oxford
- Erting, C., Thumann-Presioso C. & Ricasa, R.(2000), ASL/English acquisition in a Bilingual preschool topic. 1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of the Deaf and 6th Asia-Pacific Congress on Deafness. 170.
- Fortgens, C.(2000), The language choice of Deaf children in a Bilingual setting. 1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of the Deaf and 6th Asia-Pacific Congress on Deafness. 214.
- Grosjean, François "The Bilingual and the Bicultural Person in the Hearing and in the Deaf World", Sign Language Studies,

Volume 77, Winter 1992

- Hermans, D., Knoors, H., Ormel, E., & Verhoeven, L. (2008)., Reading vocabulary learning in deaf children in bilingual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3(2), 155-174.
- Hong Sung-Eun(2009), *Kongurenzverben in der Koreanischen Gebärdensprache*, Signum Verlag.
- ICED 2000(2000), ICED Sydney 2000 Australia. 1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of the Deaf and 6th Asia-Pacific Congress on Deafness.
- Indiana School for the Deaf: No Deaf or Hard of Hearing Child Left Behind: They Can Have It All, ASHA Convention, Power Point Presentation, November 2003
- John L. Luckner & Christine Cooke(2010), A summary of the vocabulary research with students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American Annals of the Deaf*, Vol 155, No.1, pp.38-67
- John L. Luckner & Christine Cooke(2010), A summary of the vocabulary research with students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American Annals of the Deaf*, Vol 155, No.1, pp.38-67
- Johnson, Robert K., et al: *Unlocking the Curriculum: principles for Achieving Access in Deaf Education*, 1989
- Keefe, J.F., *Cultural Reproduction and the Hidden Curriculum: An Investigation into Preschool Programs for the Deaf*.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82
- Komesaroff, L.(2001), *Adopting Bilingual Education: An Australian School Community's Journey*,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ang, H. G. (2003),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deaf education*. In M. Marchark & P. E. Spencer(Eds.), *Oxford handbook of deaf studies, language and education*(pp.9-20). New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Lionel Evans(1982), *Total Communication*, Gallaudet University Press.
- Moore, D. F. & Martin, D. S. edit(2006), *Deaf Learners*, Gallaudet University Press.
- Moore, D. F. edit(2002), *Partners in Education*, Gallaudet University

- Press.
- Murphy, N. J.(1972), Characteristics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under six years of age. United States 1969-70. Office of Demographic Studies. Washington, D.C.: Gallaudet College.
- Nover, Stephen M. Star School USDLC Engaged Learning Project No.5 ASL/English bilingual staff development project in Deaf Education: Evaluation and Impact Study: Final Report 1997-2002
- Paul, P. V. (2003). Processes and components of reading. In M. Marschark & P. Spenc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deaf studies, language and ducation* (pp. 97--10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awllings, Brenda.(1973), Characteristics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by Hearing Status: US 1970-71. Series D., No.10, Office of Demographic Studies. Washington, D.C.: Gallaudet College.
- RAY JACKENDOFF(2002), *FOUNDATIONS OF LANGUAGE*, OXFORD.
- Saville-Troike, M.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ries on Issues in Second Language Research*, Cambridge, MA: Newbury House Publishers, 1985
- Stuckless, E. R. & Birch, J. W.(1997), The Influence of Early Manual Communication of the Linguistic Development of Deaf Children,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2(3), 71-79.
- The National Agenda: Moving Forward on Achieving Educational Equity for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June 2004
- Traxler, C. The Stanford Achievement Test, 9th Edition: National Norming and Performance Standards for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2000
- Trybus, Raymond & Carl Jensema(1978), Communication Patterns and Education Achievement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Office of Demographic Studies, Series T, No.2. Washington, D.C.: Gallaudet College.
- UNESCO(2005), *Sharing a World of Defference: the Earth's linguistic, cultural and biological diversity*,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어판.
- Wauters, L. N., van Bon, W. H. J., & Tellings, A. E. J. M.(2006)., *Reading*

comprehension of Dutch deaf children. Reading and Writing: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9, 49--76.

Wrigley, O.P. Sound Knowledge: The Political Meaning of Deafnes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1992

부 록

[부록 1] 문해력 설문지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1) 캐논코리아 농인용
(2) 캐논코리아 관리자용
(3) 종교기관용
(4) 일반 농인용

[부록 3] 심층면담 전사본 (1) 캐논코리아
(2) 안동시
(3) 완주군

[부록 4] 문해력 설문지 코딩 자료

[부록 5] 기관별 문해교육 현황 조사표

※ [부록 3]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부록 1] 문해력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윤석민 교수 연구실

우 151-74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TEL: (063)270-3176 yuonsm@jbn.u.ac.kr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ID

안녕하십니까? '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연구'의 설문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사는 농인의 문해 능력 실태 조사를 위해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전북대 21세기수화연구단에서 수행하는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농인의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모두 통계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통계법 제33조)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주관: 국립국어원(02-2669-9715)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조사 기관: 전북대 21세기 수화연구단
연구 책임자: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윤석민(063-270-3176)

면접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 _____분

면접 장소

SQ1. 거주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SQ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3. 연령 _____세

SQ4. 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중학교 중퇴 ⑤ 고등학교 졸업
⑥ 고등학교 중퇴 ⑦ 대학교 졸업 ⑧ 대학교 재학 ⑨ 대학교 중퇴

SQ5. 직업

SQ6. 기본 사항

1. 당신의 청각장애가 온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5세 이전 ② 10세 이전 ③ 15세 이전 ④ 20세 이전 ⑤ 20세 이후

2. 당신의 부모님께서서는 수화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3. 당신의 부모님께서서는 농인이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4. 당신의 형제 중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5. 당신의 형제 중에 농인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6. 당신은 누구에게 수화를 처음 배웠습니까?

- ① 부모님 ② 형제 ③ 친구 ④ 친척 ⑤ 선생님

7. 당신은 수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아주 조금 전혀
잘한다 잘한다 한다 못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8. 당신은 국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두 개 이상도 가능)

- ① 집 ② 학교 ③ 종교기관(성당, 교회, 절) ④ 농아인협회 ⑤ 스스로 공부

9. 당신은 읽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0. 당신은 자신의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아주 조금 전혀
잘한다 잘한다 한다 못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감독자 확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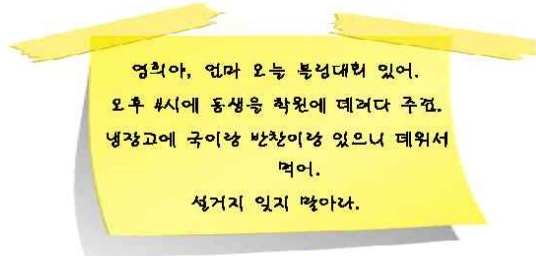
국어 문해력 평가

총 문항 수 : 20문항

주관 :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전북대 21세기 수화연구단

1. 다음은 영희에게 어머니가 남긴 메모입니다. 메모의 내용과 다른 것은?



- ① 어머니는 불령대회에 간다.
- ② 동생은 학원에 가지 않는다.
- ③ 냉장고에 국과 반찬이 있다.
- ④ 영희는 설거지를 해야 한다.

2. 다음 요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른 것은?



김치라면

< 만드는 방법 >

- ① 물 550ml를 냄비에 넣고 끓인다.
- ② 물이 끓으면 라면스프와 김치를 넣는다.
- ③ 라면면발을 넣는다.
- ④ 4분 정도 끓이면 완성.

- ① 물은 끓이지 않는다.
- ② 김치를 넣어야 한다.
- ③ 라면 면발을 제일 먼저 넣는다.
- ④ 30분 이상 끓여야 한다.

3.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가?

도로는 생명이 달리는 곳입니다.

- ① 요리 ② 문전 ③ 노래 ④ 공부

4. 다음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한국자동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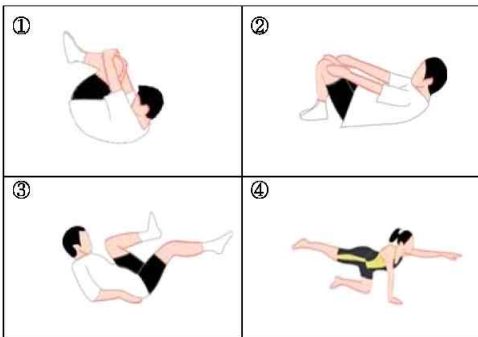


한국자동차는 편안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매우 튼튼합니다.
낮은 가격과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지요.
당신의 선택, 한국자동차입니다.

- ① 편안하다 ② 작다 ③ 튼튼하다 ④ 가격이 비싸다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스트레칭 동작은?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바닥에 댄 후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쪽 뻗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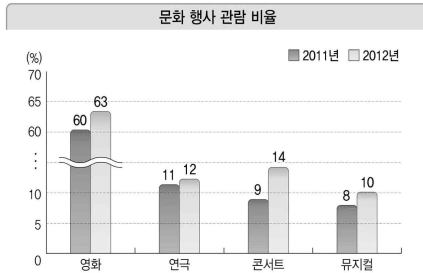
6.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가?



1. 먼저 전원 버튼을 누르시고 화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2. 화면이 나오면 원하는 기능에 손가락을 대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 ① 구입 안내 ② 효과 설명 ③ 문의 사항 ④ 사용 방법

7. 다음을 보고 내용이 같은 것은?



- ① 관람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콘서트이다.
- ② 두 해 모두 영화를 관람한 비율이 가장 낮다.
- ③ 2011년에는 연극보다 뮤지컬을 더 많이 관람했다.
- ④ 2012년에는 연극보다 콘서트를 관람한 사람이 적었다.

8. 다음 안내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방과 후 공 부 방』
아 동 모 집 안내

♡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
♡ 교육료 : 40,000원(1개월) / 교재비별도
♡ 시 간 : 월~금 / 오후2시~오후5시
↳ 차량은 오후1시30분부터 시작됩니다^^

♡ 프로그램 : 기초학습지도, 중·고급 영어·수학 독서지도 및 논술, 예절교육
관문교실, 문화체험(영화상영, 체험학습참여 등), 간식제공 등

※ 교재는 두산동인® 비빔밥만화 & 비빔밥만화 수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의 혜택이 있으니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① 교육료는 내지만 교재비는 무료입니다.
- ②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③ 매일 5시간씩 가르칩니다.
- ④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교육료가 없습니다.

9. 아래 기사를 읽고 ㉠,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결혼 조건 1순위! 남자가 갖춘 조건 ㉠, 여자가 갖춘 조건 ㉡

결혼 조건 1순위에 대한 결과가 성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났다.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력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성격을 중시하였으며, 그 뒤로는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 직업을 꼽았다. 남자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배우자의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격 좋아야한다고 말하는 남자들이 많았다.

- | | | | |
|------|----|-------|-----|
| ㉠ | ㉡ | ㉠ | ㉡ |
| ① 외모 | 성격 | ② 외모 | 경제력 |
| ③ 성격 | 외모 | ④ 경제력 | 외모 |

10. 다음 정보를 보고 잘못 이해한 것은?

도시철도 에티켓 5대항목



열차는 먼저 내린 후
안전하게 승차



옆 사람을 배려해서
다리는 모으고 앉기



교통약자를 위해
자리 양보하기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통화는 간단히



열차 내에서는
뛰지 않고 조용히

- ① 열차 안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 ② 노약자에게는 자리를 양보합니다.
- ③ 다리는 벌리지 않고 앉습니다.
- ④ 먼저 탄 후에 내립니다.

1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차는 한 시간을 달리면 무려 1만 8600칼로리를 소비한다. 같은 시간에 자전거는 350칼로리를, 그것도 허리둘레에 끼인 지방을 소비한다. 자동차로 운전하는 거리의 80퍼센트가 집에서 13킬로미터 이내에 집중된다. 몸무게 70킬로그램 한 사람을 나르기 위해 300마력을 내는 2000킬로그램 괴물을 움직이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 ① 운동을 위해 자전거를 타자.
- ② 자동차를 타지 말고 자전거만 타자.
- ③ 아무리 먼 거리라도 자동차를 타지 말자.
- ④ 자동차를 타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한다.

12. 다음 광고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은 칫솔 통에서만 만납니다!

아빠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는 집안 일을 이유로...
동생은 고3이라는 특혜(?)로...
아침마다 북적이지만...

- ① 현대인은 바쁘다.
- ② 가족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
- ③ 욕실이 가족의 중심 공간이다.
- ④ 칫솔 통에서라도 만나서 다행이다.

13. 다음은 신문기사의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여행 성수기, 비행기 표 구입 '하늘의 별 따기'

- ① 여행객이 늘어나 순식간에 비행기 표가 다 팔렸다.
- ② 여행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비행기 표 가격이 많이 올랐다.
- ③ 같은 기간에 여행을 가려는 사람이 많아 비행기 표가 부족하다.
- ④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시기여서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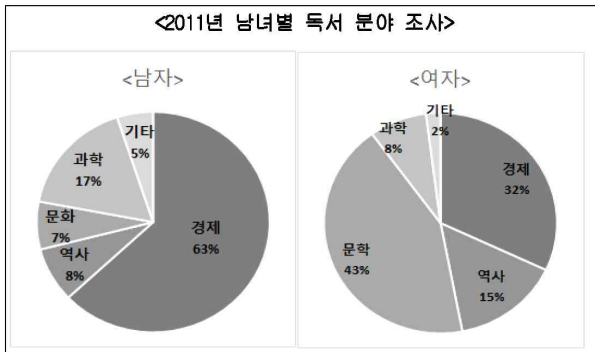
14.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은?



함께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팔을 벽벽 긁기 시작하면 어쩔지 나도 간지러워져 따라 긁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영국의 한 연구팀은 가려움증도 하품처럼 옮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가려움에 전염되면 뇌는 실제로 피부가 붓고 열이 나는 것으로 인식해 가려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누가 더 가려움에 잘 전염될까? 하품이나 웃음의 경우 공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전염되는 데 반해 가려움은 신경질이 심한 사람일수록 더 잘 전염된다.

- ① 신경질이 심한 사람은 피부가 붓는다.
- ②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가려움을 함께 느낀다.
- ③ 웃음과 하품에 쉽게 전염되는 사람은 가려움에도 쉽게 전염된다.
- ④ 가려움에 전염되면 직접적인 피부 자극이 없어도 가렵다고 느낀다.

15. 다음 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서 분야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
- ② 남자는 과학보다 역사에 관심이 더 많다.
- ③ 남자가 여자보다 경제에 관한 책을 더 많이 읽는다.
- ④ 여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문학이다.

16. 다음 사진에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돈을 물 쓰듯 한다.
- ②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 ③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 ④ 얼마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17. 다음 글에 대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보 등산 모임

- . 산행 장소: 지리산
- . 모이는 때: 10월 20일(일) 04:00
- . 모이는 곳: 터미널 앞
- . 회 비: 5,000원
- ※ 점심은 산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 ① 지리산은 위험하지 않을까?
- ② 수영복을 준비해야 하나?
- ③ 회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 ④ 국립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되나?

18. 다음 글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존의 이유

조병화

깊이 사귀지 마세. / 작별이 잦은 우리들의 생애,
가벼운 정도로 / 사귀세.
약수가 서로 짐이 되면 / 작별을 하세
어려운 말로 / 이야기하지 / 얹기로 하세.
(중략)
작별이 올 때 /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사귀세.

- ① 가능하면 가볍게 사귀자.
- ② 결국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다.
- ③ 사람 사이에는 항상 거리가 필요하다.
- ④ 작별이 잦은 만큼 더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

19.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민법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이라면, 근로기준법은 고용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따라서 근로 기준법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맺어진 어떤 약속이나 계약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근로자가 입사 당시에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에는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제28조)이 있기 때문에 그 서약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 ① 근로 기준법의 제정 과정
- ② 근로 기준법의 기본 목적
- ③ 근로 기준법의 제정 동기
- ④ 근로 기준법의 문제점

20. 다음 책소개 글과 내용이 같은 것은?



철학자 아버지의 인문육아

저/역자 권영민

출판사 청림출판 추수밭

출판일 2013.07.25

총페이지 272쪽

가격 14,000원

추천자 박인원(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일반적인 태도로부터 벗어나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생생한 일들을 단순히 지나쳐 보내지 않고 철학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음미한다. 일상사를, 그것도 육아의 문제를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틀로 탐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저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사소한 일들을 한편으로는 아이의 시선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시선에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양한 철학 이론과 접목시켜 재해석해본다.

- ① 이 책은 번역서이다.
- ② 이 책은 철학 연구를 위한 책이다.
- ③ 저자는 육아에서 감정적 행동을 강조한다.
- ④ 저자는 지나치기 쉬운 일도 철학적으로 생각한다.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1) 캐논코리아 농인용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윤석민 교수 연구실

우 151-74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TEL: (063)270-3176 yuonsm@jbnu.ac.kr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 기초 연구(질문지)

ID				
----	--	--	--	--

안녕하십니까?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 기초 연구’의 설문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사는 농인의 국어사용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어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전북대학교 21세기 수화연구단에서 수행하는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농인의 국어사용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모두 통계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통계법 제33조)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주관: 국립국어원(02-2669-9715)
한국농어인협회(02-461-2261)

조사 기관: 전북대학교 21C 수화연구단
연구 책임자: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윤석민(063-270-3176)

1.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 안산사업소’에 입사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

2.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 안산사업소’에 입사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

3. 회사 생활을 하면서, 청인 직원과 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합니까? (수화, 한국어 구화, 한국어 글) 혹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4. 귀사에서 청인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5. 마지막으로 농인의 문해력 향상과 관련하여 사회진출에 성공한 선배로서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부록 2] 심층면담질문지 (2) 캐논코리아 관리자용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윤석민 교수 연구실

우 151-74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TEL: (063)270-3176 yuonsm@jnu.ac.kr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 기초 연구(질문지)

ID

안녕하십니까?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 기초 연구’의 설문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사는 농인의 국어사용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전북대학교 21세기 수화연구단에서 수행하는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농인의 국어사용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모두 통계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통계법 제33조)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주관: 국립국어원(02-2669-9715)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조사 기관: 전북대학교 21C 수화연구단
연구 책임자: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윤석민(063-270-3176)

1. 귀사(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 안산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농인을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2. 귀사에서는 농인 직원과의 주된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입니까? (수화, 한국어 구화, 한국어 글)

--

3. 농인 직원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농인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책, 언어적 특성에 기반한 교육, 동기부여, 청인과의 교류, 농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

4. 귀사에서 농인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5. 마지막으로 농인의 문해력 향상과 관련해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부록 2] 심층면담질문지 (3) 종교기관용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윤석민 교수 연구실

우 151-74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TEL: (063)270-3176 yuonsm@jbn.u.ac.kr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 기초 연구(질문지)

ID

안녕하십니까?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 기초 연구’의 설문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사는 농인의 국어사용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전북대학교 21세기 수화연구단에서 수행하는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농인의 국어사용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모두 통계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통계법 제33조)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주관: 국립국어원(02-2669-9715)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조사 기관: 전북대학교 21C 수화연구단
연구 책임자: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윤석민(063-270-3176)

1. 농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세세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

2. 농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읽기,쓰기)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3. 농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4. 농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5. 농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2] 심층면담질문지 (4) 일반 농인용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윤석민 교수 연구실

우 151-74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TEL: (063)270-3176 yuonsm@jbn.u.ac.kr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 기초 연구(질문지)

ID

안녕하십니까?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 기초 연구’의 설문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사는 농인의 국어사용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전북대학교 21세기 수화연구단에서 수행하는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농인의 국어사용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모두 통계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통계법 제33조)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주관: 국립국어원(02-2669-9715)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조사 기관: 전북대학교 21C 수화연구단
연구 책임자: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윤석민(063-270-3176)

1. 일상 생활을 하면서, 청인과 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합니까? (수화, 한국어 구화, 한국어 글)

--

2. 농인들과 청인들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청인들이 농식 수화를 인정하고 익히는 것 외에 농인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3. 특히 한국어 읽기 쓰기 능력이 부족하여 청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4. 당신 주변에서 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5. 마지막으로 농인과 청인의 조화를 위하여 농인과 청인이 각각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특히 문해력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 4] 문해력 설문지 코딩 자료

지역	성별	학력	연번	연령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5	1	19	1	1	1	1	2	5	3	2	2	3	2	3	2	4	4	4	4	1	4	1	1	2	3	3	2	1	2	3	1	3
8	1	5	2	31	1	1	1	2	2	3	1	2	1	3	2	3	2	4	4	4	3	4	2	4	1	2	4	1	3	2	4	2	2	2
8	1	5	3	23	1	1	1	1	1	2	1	2	1	3	2	2	2	4	4	4	1	4	4	4	4	2	4	3	2	2	2	1	2	4
1	1	5	4	23	1	2	2	2	2	5	3	12	1	3	2	3	2	4	4	4	3	4	4	3	4	2	2	2	2	3	4	1	2	1
8	1	5	5	22	1	2	2	2	2	5	3	2	2	4	3	1	4	4	2	4	2	3	9	4	4	2	1	3	1	2	4	3	2	3
8	1	5	6	29	1	1	1	1	2	1	1	2	2	3	3	3	2	1	3	4	2	2	3	4	4	4	4	3	3	2	2	4	1	4
13	1	5	7	25	1	2	2	2	2	3	3	2	2	3	3	3	2	4	4	4	1	1	9	4	4	2	3	3	1	4	2	4	2	3
8	2	5	8	22	1	2	2	1	2	3	4	1	1	4	2	2	2	4	3	4	1	4	4	4	4	2	4	3	2	2	2	3	3	3
15	2	5	9	22	1	2	2	2	2	5	3	34	2	4	1	3	4	2	4	2	2	3	3	4	3	4	3	4	2	2	2	4	3	3
11	1	5	10	19	1	1	1	1	1	1	3	2	1	4	2	2	2	4	3	3	1	1	2	4	4	2	2	4	2	3	2	3	3	3
6	1	5	11	20	1	2	2	2	2	3	3	45	2	3	3	3	4	4	2	3	2	3	23	2	1	2	3	4	3	4	1	3	2	2
8	2	6	12	29	1	2	2	2	2	3	3	2	1	3	2	3	2	2	2	4	2	4	3	4	4	3	2	4	1	4	2	3	2	3
8	1	5	13	24	1	2	2	2	2	5	3	2	1	2	2	2	2	4	4	4	2	3	3	4	3	3	2	3	2	4	2	4	4	3
8	2	5	14	23	2	2	2	2	2	3	3	12	1	4	2	2	2	4	4	4	4	4	4	4	3	2	4	4	2	2	2	1	2	4
8	1	5	15	24	1	2	2	2	2	5	3	2	1	4	2	1	2	4	4	2	2	1	3	4	4	4	4	3	2	4	2	4	4	3
1	1	5	16	23	1	2	2	1	2	5	3	2	2	4	4	2	3	1	4	4	4	4	3	4	1	2	4	4	2	4	4	4	3	3
8	1	5	17	23	3	2	2	2	2	5	3	1	2	3	2	2	2	4	4	4	4	1	1	3	1	3	4	4	2	2	2	2	1	3
1	1	5	18	21	1	2	2	1	1	5	2	12	1	4	2	2	2	4	4	4	2	1	2	4	1	2	2	4	2	2	2	3	3	3
4	2	5	19	28	1	2	2	2	2	3	3	12	1	2	2	4	2	4	4	4	4	1	2	1	4	2	4	1	2	2	2	4	2	2
9	1	5	20	20	2	2	2	1	2	5	2	2	1	3	2	2	2	4	4	4	1	4	2	4	4	2	4	1	2	2	2	1	1	3
9	1	5	21	21	1	2	2	2	2	3	1	23	1	3	2	2	2	2	4	4	4	3	4	4	1	2	2	2	2	2	4	3	3	3
5	1	6	22	24	1	2	2	2	2	5	4	2	1	2	2	3	2	4	4	4	3	1	2	4	2	2	4	4	2	1	2	4	3	2
8	2	5	23	28	1	2	2	1	2	5	3	2	2	9	2	2	2	4	4	4		4	2	4	9	2	9	3	2	1	2	4	2	3
8	1	5	24	29	2	2	2	2	1	5	2	2	2	4	2	3	2	4	4	4	2	1	4	3	9	4	1	1	1	4	2	4	1	3
8	1	5	25	23	1	1	2	1	1	5	4	5	2	4	2	3	2	4	4	4	3	4	2	4	4	2	4	3	2	4	2	3	4	3
13	1	5	26	23	1	2	2	2	2	3	2	2	9	4	2	2	2	4	9	9	4		1	4	9	4	1	9	4	4	4	1	2	2
15	2	5	27	23	1	2	2	1	1	5	3	24	2	4	2	2	2	1	4	2	4	1	2	4	4	3	1	3	1	3	4	2	1	3
1	2	5	28	27	1	2	2	2	2	3	3	2	1	4	2	3	1	2	4	4	3	1	1	4	1	1	2	4	2	1	2	4	1	3
8	2	5	29	23	1	2	2	1	1	5	3	4	2	3	4	3	2	4	4	4	2	1	4	1	4	4	2	3	3	3	2	1	4	3
8	1	5	30	20	1	1	1	1	1	1	3	2	1	4	2	2	2	4	3	4	2	1	4	4	4	2	1	3	2	4	2	1	4	2
13	2	3	31	43	9	2	1	2	2	5	3	2	1	3	9	9	4	9	4	4	9	9	9	9	9	9	9	9	9	9	9	9	9	9
13	1	7	32	27	1	2	2	1	2	3	3	34	1	3	3	2	2	2	1	4	4	2	3	2	1	4	3	3	1	4	3	1	2	3
13	1	5	33	26	1	2	2	2	2	5	5	2	1	3	2	1	2	1	4	4	4	2	9	3	4	1	1	2	2	2	1	4	4	3
13	2	6	34	30	1	2	2	1	1	3	1	2	1	2	1	3	2	4	4	4	1	1	1	4	1	2	2	3	2	3	2	4	1	2
13	1	3	35	46	1	1	1	2	2	1	3	4	2	4	9	9	2	1	9	9	9	9	3	9	4	9	3	1	9	4	4	3	4	2
13	1	5	36	27	1	2	2	1	1	3	2	23	2	3	2	4	2	3	4	4	3	1	4	3	4	4	4	1	1	2	2	4	4	2
13	2	9	37	22	1	1	2	1	2	5	3	2	1	2	2	3	2	2	1	4	3	4	2	4	1	2	4	2	2	2	2	4	1	2
13	2	5	38	19	1	2	2	2	2	3	2	12	1	1	2	2	2	4	4	4	1	4	4	4	1	2	4	4	2	2	2	1	2	4
13	1	5	39	45	1	2	2	1	2	3	3	4	2	2	9	4	2	4	4	2	3	1	3	1	4	3	2	4	3	2	3	3	2	2
13	2	7	40	25	1	2	2	2	2	5	2	24	1	3	2	2	2	4	4	4	1	4	4	4	4	3	1	3	3	4	2	4	2	2
13	2	6	41	24	1	2	2	1	2	3	3	12	1	3	2	3	2	4	4	4	1	4	2	4	4	1	4	3	2	1	2	1	4	2

지역	성별	학력	연번	연령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3	2	3	42	32	1	2	2	2	2	5	2	4	1	4	4	3	2	1	3	4	2	3	2	1	1	3	4	1	1	4	2	1	4	3	
13	2	7	43	30	1	2	2	2	2	5	2	25	1	4	1	3	2	1	3	4	2	1	2	1	1	3	2	1	1	4	2	4	1	4	
13	1	6	44	38	1	2	2	2	2	5	4	45	1	1	2	2	2	4	4	4	1	1	4	4	4	2	4	3	2	2	2	1	4	4	
13	1	6	45	26	1	1	2	1	2	3	3	2	1	3	2	2	2	4	3	4	4	3	4	4	4	2	4	3	2	2	2	3	1	3	
13	1	5	46	38	1	1	1	1	1	5	2	2	1	2	3	4	4	3	1	4	4	1	3	3	2	4	3	4	2	1	4	4	2	2	
13	1	6	47	50	2	2	2	1	1	3	1	23	1	1	2	2	2	4	4	4	1	4	4	4	1	1	4	2	2	2	2	2	1	2	
13	1	2	48	15	1	2	1	2	2	5	4	2	1	2	1	3	2	4	4	4	4	4	9	4	2	3	4	2	1	2	2	3	4	4	
13	1	5	49	19	2	2	2	2	2	3	2	2	2	3	2	2	2	4	4	4	2	1	4	3	1	2	2	1	2	4	2	1	1	2	
13	1	5	50	22	1	2	2	2	2	5	5	2	1	3	2	2	2	4	4	4	2	1	3	3	1	2	1	1	2	4	2	1	1	2	
13	1	4	51	18	2	2	2	2	2	3	4	2	2	2	2	2	2	4	4	4	4	1	3	1	1	4	1	1	2	3	2	4	2	2	
13	1	5	52	49	1	2	2	1	1	5	2	2	2	3	3	2	2	4	2	4	3	4	2	2	2	3	2	3	3	1	3	3	2	2	
13	1	3	53	40	2	2	2	1	2	3	1	2	1	2	2	2	2	4	4	4	1	4	1	3	4	4	4	3	4	3	1	3	4	3	
13	2	5	54	30	1	2	2	1	2	3	2	2	1	3	2	2	2	4	4	4	4	4	9	4	4	1	1	3	3	2	9	9	9	9	
13	2	3	55	52	1	2	2	2	2	3	3	2	1	4	1	2	2	4	3	4	2	4	2	4	2	2	4	9	9	9	9	9	9	9	
3	1	5	56	43	1	2	2	1	2	3	3	2	2	5	2	1	2	4	4	1	4	4	1	4	1	3	1	1	3	4	3	4	9	9	
14	1	5	57	43	1	1	2	1	1	5	2	2	1	2	2	2	2	4	4	4	2	2	2	3	2	4	4	9	9	9	9	9	9	9	
3	1	5	58	42	1	2	2	2	2	5	2	2	1	3	2	3	2	2	4	4	2	9	9	3	4	3	4	9	2	4	1	9	9	3	
3	1	5	59	40	1	2	2	2	2	5	1	12	1	3	2	2	2	4	4	4	1	4	4	4	4	2	4	3	2	2	2	4	2	3	
3	2	5	60	9	1	2	2	1	2	3	1	12	1	1	2	3	2	4	4	4	4	4	2	4	1	2	4	2	2	1	4	1	2	2	
3	1	5	61	38	1	2	2	2	1	5	3	23	2	3	2	4	2	4	4	1	4	1	3	2	2	2	2	2	1	4	3	1	2	3	
3	1	5	62	40	1	2	2	2	2	5	2	2	2	3	4	3	2	4	4	4	2	4	2	4	1	3	3	1	1	2	2	3	2	4	
3	2	7	63	42	1	1	2	1	2	5	2	2	1	3	1	2	2	1	4	4	4	9	3	4	1	2	4	4	4	4	2	1	4	3	
3	1	5	64	40	1	2	2	2	2	5	2	23	1	3	1	3	2	4	4	4	3	4	4	1	4	2	1	3	2	3	2	2	2	3	
3	1	6	65	56	1	2	2	2	2	5	2	23	1	2	4	2	2	4	3	4	3	4	4	4	1	4	3	3	1	2	2	4	2	3	
14	1	5	66	44	1	2	2	2	2	5	2	23	1	3	1	2	2	4	4	4	9	4	9	9	9	9	9	9	9	9	9	9	9	9	
3	2	5	67	42	1	1	2	1	2	3	2	12	1	3	2	2	2	4	4	4	3	4	2	4	4	2	3	2	1	2	2	2	1	3	
14	2	5	68	34	1	1	2	1	2	3	2	2	1	2	1	3	2	4	4	4	4	4	9	3	3	2	1	2	2	4	2	4	2	2	
3	1	5	69	42	1	2	2	1	1	3	2	2	1	2	2	3	4	1	2	4	4	3	1	2	1	3	1	1	1	1	4	4	3	2	2
3	2	1	70	55	1	2	2	1	2	3	2	2	2	4	2	2	4	1	1	3	3	2	4	1	1	4	4	3	3	3	3	3	1	4	2
3	2	5	71	44	1	2	2	2	2	3	2	13	1	3	2	3	2	4	3	2	4	4	4	3	4	4	4	3	1	2	2	1	1	2	
3	2	6	72	30	1	2	2	2	2	5	3	2	1	3	4	3	2	4	4	4	1	4	2	4	4	3	2	3	2	4	2	2	4	1	
3	2	3	73	48	1	2	2	1	2	5	2	3	1	3	9	2	2	2	4	1	1	3	2	3	4	3	2	2	3	2	1	4	3	3	
3	2	5	74	41	2	2	2	2	2	5	3	2	2	3	1	3	2	4	4	4	1	1	2	3	1	2	4	1	3	3	2	1	4	2	
3	1	9	75	55	2	2	2	2	2	9	3	9	2	2	2	2	2	9	3	4	9	3	9	4	9	1	4	4	2	4	2	4	2	2	
3	2	5	76	37	1	2	2	2	2	3	3	13	2	3	2	2	2	4	4	4	1	4	2	4	4	2	4	2	2	2	2	3	4	3	
3	2	6	77	35	1	2	2	2	2	3	2	2	1	3	2	2	2	4	4	4	1	4	2	4	1	3	4	2	2	1	2	1	4	3	
3	1	5	78	36	1	2	2	1	2	2	3	2	1	2	2	3	2	4	4	4	2	1	4	3	4	4	4	4	1	1	2	2	1	2	
3	1	1	79	52	2	2	1	1	1	5	3	3	1	4	3	2	4	1	2	9	9	2	9	2	9	2	3	3	2	9	1	2	4	4	
14	1	5	80	42	1	2	2	2	2	5	1	2	1	1	9	3	4	1	3	4	3	1	1	4	3	2	2	2	3	4	4	2	2	1	
3	1	5	81	35	2	2	2	2	2	3	3	25	1	2	2	2	2	4	3	4	4	3	2	4	3	1	4	4	2	4	2	4	4	2	
3	1	1	82	44	3	2	1	2	1	3	3	4	9	3	1	2	3	1	1	2	2	1	9	4	4	4	1	2	1	1	3	4	2	1	

지역	성별	학력	연번	연령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2	9	83	35	1	2	9	1	2	3	9	3	2	9	3	2	3	9	9	3	2	3	2	4	1	4	4	3	4	1	4	2	2	2
3	1	5	84	29	1	1	2	1	2	3	3	3	1	3	3	3	1	4	1	2	1	1	2	3	1	2	1	4	3	2	3	4	9	9
3	2	5	85	34	1	2	2	2	2	3	1	2	2	3	4	3	2	4	4	4	2	9	3,4	4	1	2	4	3	2	2	2	4	4	3
3	2	5	86	35	1	2	2	1	2	3	1	2	1	2	2	3	2	4	3	4	1	4	9	4	4	2	1	4	2	4	2	4	2	1
3	1	5	87	36	2	2	2	2	2	5	2	23	2	3	2	3	2	4	4	4	1	1	1	1	3	4	4	3	3	1	9	9	1	2
3	2	1	88	52	1	2	2	2	2	3	4	4	2	5	3	4	3	3	2	4	1	4	9	2	4	3	2	3	4	4	4	1	2	1
3	2	5	89	31	1	2	2	2	2	5	2	2	2	3	4	3	4	2	1	4	1	1	1	3	4	3	2	3	1	3	2	4	1	3
3	1	5	90	48	1	2	2	2	2	5	3	23	1	3	4	2	2	1	3	4	2	1	9	2	1	4	2	4	2	3	4	4	2	3
3	1	5	91	9	3	2	2	2	2	3	5	2	2	3	3	2	2	4	2	1	2	4	1	2	4	2	4	2	3	4	1	3	2	3
3	1	5	92	49	1	2	2	2	2	3	3	2	1	3	3	2	4	1	2	3	1	1	9	4	4	2	4	1	1	1	1	3	4	4
3	2	5	93	38	1	2	2	2	2	3	1	2	2	3	4	3	4	3	2	4	2	1	1	1	1	3	1	4	3	2	2	3	1	1
3	1	5	94	38	1	2	2	2	2	5	3	23	2	3	2	4	2	4	3	4	2	3	4	4	3	3	3	3	4	3	2	4	2	2
3	2	5	95	48	1	2	2	2	2	5	3	2	1	3	3	2	2	1	1	4	2	1	9	2	1	1	4	2	2	1	4	3	4	2
3	2	5	96	9	1	2	2	2	1	5	2	23	1	3	3	4	4	4	1	3	2	3	9	1	4	4	4	1	3	4	2	4	1	4
3	2	5	97	36	1	1	1	1	2	5	2	23	2	3	1	3	2	3	4	4	1	1	4	4	4	1	3	3	2	3	2	4	4	3
14	2	5	98	38	1	2	2	2	2	5	2	2	2	3	3	2	2	4	2	4	1	1	9	3	2	2	4	3	4	4	2	1	2	1
3	2	5	99	30	1	2	2	2	2	3	1	25	1	2	2	1	2	9	9	9	4	4	9	4	1	2	2	4	2	2	4	4	3	
10	1	9	100	17	5	2	2	2	2	3	2	25	1	2	2	3	2	3	4	4	4	3	3	4	2	2	2	4	4	2	4	3	2	
10	2	4	101	18	3	2	2	2	2	3	4	2	1	3	3	4	4	3	2	3	1	2	3	3	3	4	3	3	1	2	3	3	2	2
10	2	2	102	16	1	2	2	2	2	5	2	2	1	1	2	2	2	4	4	4	1	4	4	4	1	2	4	4	2	2	2	4	4	4
9	1	2	103	17	1	2	2	2	2	3	4	5	1	2	2	2	2	4	4	4	3	4	4	4	1	2	4	4	2	2	2	4	2	2
9	1	4	104	19	1	1	2	2	2	4	3	2	2	5	1	3	2	3	4	1	1	1	2	1	2	4	1	1	1	1	1	4	9	9
11	2	4	105	17	1	2	2	1	2	5	3	2	1	3	4	4	2	4	4	3	1	3	2	1	4	4	2	3	2	4	4	4	2	3
9	1	9	106	17	1	2	2	2	2	5	4	12	1	4	4	3	2	4	4	2	1	3	1	1	4	3	4	4	3	4	1	2	4	2
10	1	4	107	18	1	2	2	2	2	5	3	2	1	2	2	2	2	4	4	4	4	1	2	4	1	3	4	4	2	4	2	4	4	3
10	2	4	108	16	1	2	2	2	2	3	1	2	2	3	2	3	2	3	4	4	3	1	1	4	4	2	1	1	2	2	2	4	4	3
8	1	2	109	16	1	2	2	2	2	3	3	125	1	2	2	2	2	4	4	4	1	1	4	4	1	2	4	3	4	2	2	3	4	3
10	1	2	110	16	1	2	2	2	2	5	3	25	1	2	2	4	2	4	4	4	1	4	2	4	4	2	4	1	2	1	2	3	4	3
10	1	2	111	15	1	2	2	2	2	3	2	125	1	2	2	2	2	4	4	4	1	4	2	4	4	2	4	1	2	1	2	4	4	4
10	1	4	112	19	1	1	1	1	2	3	2	2	1	3	2	2	2	4	4	4	1	1	4	4	4	2	4	2	2	4	2	1	4	3
10	1	2	113	16	1	1	1	2	2	1	3	25	2	2	2	2	2	4	4	4	2	1	2	4	4	1	4	1	3	3	2	4	2	3
10	1	4	114	17	2	1	2	1	2	1	3	2	1	3	4	3	2	4	4	4	4	3	1	2	4	2	2	4	1	2	1	1	4	2
10	1	4	115	18	1	2	2	1	2	3	3	2	1	3	2	2	2	3	2	4	1	1	4	1	1	4	2	2	3	3	2	3	1	3
10	1	4	116	17	1	2	2	2	2	5	3	12	1	3	2	4	2	2	1	4	4	3	3	4	2	3	4	4	2	4	2	3	4	3
10	1	4	117	16	1	2	9	2	2	5	2	2	2	3	3	4	1	2	1	1	2	4	4	2	2	4	3	3	2	4	4	3	4	2
10	1	4	118	17	3	2	2	2	2	5	3	2	1	2	2	2	2	4	4	4	1	4	4	4	1	2	4	4	2	2	2	4	3	4
10	2	4	119	19	1	1	1	1	2	1	2	1235	1	3	2	2	2	4	4	4	1	4	2	4	1	2	4	1	2	2	2	3	2	2
10	2	4	120	18	1	2	2	2	2	5	2	12	1	2	2	3	2	4	4	4	3	1	4	3	4	4	2	3	1	2	2	4	1	2
10	1	4	121	20	1	2	2	2	2	3	3	2	1	2	4	4	2	4	4	4	2	3	4	2	1	4	4	1	1	1	4	3	4	4
10	1	2	122	16	1	1	2	1	1	5	3	2	1	3	2	2	2	4	4	4	4	1	1	4	1	4	4	3	2	1	2	3	2	3
10	1	4	123	20	1	2	2	2	2	3	3	2	1	2	2	2	2	4	4	4	1	4	3	4	4	4	3	2	4	2	1	4	2	2

지역	성별	학력	연번	연령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1	4	124	17	1	1	1	1	2	1	3	2	1	3	2	2	2	4	4	4	1	1	2	4	1	2	4	4	2	2	2	4	3	4
10	1	2	125	18	1	2	2	2	2	5	3	2	2	3	2	2	2	4	4	4	1	4	2	4	1	4	4	3	2		2	3	4	3
6	1	4	126	16	3	2	1	1	2	3	2	2	1	3	3	3	4	2	2	3	4	2	2	3	2	4	3	1	3	1	3	1	2	4
10	1	4	127	19	3	2	2	2	2	3	3	25	1	3	2	2	2	2	4	4	2	1	4	4	4	4	4	2	2	4	4	1	2	3
10	1	4	128	18	1	1	2	1	2	5	2	12	1	3	2	4	2	4	4	4	4	1	2	4	4	2	1	1	2	2	4			3
10	2	4	129	19	1	2	2	2	2	5	5	5	2	5	4	4	1	4	2	4	1	4	1	1	1	1	4	3	4	2	3	1	1	4
10	2	4	130	20	1	2	2	2	2	3	3	2	1	3	2	2	2	4	4	4	1	1	2	4	1	1	4	2	2	2	2	1	2	2
10	1	4	131	18	1	1	2	2	2	5	3	25	1	3	4	4	2	4	1	3	1	1	1	1	4	3	2	4	4	2	4	4	2	3
10	2	4	132	18	1	1	1	1	1	1	1	12	1	2	2	2	2	4	4	4	1	4	2	4	4	2	4	2	2	2	4	1	4	3
10	1	4	133	18	3	2	1	2	1	3	2	2	2	1	2	2	2	4	4	4	1	4	4	4	2	2	1	2	2	2	2	1	4	4
1	1	7	134	25	1	2	2	2	2	5	1	23	2	3	1	2	2	4	4	4	4	3	3	1	4	2	4	4	2	2	2	4	1	2
8	1	6	135	22	1	1	2	2	2	3	1	3	2	3	4	2	2	4	4	4	1	1	2	4	2	1	4	3	2	3	2	3	2	2
1	1	4	136	17	1	2	2	2	2	3	3	12	1	3	2	4	2	4	2	4	3	1	3	4	1	4	4	4	3	2	2	2	1	4
4	2	3	137	43	1	2	2	1	1	5	1	2	1	3	2	4	9	1	9	4	9	4	3	4	9	1	9	3	1	4	9	9	9	9
1	2	6	138	30	1	1	2	1	1	3	3	25	2	3	2	2	2	4	4	4	1	4	2	4	1	1	4	3	1	2	3	1	4	2
1	9	9	139	9	1	2	2	2	2	1	9	2	2	1	3	2	2	4	4	4	2	4	4	4	1	2	4	1	2	1	2	2	4	4
9	9	9	140	9	1	2	2	2	2	3	1	2	1	1	9	3	2	4	3	4	1	1	1	4	1	2	2	1	2	1	2	2	4	3
1	1	6	141	24	1	2	2	2	2	3	1	23	1	1	2	2	2	4	4	4	4	4	2	4	1	4	1	3	2	2	2	3	3	4
4	2	3	142	70	9	2	2	2	2	5	3	2	2	3	9	9	9	9	9	9	9	9	4	2	9	2	9	9	9	4	9	3	9	9
1	2	6	143	25	1	2	2	1	1	3	3	1	1	3	2	2	2	4	4	4	1	4	4	4	1	2	4	4	2	2	2	3	3	4
8	1	6	144	20	1	2	2	2	2	5	3	245	1	2	2	4	2	4	4	4	1	4	2	2	4	2	4	2	2	2	2	3	2	2
9	9	9	145	9	1	1	2	1	1	3	1	35	1	3	2	2	2	4	4	4	1	4	4	4	1	2	4	9	2	2	2	1	2	4
1	1	6	146	23	1	2	2	2	2	5	2	23	1	3	2	3	2	4	4	4	1	4	1	4	1	2	1	1	2	2	2	1	2	3
1	2	6	147	44	1	2	2	2	2	5	1	2	1	1	2	2	2	4	3	3	2	9	1	9	1	2	2	2	1	2	2	3	9	9
1	2	5	148	39	1	2	1	2	2	3	3	2	1	3	3	3	2	3	4	4	4	1	2	3	1	3	2	4	1	2	2	3	2	
8	1	5	149	44	1	2	2	2	2	3	2	2	1	2	4	2	1	4	9	9	9	9	2	3	9	9	9	9	9	9	9	9	9	9
1	2	3	150	51	1	2	2	1	2	5	3	23	2	4	4	2	2	1	1	4	2	2	9	2	9	4	9	3	9	1	9	9	9	9
1	2	3	151	41	1	2	2	1	2	5	2	2	1	3	4	3	4	1	2	3	1	4	9	2	1	2	4	9	9	9	4	1	2	3
1	1	3	152	45	1	2	2	2	2	5	3	2	2	4	1	4	4	9	9	9	2	2	9	9	2	3	4	1	3	4	1	3	1	4
11	2	5	153	34	9	9	2	2	2	3	1	2	1	2	2	2	2	4	4	4	1	4	9	4	4	2	4	4	2	1	2	4	3	2
1	1	1	154	52	1	2	1	2	1	2	4	2	1	4	4	4	2	4	1	4	2	4	4	2	4	4	4	2	3	1	3	1	2	2
1	2	7	155	30	1	2	2	1	2	3	1	25	2	3	2	2	2	4	4	4	9	4	2	4	4	2	4	3	2	2	2	3	4	3
8	2	7	156	34	1	2	2	2	2	5	2	23	1	2	1	3	2	4	4	4	3	1	3	4	4	3	3	3	4	1	2	4	4	3
1	1	6	157	34	1	2	2	2	2	5	2	23	1	3	2	3	2	2	4	2	1	1	1	4	4	2	4	4	2	4	2	4	4	
1	2	5	158	48	1	2	2	1	1	5	2	2	1	3	4	2	2	1	1	4	4	4	9	3	1	1	1	3	3	4	3	4	2	1
12	1	4	159	19	1	2	2	2	2	3	3	2	2	3	2	1	2	4	3	4	1	4	2	4	4	4	2	3	2	2	4	3	1	2
12	2	4	160	20	1	1	1	2	2	4	3	24	1	3	2	1	2	4	4	3	2	3	4	3	1	2	1	2	2	4	2	3	2	3
12	2	4	161	18	1	2	2	2	2	3	2	12	1	3	2	2	2	4	4	4	4	1	4	4	3	2	1	4	2	2	2	2	4	2
12	2	4	162	18	1	2	2	2	2	1	4	2	2	4	1	3	2	3	4	4	1	3	2	4	4	1	1	3	2	4	2	4	2	2
12	2	4	163	17	1	2	2	2	2	3	2	25	2	3	2	2	2	4	4	4	4	3	2	3	4	1	2	3	2	4	2	4	4	3
12	2	4	164	17	1	2	2	2	2	3	2	2	2	2	2	2	2	4	4	4	2	1	2	4	1	2	4	3	2	2	2	3	4	4

지역	성별	학력	연번	연령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2	1	4	165	19	1	2	2	2	2	5	1	25	1	3	3	2	2	4	2	4	3	4	4	4	4	3	3	3	2	1	2	3	4	3
12	1	4	166	18	1	2	2	1	1	5	1	25	2	3	2	2	2	4	3	4	1	1	2	4	1	2	4	3	2	2	1	2	4	3
12	1	4	167	18	1	2	2	2	2	5	3	2	2	3	2	2	2	4	2	4	3	4	2	4	4	2	4	3	2	2	2	4	2	4

[부록 5] 기관별 문해교육 현황 조사표

전국 수화통역센터 문해교육 현황 조사표

번호	지역	기관명	사업 기간				교육 대상			
			교육실시연도	교육기간	주횟수	교육시간	수화사용가능여부	개설반의 수	교육정원	배출현황
1	경북	성주군수화통역센터	2013	09.01.~12.31.	1	2	가능(3명)모름(13명)	1	16	16
			2013	01.01.~12.31.	1	2	가능(3명)모름(11명)	1	14	14
2	경북	경북농아인협회 청송군지부	2013	2013년 3월 1일~12월	주 1회	2시간(매주 수)	수화사용가능(3명), 모름(12명)	오후 1반	없음	연 15명
3	황성	황성군농아인협회	2013	43.~7.18 10.2~진행 중	주2회	3시간/1회	수화사용가능7명 수화모름 4명	오후 1반	11명	
4	홍천	홍천군수화통역센터	2013	1.8~4.16	주1회	1시간30분/1회	수화모름 10명	오후 1반	10	10
5	고성	고성군농아인협회	2012	1.31~4.5	주2회	1시간/1회	수화사용가능22명 수화모름 4명	오후 1반	26	26
6	양양	양양군농아인협회	2012	2.8~10.5	주3회	2시간/1회	수화모름 4명	오후 1반	4	4
7	철원	철원군농아인협회	2013	5.27~11.27	주1회	1시간/1회	수화가능 7명	오후 1반	7	
8	춘천	없음								
9	원주	없음								
10	강릉	없음								
11	동해	없음								
12	태백	없음								
13	속초	없음								
14	삼척	없음								
15	영월	없음								
16	평창	없음								
17	화천	없음								
18	정선	없음								
19	경남거창	농아인협회	2008년	2008년 3월~ (7.8월없음)	1회	50분	수화가능(4명) 수화모름(3명)	오후 1반	7명	없음
			2009년	2009년 3월~ (7.8월없음)	"	"	수화가능(5명) 수화모름(2명)	"	"	"
			2010년	2010년 3월~ (7.8월없음)	"	"	수화가능(3명) 수화모름(3명)	"	6명	"
			2011년	2011년 3월~ (7.8월없음)	"	"	수화가능(2명) 수화모름(3명)	"	5명	"
			2012년	2012년 3월~ (7.8월없음)	"	"	수화가능(4명) 수화모름(3명)	"	7명	"
			2013년	2013년 3월~ (7.8월없음)	"	"	수화가능(7명) 수화모름(3명)	"	10명	"
20	경상남도	경남농아인협회 창녕군지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1	경북	군위군수화통역센터	2011~	2011~현재까지	1회	1시간	상관없음	1반	없음	10명
22	경북 청도	경상북도농아인협회 청도지부	2008	2008.2~12	1	1시간 30분	가능	오후 1반	10	8
			2009	2009.2~11	1	1시간 30분	가능	오후 1반	10	5
			2010	2010.1~12	1	1시간 30분	가능	오후 1반	10	10

			2011	2011.10~12	1	1시간 30분	가능	오후 1반	10	10
			2012	2012.1~12	1	1시간 30분	가능	오후 1반	10	10
23	경상북도 고령군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고령군지부	2013년	1월 10일 ~ 3월 28일	주 1회	주 1회 2시간 (목요일)	수화사용가능 4명 수화모름 2명	오후 1반	8명	6명
			2013년	4월 1일 ~ 9월 25일	주 1회	주 1회 2시간 (목요일)	수화사용가능 4명 수화모름 2명	오후 1반	8명	6명
			2013년	10월 10일 ~ 현재	주 1회	주 1회 2시간 (목요일)	수화사용가능 4명 수화모름 2명	오후 1반	8명	6명
24	경기	과천시지부	없음							
25	김제	김제시수화통역센터	2013년	9월 11일~11월 20일	주 1회	2시간	가능	오전반	15명	
			2012년	9월 13일~12월 5일	주 1회	2시간	가능	오전반	14명	
			2011년	9월 16일~12월 16일	주 1회	2시간	가능	오후반	17명	
			2010년	9월 7일~ 11월 30일	주 1회	2시간	가능	오전반	19명	
			2009년	10월 16일~12월 4일	주 1회	2시간	가능	오전반	16명	
26	김포시	김포시농아인협회	2013년도	3월 4일~7월 31일	주 3회	6시간(월,수,금/각일 2시간씩)	수화사용가능(2명)/수화모름(5명)	오후 1반	10명	7명
			2013년도	9월 2일~11월 29일	주 3회	6시간(월,수,금/각일 2시간씩)	수화사용가능(2명)/수화모름(5명)	오후 1반	10명	7명
27	대전	(산)한국농아인협회 대전광역시협회	2013년	2013.03.01~2013.12.20 (월, 목/ 각 2시간)	2	2	수화사용가능 24명 수화모름 3명	월-오전 1반, 목-오후 1반	각 20	
28	대전	유성구 수화통역센터	없음							
29	대전	충구 수화통역센터	없음							
30	대전	대덕구 수화통역센터	없음							
31	대전	서구 수화통역센터	없음							
32	경상북도	윤경시지부	"없음"							
33	경기도	의정부시지부	2010	11월 17일 ~ 12월 29일	1	1시간 30분	가능(5명)	오후반	5명	0
			2011	2월 5일 ~ 4월 27일	1	1시간 30분	가능(4명), 수화모름(2명)	오후반	6명	0
			2011	5월 4일 ~ 11월 30일	2	1시간	가능(2명), 수화모름(2명)	문맹/ 기초반	4명	0
			2012	2월 1일 ~ 6월 30일	2	1시간	가능(2명), 수화모름(2명)	문맹/ 기초반	4명	0
			2013	없음						
34	양주시	수화통역센터	없음	없음						
35	파주시	파주 수화통역센터	2007	2월~12월	1회	90분	수화가능(5명)/수화모름(10)명	1	없음	

36	경상북도	경북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없음							
37	세종시	농아인협회	2009년	2009년 10월 ~ 12월	2	1	수화사용가능여부(7명)/수화모름 (3명)	오후 1반	10	10
38	고양시	수화통역센터	2013년	3월5일~5월30일	주2회	1시간30분	수화사용가능	오후1	8명	
39	구미	경북농아인협회구미시지부	2010년	3월~12월	2	2	가능	2	10	10
			2011년	3월~12월	1	2	가능	1	10	10
			2012년	3월~12월	1	2	가능	1	10	10
40	전북	남원시수화통역센터		없음			없음			없음
41	경기 안성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성시지부	2013년(상반기)	2013년 3월 5일~5월 28일	주 2회	1회 1시간	수화모름(7명)	오후 1반	7명	수료자 5명
			2013년(하반기)	2013년 9월 9일~12월 4일	주 2회	1회 1시간	수화모름(6명)	오전 1반	6명	진행중
42	전북군산	군산지부	2012년도	2012년6월1일~2012년12월31일	1회	1시간	수화사용가능(12명)	오전1반	12명	12명
			2011년도	2011년6월1일~2011년12월31일	1회	1시간	수화사용가능(10명)	오전1반	12명	10명
			2010년도	2010년6월1일~2010년12월31일	1회	1시간	수화사용가능(11명)	오전1반	12명	11명
			2009년도	2009년6월1일~2009년12월31일	1회	1시간	수화사용가능(13명)	오전1반	12명	13명
			2008년도	2008년6월1일~2008년12월31일	1회	1시간	수화사용가능(12명)	오전1반	12명	12명
			2007년도	2007년6월1일~2007년12월31일	1회	1시간	수화사용가능(11명)	오전1반	12명	11명
			2006년도	2006년6월1일~2006년12월31일	1회	1시간	수화사용가능(09명)	오전1반	12명	09명
43	전주	사)전북농아인협회 전주시지부	2010	5월~10월	1회	90분	△	1	15	
			2011	4월~9월	1회	90분	△	1	13	
			2012	5월~10월	1회	90분	△	1	19	
			2013	6월~11월	1회	90분	△	1	10	
44	제주도	농아인협회 서귀포시지부	2013	8월~9월	2	2시간 (화·수요일 / 1시간씩)	수화사용가능 5명 수화모름 2명	오전 1반	7	
			2013	9월~10월	2	2시간 (화·수요일 / 1시간씩)	수화사용가능 5명 수화모름 2명	오전 1반	7	
45	경북	의성군수화 통역센터	2013년	연중수시	2	2	모름 1명	오전	1	1
46	수원	농아노인복지센터	2012. 9~ 2012.12	4개월	주1회	1시간30분	가능	1개	20명	없음
			2013.01~2013. 12	1년	주1회	1시간30분				
47	경북	김천지부	2,013	2013.02.19부터~2013.05.28까지 매 주 (화요일) /주1회 / 2시간	15회	2시간	수화가능 9 / 수화모름 1	오후 1반	10	10
48	남양주	남양주시 수화통역센터	2013년	3월 8일~현재	주1회 금요일	90분	수화사용 5명	오후 1반	5	
						13시간 20분	수화사용가능 (5)명			

49	경남	농아인협회 밀양시지부	2013년	2013. 3. 2 ~ 2013. 12. 31	주5회	(월, 화, 수, 목, 금/각 50분씩)	수화사용가능 (11)명	오전4반/오후9반	16명	
			2012년	2012. 2. 1 ~ 2012. 12. 31	주3회	8시간 20분 (월, 수, 금/ 각 50분 씩)	수화사용가능 (4)명 수화모름(6)명	오전2/오후 5반	10명	
			2011년	2011. 2. 1 ~ 2011. 12. 31	주3회	9시간 10분 (월, 화, 금/각 50분 씩)	수화사용가능 (4)명/ 수화모름(14명) -청각장애인 마을어르신 단체 한글공 부	오전2/오후 6반	18명	
50	경기	이천농아인지부	2013.3.7~11.7	6개월	1회	1시간 반	수화사용(4), 수화모름(8)	오전1반	12	3
51	고흥군	고흥군지부	2013년	09월05일 ~ 12월05일	매주 목요일 12회	2시간	수화사용가능여부30명/수화모름2명	오후반 1반		
52	나주시	나주시지부	2012년	10월22일 ~ 12월09일	주2회	1시간 30분(월, 목)	일부 가능	1	10명	10명
53	무안군	무안군지부	2013년	04월08일 ~ 12월19일	주2회	4시간(화, 목/각 일 2 시간씩)	수화가능(10명), 수화모름(10명)	오전1반		
			2012년	05월08일 ~ 07월12일	주2회	4시간(화, 목/각 일 2 시간씩)	수화가능(10명), 수화모름(10명)	오전1반		
			2010년	05월17일 ~ 11월03일	주2회	4시간(월, 수/각 일 2 시간씩)	수화가능(10명), 수화모름(10명)	오전1반		
				05월18일 ~ 08월24일	주1회	2시간(화요일)	수화가능(10명), 수화모름(10명)	오후1반		
54	순천시	순천시지부	2012년	05월13일 ~ 09월23일	주1회	20	10명	오후1반	10명	10명
55	여수시	여수시지부	2012년	04월 ~ 12월	주1회	2시간	수화가능 (18명)	오후 1반	18명	
			2013년	09월 ~ 12월	주1회	2시간	수화가능 (15명)	오후 1반	15명	
56	완도군	완도군지부	2012년	03월 ~ 12월	주1회	1시간	수화가능(20), 모름(10)	1	30명	30명
57	장흥군	장흥군지부	2013년	5월	주2회	2시간			12명	10명
			2013년	6월	주3회	2시간	3명	기초반1	3명	2명
			2013년	7월	주5회	2시간				
			2013년	8월	주3회	2시간				
			2013년	9월	주4회	2시간				
			2013년	10월	주3회	2시간				
58	강진군	강진군지부	2013년	2월 ~ 6월(상반기) 9월 ~ 11월(하반기)	주2회	2시간		25명		

59	광양시	광양시지부	2013년	10월8일	주 1회	2시간	수화사용가능 7명 수화모름 2명	오후1반		
60	목포시	목포시지부	2010년	08월01일 ~ 08월30일	12	2시간	수화가능(12)	1	12명	12명
61	신안군	신안군지부	2012년	전남농아인협회	주1회	1시간	수화가능4명/수화모름4	오후 1반	8명	8명
62	영광군	영광군지부	2013년	2013년2월18일~현재까지	주2회	2시간(월,수/각 일1시간씩)	수화사용가능5명 /수화모름5명	오전1반	10명	
			2012년	2012년 6월26일~8월30일	주2회	4시간(화,목/각 일2시간씩)	수화가능13명/수화모름7명	오전1반	20명	
			2010년	2010년 7월1일~12월31일	주1회	4시간(화/각 일2시간씩)	수화가능11명/수화모름9명	오전/오후2반	20명	
			2010년	2010년1월1일~6월30일	주2회	4시간(화,목/각 일2시간씩)	수화가능11명/수화모름9명	오후1반	20명	
			2009년	2009년7월7일~12월24일	주2회	4시간(화,목/각 일2시간씩)	수화가능10명/수화모름10명	오후1반	20명	
			2008년	2008년12월23~2009년5월25일	주2회	4시간(화,목/각 일2시간씩)	수화사용가능11명 /수화모름9명	오후1반	20명	
63	해남군	해남군지부	2009년	3월25일~12월30일	주2회	4시간	수화사용가능(6)명 수화모름(21)명	오전 1반	27명	27명
			2010년	6월9일~9월15일	주2회	4시간	수화사용가능(7)명 수화모름(9)명	오전 1반	16명	27명
			2012년	5월2일~10월10일	주2회	4시간	수화사용가능(5)명 수화모름(8)명	오전 1반	13명	27명
64	진도군	진도군지부	2010년	5월 17일~9월 6일	주1회	2시간	수화사용가능(8)명, 수화모름(7)명	오전 1반	15명	27명
65	보성군	보성군지부	2010	3월~6월,9월~11월	주1회	1시간30분	11명	1	11명	11명
			2011	3월~6월,9월~11월	주1회	1시간	14명	1	14명	1명
			2012	3월~6월,9월~11월	주1회	1시간	19명	문맹기초반	19명	19명
			2012	3월~6월,9월~11월	주1회	1시간	10명	문맹중급반	10명	10명
66	연천군	연천군지부	없음							
67	부천	부천시지부	2012년도	2012년 3월 7일~7월25일	주1회	1시간30분	가능 (6명)	오전/1	6명	
68	안양시	안양시지부	2012	2012년9월12일~	월2회(수)	2시간40분	수화사용3명/약간:1명	오전 1반	제한없음	출소1인
69	부산	부산농아인협회	2013	2013년 7월 4일~11월 27일	주1회(수요일)	1시간	수화사용가능(15명)	오후 1반	15	15
70	전북 부안	부안농아인협회	2010년	3월1일~11월30일	1회	2시간	수화가능(1),모름(9)	1	10명	10명
			2011년	3월1일~11월30일	1회	2시간	수화가능(3),모름(11)	1	14명	4명
			2012년	3월1일~11월30일	1회	2시간	수화가능(4),모름(13)	1	17명	8명
			2013년 현재	3월1일~11월30일	1회	2시간	수화가능(4),모름(14)	1	21명	19명
71	충북	단양군지부	2010년	3월~5월/10월~12월	1회/총24회	화요일 2시간	수화가능12명/모름3명	1개반	15명	12명
			2011년	3월~5월	1회/총10회	목요일 2시간	수화가능12명/모름3명	1개반	15명	10명
			2012년	4월~5월	1회/총8회	월요일 2시간	수화가능12명/모름3명	1개반	15명	8명

			2013년	4월~7월	1회/총15회	수요일 2시간	수화가능12명/모름3명	1개반	17명	11명
72	충북	보은군수화통역센터	2013년	3월 ~ 11월	1회	2시간	수화사용가능	2	20	20
73	충북	괴산군지부	2012년	2012년 4월 1일~ 2012년 11월 3일 까지	주2회/화,목	각 2시간	수화사용가능(20명)	오후 1반	20명	20명
74	충북	진천군수화통역센터	2,013	4월 1일 - 12월 30일	1회	1	수화가능 10명	오전	10	45
75	충북	충주시지부	2013년도	3월~5월 상반기 9월~11월 하반기	주2	2시간	가능 9명 불가능 2명	오전만 1반	15명	11명
76	충북	청주시지부	2013년	3월 ~ 12월	1회	1시간	가능(6명)/불가능(4명)	오전 1반	30명	10명
77	충북	제천시지부	2013년	2013. 02. ~ 2013. 05	2회	4시간	수화가능(12명) 수화모름(8명)	1	20	6명
			2013년	2013. 09. ~ 현재	2회	4시간	수화가능(10명) 수화모름(10명)	1	20	진행중
78	봉화군	수화통역센터	없음							
79	경남하동	사)경남농아인협회하동군지부 하동군수화통역센터	2013년 02월 05일~	2013년02월05일~현재	1	2	수화모름(4명)	야간반 1	5	
80	경북	영덕군수화 통역센터	2013년	4월~9월	주1회	2시간	수화사용가능(4명) 수화모름(6명)	오전 1반	10명	10명
81	안동	수화통역센터	2,011	2011. 09. 28 ~ 2011. 12. 26	1(월)	2시간	가능 6명	오후 1반	10	6
			2,012	2012. 05. 03 ~ 2012. 05. 31	1(목)	1시간 30분	가능 8명	저녁 1반	8	8
			2,013	2013. 03. 13 ~ 2013. 06. 26	1(수)	2시간	가능 5명	저녁 1반	6	5
82	영양군	영양군수화통역센터	2013년도	3월~11월	1회	2시간	수화가능(3명),수화모름(16명)	오전1반	없음	
83	예천군	예천군 수화통역센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009년~2010년	2009.6.4월~2010년.11.18	1~2회	1~2시간	수화사용가능(12명)/수화모름(6명)	오후1반	20명	18명
			2011년	5.19~10.20	1~2회	1시간	수화사용가능(15명)/수화모름(5명)	오후1반	20명	16명

84	완주	완주군수화통역센터	2012년	5.17~12.14	1회	1시간	수화사용가능(11명)/수화모름(4명)	오후1반	15명	11명
			2013년	4.8~11.18	1회	1시간	수화사용가능(5명)/수화모름(5명)	오후1반	10명	10명
			2013년	4.8~11.18	1회	1시간	수화사용가능(5명)	오후1반	5명	5명
			2012년~2013년	2012.4월~현재	3회	1시간	수화사용가능(1명)	오전1반	1명	1명
85	인천	인천시 농아인 협회	2013	2월 6일~3월 29일	14	1시간	수화사용가능(7)	오전(1)	7	
				4월 3일~5월 31일	16					
				6월 5일~7월 24일	15					
				9월 4일~10월 28일	13		수화사용가능(5)		5	
86	평택	평택수화통역센터	없음							
87	하남	하남수화통역센터		없음						

전국 수화통역센터 문해교육 현황 조사표

번호	지역	기관명	교재		교수자				수업자료	
			제목	자체제작	전공	수화가능여부	농인/청인	교수자 총 인원	강의안	시험지 및 제출 답안
1	경북	성주군수화통역센터		자체제작	사회복지	가능	농인	1	-	-
				유아용한글교재 및 자체제작	사회복지	가능	농인	1	-	-
2	경북	경북농아인협회 청송군지부		농인 강사 자체제작	사회복지	삼 / 중 / 하	농인	1	없음	없음
3	황성	황성군농아인협회	농아인을 위한 한국수어1		사회복지 사회복지	가능 가능 불가 불가	농인 청인 청인 청인	4명		첨부
4	홍천	홍천군수화통역센터	농아인을 위한 한국수어1			가능	농인	1명		
5	고성	고성군농아인협회		날말카드		가능 가능	농인 청인	2명		
6	양양	양양군농아인협회	농아인을 위한 한국수어1		사회복지	가능	청인	1명		
7	철원	철원군농아인협회	농아인을 위한 한국수어2 한글따라쓰기 기적의 계산법		사회복지 수화통역	가능 가능	청인 농인	2명		
8	춘천	없음								
9	원주	없음								
10	강릉	없음								
11	동해	없음								
12	태백	없음								
13	속초	없음								
14	삼척	없음								
15	영월	없음								
16	평창	없음								
17	화천	없음								
18	정선	없음								
							농인	1명		

19	경남거창	농아인협회				수화가능	청인	2명		
							"	3명		
							농인, 청인	"		
							"	"		
							"	4명		
20	경상남도	경남농아인협회 창녕군지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1	경북	군위군수화통역센터				O	농인	1명	O	X
22	경북 청도	경상북도농아인협회 청도지부								
23	경상북도 고령군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고령군지부	ㄱ ㄴ ㄷ 한글		미술대학 서양화과	가능	농인	1명	무	5부
			가나다국어		일반고졸	보통	농인 (난청인)	1명	무	
			ㄱ ㄴ ㄷ 한글		사회 복지학과	가능	농인	1명	무	
			가나다국어							
24	경기	과천시지부								
25	김제	김제시수화통역센터	4세 한글		사회복지학/ 신학	가능	농인/청인	1명	진행중	진행중
			점선으로 따라쓰는 처음 한글		가정교육과	가능	청인	1명	없음	없음
			또박또박 한글쓰기 단어 100		과학학과/사회 복지학과	가능	청인	1명	없음	없음
			연필잡고 만4세 한글		가정교육과	가능	청인	1명	없음	없음
			6세한글 생각놀이 느낌놀이		가정교육과	가능	청인	1명	없음	없음
26	김포시	김포시농아인협회	배움의터	쥬미래엔		O	농인	1	없음	없음
			배움의터	쥬미래엔		O	농인	1	없음	없음
27	대전	(산)한국농아인협회 대전광역시협회	기탄국어		영어과	무	청인	1		
28	대전	유성구 수화통역센터								
29	대전	중구 수화통역센터								
30	대전	대덕구 수화통역센터								

31	대전	서구 수화통역센터								
32	경상북도	문경시지부								
33	경기도	의정부시지부			수화통역사	가능	농인	1명		
					수화통역사	가능	농인	1명		
					수화통역사	가능	농인	1명		
					수화통역사	가능	농인	1명		
34	양주시	수화통역센터								
35	파주시	파주수화통역센터	생각놀이 느낌놀이 6세 한글			가능	농인	1명		
36	경상북도	경북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37	세종시	농아인협회				수화가능	농인	1	없음	없음
38	고양시	수화통역센터		✓		가능	농인	1명		
39	구미	경북농아인협회구미시지부	없음	없음		가능	농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불가능	청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불가능	청인		없음	없음
40	전북	남원시수화통역센터							없음	없음
41	경기 안성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성시지부	한글	없음	농학교졸업	수화가능	농인	1인	없음	없음
			받아쓰기	없음	농학교졸업	수화가능	농인	1인	없음	없음
42	전북군산	군산지부	국어	대구아름다운학교 교재	간호학과	수화가능	청인	1명		
			국어	대구아름다운학교 교재	간호학과	수화가능	청인	1명		
			국어	대구아름다운학교 교재	간호학과	수화가능	청인	1명		
			국어	대구아름다운학교 교재	간호학과	수화가능	청인	1명		
			국어	대구아름다운학교 교재	간호학과	수화가능	청인	1명		

			국어	대구아름다운학교 교재	수학과	수화가능	청인	1명		
			국어	대구아름다운학교 교재	수학과	수화가능	청인	1명		
43	전주	사)전북농아인협회 전주시지부	함께 배우는 세상			상	농인	1		
				○		상	농인	1		
				○		상	농인	1		
				○		상	농인	1		
44	제주도	농아인협회 서귀포시지부	한글단어	기탄출판	전자과	수화가능	농인	1	없음	없음
			한글	블루래빗	전자과	수화가능	농인	1	없음	없음
			한글쓰기	블루래빗	전자과	수화가능	농인	1	없음	없음
45	경북	의성군수화 통역센터	기타국어	쥬기탄교육	사회복지	가능	농인	1		
46	수원	농아노인복지센터	첫한글		법학	가능	청인	1명	없음	없음
			한글쓰기							
			한글쓰기							
			신나는한글여행							
47	경북	김천지부	입학준비 한글	×	기독교 교육학과	○	농인	1	×	×
48	남양주	남양주시 수화통역센터		프린트물 이용	신학과	가능	농인	1인		
49	경남	농아인협회 밀양시지부	소망의 나무			가능	청인	3		
			생각놀이 느낌놀이							
			디즈니 스쿨 스킬							
			소망의나무			가능	청인	3		
			가나다한글교재 등							
			동화책							
			한국수화							

			가나다한글교재 등							
			동화책							
			한국수화			가능	청인 청인 농인	3		
50	경기	이천농아인지부	지능업만4세 한글따라쓰기			유	농인	1		
51	고흥군	고흥군지부	The 쉽고, 재미있는 수화							
52	나주시	나주시지부	한글 생각하기		신학	가능	농인/청인	1명		
53	무안군	무안군지부	소망의나무			가능	농인	1명		
			수화랑 한글로 세상바라보기			가능	농인	1명		
			청각장애 언어			가능	농인	1명		
			수화랑 한글로 세상바라보기			가능	농인	1명		
54	순천시	순천시지부		278-2165	사회복지	가능	농인	1명		
55	여수시	여수시지부	수화랑 한글로 세상바라보기	전남공동모금 회		가능	농인	1명		
			수화랑 한글로 세상바라보기	전남공동모금 회		가능	농인	1명		
56	완도군	완도군지부	수화랑 한글로 세상바라보기							
57	장흥군	장흥군지부								
58	강진군	강진군지부	한국수화							
59	광양시	광양시지부	수화랑 한글로 세상바라보기	전남협회		가능	농인/청인	1명	X	X
			놀이야! 공부야!	기탄출판						
60	목포시	목포시지부	한국수화			가능	농인/청인	1명		
61	신안군	신안군지부	수화랑 한글로 세상 바라보기		사회복지	가능	농인	1명	없음	없음

62	영광군	영광군지부	수화랑 한글로 세상 바라보기		사회복지학	가능	농인	1명		
			"		"	가능	청인	1명		
			"		"	가능	청인/농인	2명		
			수어로 배우는 한글	O	"	가능	농인	1명		
			"	"	"	가능	농인	1명		
			"	"	"	"	"	"		
63	해남군	해남군지부	한국수화	한국농아인협회	신학	수화가능	농인	1명	없음	없음
			수화랑 한글로 세상 바라보기	전남협회	신학	수화가능	농인	1명	없음	없음
			수화랑 한글로 세상 바라보기	전남협회	신학	수화가능	농인	1명	없음	없음
64	진도군	진도군지부		전남농아인협회 제작		가능	농인/청인	1명		
65	보성군	보성군지부		278-2165		가능	농인	1명		
				278-2165		가능	농인	1명		
				278-2165		가능	농인	1명		
				278-2165		가능	농인	1명		
66	연천군	연천군지부								
67	부천	부천시지부	뉴가나다/초급	x	x	가능	농인	1	x	x
68	안양시	안양시지부	사랑의배움터		사회복지	가능	농인/청인	2인		
69	부산	부산농아인협회			사회복지학과	수화가능여부	청인			
70	전북 부안	부안농아인협회	한국수화첫걸음/6세한글		가정교육과	여	청인	2		
				자체제작	한국어	부	청인	1		
			한글교재/지능업한글		한국어	부	청인	1		
			생각썹썹&상상톡톡톡		가정교육과	여	청인	1		
71	충북	다아구티브		자체프린트/ 그림카드, 교 구		가능	농인	1명	없음	없음
				자체프린트/ 그림카드, 교 구		가능	농인	1명	없음	없음

				자체프린트/ 그림카드, 교구	사회복지	가능	농인	1명	없음	없음
				자체프린트/ 그림카드, 교구	사회복지	가능	농인	1명	없음	없음
72	충북	보은군수화통역센터	소망의 터 지혜의 터		사회복지	수화가능	농인	1명	없음	없음
73	충북	괴산군지부	썼다지웠다 숫자123		사회복지	사용가능	농인	1명		
			썼다지웠다 한글ㄱㄴㅇ		사회복지	사용가능	농인	1명		
					교육학과	사용불가	청인	1명		
74	충북	진천군수화통역센터	한글1단계	고강석	대줄	가능	농인	1	X	X
			한글2단계	고강석						
			한글3단계	고강석						
			한글4단계	고강석						
			한글5단계	고강석						
			수학1단계	고강석						
			수학2단계	고강석						
			수학3단계	고강석						
			수학4단계	고강석						
			수학5단계	고강석						
75	충북	충주시지부	한글은 내친구		사회복지	가능	농인/청인	1명		쪽지시험
76	충북	청주시지부				O	농인	2		
						O	농인			
77	충북	제천시지부	소망의 나무			가능	농인	2		
			기탄수학			가능	농인	2		
			소망의 나무			가능	농인	2		
			with Talk 2.0			가능	농인	2		
			기탄수학							
78	봉화군	수화통역센터								
79	경남하동	사)경남농아인협회하동군지부 하동군수화통역센터	The 쉽고 재미있는 수화 한국수화		사회복지	가능	농인	1명		

80	경북	영덕군수화 통역센터		010-2951- 1131					해당없음	
81	인동	수화통역센터	실용문법연습서			가능	농인	1	v	v
				자체제작		가능	농인	1	v	v
				자체 제작		가능	농인	1	v	v
82	영양군	영양군수화통역센터	기타국어	X	없음	가능	농인	1명		
83	예천군	예천군 수화통역센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84	완주	완주군수화통역센터	지능업 만4세	삼삼출판사	가정교육학과 (부,기계공학)	수화가능	청인	1		
			또박또박 한글쓰기/한글자라기 10단계	아이즐/쥬노 벨과 개미	사회복지학과	수화가능	청인	1		
			한글자라기6단계	쥬노벨과 개미	신학(부, 사회 복지)	수화가능	농인	1		
			연필잡고만5세		신학(부, 사회 복지)	수화가능	농인	1		
			연필잡고만6세		신학(부, 사회 복지)	수화가능	농인	1		
			한글자라기6단계		신학(부, 사회 복지)	수화가능	농인	1		
85	인천	인천시 농아인 협회	국어 입학 준비	문연사	농통사	수화가능	농인	1		
					통역사	수화가능	청인	1		
					농통사	수화가능	농인	1		
			쉽게 배우는 한국어	한글 파크	농통사	수화가능	농인	1		
86	평택	평택수화통역센터								
87	하남	하남수화통역센터								

Basic Research on the literacy educational realities of the Deaf

◆ Purposes of Research

This paper contained the research result which is titled “Basic Research on the literacy educational realities of the Deaf” and is implemented by <CBNU 21C Sign Language Research Group> as an item of ‘Korean Sign Language Research in 2013’ under The Korea Deaf Association suppor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from in August, 2013 to in February 2014.

As not hearing, the Deaf can't help but weakness to access information and communicate with a spoken language. Although it is possible for the Deaf to communicate one another by Korean Sign Language, the first language of them without any inconvenient in daily lives, they have to prepare the ability of information access based on Korean literacy for social activities, getting along with hearing people.

So far, however, there was almost none of research in terms of literacy of the Deaf. By contrast, in case of the Hearing, there have consistently been investigations or researches on their literacy. Research on the literacy of the Deaf has actually none ; compare that to the large-scale research of a basic literacy of all nation's people under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2008).

◆ Methods of Research

Under this sort of situation, this research consists of five necessities,

First, The literacy is the important way of realization for the Deaf to make their lives happy. Second, The demand of a literacy education which is suitable according as linguistic situation of the Deaf. Third, The realization of a lifelong education duty. Fourth, Insufficient situation of an investigation concerning the actual literacy of the Deaf. Fifth, Be closely connected with “Basic Research to improve the korean ability of the Deaf”(2013)

Thus there are four research methods adopted in this paper.

- (1)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search.
- (2) The present condition search of institutions which are being carried out the literacy education for the Deaf.
- (3) Questionnaire for understanding the realities of a literacy of the Deaf.
- (4) In-depth Interview with the experts for preparing how to improve the literacy of the Deaf .

◆ Contents of Research

Through the survey (1), this paper is put in order not only th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literacy realities of the Deaf but also a tendency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of a literacy ability.

Surveyed mostly USA, England, Netherland, Sweden, New Zealand, and Japan, there are lots of suggestions which are relevant to the Deaf in Korea because their systematic supplies based on the law and socio-cultural awareness for the Deaf are superior than other countries. About this, it is written on the Chapter 3.

To survey (2), it was implemented collecting the relevant programs which are carried out now and before among 185 institutions that belong to The Korea Deaf Association. Some of institutions which have unique programs were interviewed. About this, it is written on the Chapter 4.

The survey of (3) reflected on variable elements which are as possible as with making sense not only ages and areas but also academic backgrounds and occupations for literacy education. Besides, we tried hard to make a questionnaire by considering deaf's specific characters for catching a literacy abilities of the Deaf who have a linguistic habit to use a visual language, sign language.

As analyzing the result, we focused on looking for not only a literacy ability difference that the Deaf have between the Hearing and Deaf but the ways reflecting on a literacy ability education. The result of analysis is written on the Chapter 5.

Meanwhile, with the methods which are carried out through a process

from (1) to (3), the survey (4) is to prepare how to improve the literacy of the Deaf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The Chapter 6 and 7 are simply written on reflecting the result of the depth interview. On the Chapter 6, there are some contents related to how to improve the literacy upon the specific cases, for the Deaf. Also on the chapter 7, upon the factors connected with a literacy ability education are suggestions.

In sum of the research result, “there should be performed into a suitable literacy education for the Deaf.” The meaning of the suitable type for the Deaf is to do a literacy education reflecting on linguistic, cultural and social specific characters of the Deaf.

This is not a proclamatory expression but needs to be applied to the factors that are teachers, education programs, textbooks, legal or administrative supports etc. About this, it would be good to look into the Chapter 7.

◆ Emphasis of Research

Finally, I'd like to emphasize the point that to get along with the Deaf and the Hearing without any inconvenience and have pride, there need not only the efforts of the Deaf themselves but also the changes in viewpoint of the Hearing to see the Deaf as their neighbors. Since we can't force the Deaf to use a spoken Korean which is audio-language, it is natural and effective for the Hearing firstly to show how much they understand linguistic specific characters of the Deaf. I hope that this research is to be a step-stone and go beyond such efforts for the next new research.

Key Words: The Deaf, Literacy, Sign Language, Literature search, Questionares, In-depth Interview, Teacher, Education Program, Textbook, legal or administrative supports.

Project Director: Youn Soegmin(Chonbuk National University)

연구책임자: 윤 석 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주요 저서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현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연구

발행인	국립국어원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길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 성동구 성수 2가 3동 289-20 보라빌딩 4층 전화: 02-461-2261 전송: 02-461-2651
발행일	2014년 2월 26일
인쇄	2014년 2월 28일
인쇄	온누리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연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